

연구보고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연구진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청소년 인권·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총 152개에 달하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표 항목들 중에서 공식 행정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지표 항목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본 보고서)과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별책)의 두 권으로 발간하였다. 한편, 사업 최종년도인 2008년에는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는 국제비교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한 청소년인권 실태조사는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단위 설문조사(6,800명)와 개별 면접조사(50명),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의 전화 면접조사(1,000명)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내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존권 :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격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일주일에 한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이 절반에 달하고 과반수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등 영양이나 건강관리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몸이 아프더라도 일단 등교한다는 청소년이 7할을 상회하였고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간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수면시간은 대다수가 6~7시간이라고 응답하여 학계의 권장 수면시간(8시간)에 못미쳤는데, 이는 10명 중 7명이 학업스트레

스를 느끼고 있고 4명 중 1명이 친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등 과도한 학업부담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2) 보호권 : 청소년들 중 10명중 1명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5명중 1명꼴로는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2/3 이상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체벌 자체를 반대하는 청소년은 매우 드물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5 수준으로서 소수였으나, 이들 중 1/3 이상이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이 성에 따른 차별, 성적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는 데 대해서는 1/3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고민/걱정거리는 학교성적·진학진로 문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상대로는 친구가 과반수에 달하는 반면 모친은 2할 수준에 머물렀고, 상담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할을 상회하였다.

3) 발달권 :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특히 이른바 일류대학 진학을 희망하였고, 절반 이상이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얻을 수 얻을 수 있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원 수강, 개인과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할에 달하였지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사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4/5 정도가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여가시간은 하루 3시간 내외가 다수였는데 여가시간 부족보다는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의 미흡이 더 큰 불만요인이었다.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를 보면, 또래친구 관계의 만족응답률이 6할을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자신의 지역사회(동네)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4할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4) 참여권 : 가족 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가족원 모두가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1/4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무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학·진로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3에 달하였다.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특히 복장보다는 두발 규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반발감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두발이나 복장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달하였다. 학생회장 후보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1/3 미만이었으며,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4 정도,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학교는 1할 미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학교도 1할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학부모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수준을 평균 이하라고 평가하였으며,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에서는 청소년들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 특히 자녀의 아르바이트, 두발/복장 규제 문제에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거나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권정책의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① 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적 활용방안: 장기적·지속적 지표조사 및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
- ② 청소년 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립방안: 청소년 인권정책 주관부서 지정 및 정책협의기구 운영

- ③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청소년인권 ombudsman 제도 도입 및 운영
- ④ 청소년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방안: 사이버 청소년인권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II.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국제기준	
1.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유형	11
2. 청소년 인권의 국제기준	20
3. 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기구 권고사항	31
4. 청소년 인권지표 조사항목	34
III. 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45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48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83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118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150
6. 요약과 논의	173
IV. 청소년인권 관련 학부모 의식	
1. 조사개요	183
2. 학교생활 관련	185
3. 가정생활 관련	196
4. 인권보장 수준 평가	207
5. 요약과 논의	210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17
2. 정책방향 제언	221
참고문헌	235
부 록	
1. 조사표	24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70
3. 2006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281

표 목차

<표 I-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2006~2008)	6
<표 II-1> 권리유형별 UN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21
<표 II-2>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	30
<표 II-3>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요약(2003.1)	32
<표 II-4> 2006년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개요	34
<표 II-5> 2007년 청소년인권 현황 조사항목	40
<표 III-1> 인권영역별 문항수	46
<표 III-2> 표본의 특성	47
<표 III-3>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섭취 빈도	49
<표 III-4> 자기 체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52
<표 III-5>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른 날	54
<표 III-6> 지난 1주일 동안 저녁식사 방법	56
<표 III-7> 학교 급식비/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57
<표 III-8> 큰 질병을 앓은 경험	58
<표 III-9> 평일(토·일요일 제외) 하루 평균 수면시간	60
<표 III-10> 청소년 흡연율	63
<표 III-11> 청소년 음주율	65
<표 III-12> 정기적인 운동 실천여부	67
<표 III-13>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68
<표 III-14> 건강의 우선순위	70
<표 III-15>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때 취하는 행동	71
<표 III-16> 학교공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73
<표 III-17>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느끼는지 여부	75
<표 III-18> 생활 환경에 대한 범죄 안전도 평가	77
<표 III-19> 학교 급식 여부 및 안전도	79
<표 III-20>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80
<표 III-2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	82
<표 III-22>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	82
<표 III-23>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83

<표 III-24>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한 적	84
<표 III-25>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	86
<표 III-26>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	87
<표 III-27>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험	87
<표 III-28>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	88
<표 III-29>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90
<표 III-30> 선생님께서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90
<표 III-31>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3
<표 III-32>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해 본 경험	95
<표 III-3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97
<표 III-34> 청소년이라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	98
<표 III-35>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1
<표 III-36>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1
<표 III-37>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2
<표 III-38>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2
<표 III-39> 출신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3
<표 III-40>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103
<표 III-41> 친구의 학업 성적	106
<표 III-42> 친구 집의 경제력	107
<표 III-43> 친구의 국적 혹은 인종	107
<표 III-44>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또래 청소년에 대한 생각	109
<표 III-45> 가출 경험	111
<표 III-46> 성인대상 유흥업소 출입	111
<표 III-47> 성인용 음란물 열람	112
<표 III-48> 성인용 폭력물 열람	112
<표 III-49>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대화 나누기	113
<표 III-50>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폭언 하기	113
<표 III-51>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	115
<표 III-52> 고민/걱정거리 상담 상대	117
<표 III-53>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선택	120
<표 III-54>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121
<표 III-55>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122
<표 III-56>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124
<표 III-57>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	125

<표 III-58>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중요하다’	127
<표 III-59>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	128
<표 III-60>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	130
<표 III-61>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	131
<표 III-62>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132
<표 III-63>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133
<표 III-64>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134
<표 III-65>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	135
<표 III-66>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135
<표 III-67> 1일 평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시간	137
<표 III-68> 여가시간 만족도	138
<표 III-69>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140
<표 III-70> 청소년 행복도	141
<표 III-71>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의 차이	141
<표 III-72>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	143
<표 III-73>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 여부	144
<표 III-74> 동아리 활동 여부, 동아리의 종류	145
<표 III-75>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빈도	146
<표 III-7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에 도움되는지 여부	148
<표 III-7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적성/특기 개발에의 도움 여부	149
<표 III-78>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로/직업 선택에의 도움 여부	150
<표 III-79> 집안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 존중 여부	151
<표 III-80> 가정내 의사 결정자	153
<표 III-81>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54
<표 III-82>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56
<표 III-83>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 실태	158
<표 III-84>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61
<표 III-85> 교사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부	162
<표 III-86>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해명 기회 제공 여부	164
<표 III-87> 학교의 동아리 활동 인정 여부	165
<표 III-88>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에서의 허용 여부	167
<표 III-89>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여부	168
<표 III-90> 학생회장 선출시 조건없이 자유로운 입후보 여부	169
<표 III-91> 학교 규칙, 규정 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171

<표 III-92> 학교 규율, 규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172
<표 IV-1> 조사의 내용	183
<표 IV-2> 표본의 특성	185
<표 IV-3> 학교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생각	186
<표 IV-4> 복장, 두발로 인한 평소 자녀와의 의견대립 여부	188
<표 IV-5>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189
<표 IV-6>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191
<표 IV-7>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192
<표 IV-8>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194
<표 IV-9> 자녀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	195
<표 IV-10>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	197
<표 IV-11> 자녀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정도	198
<표 IV-1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99
<표 IV-13>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의견	201
<표 IV-14> 집안의 대소사에 자녀의 의견 존중 여부	202
<표 IV-15>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203
<표 IV-16>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205
<표 IV-17>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206
<표 IV-18>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207
<표 IV-19> 우리나라의 국민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생각	208
<표 IV-20>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생각	210
<표 V-1> 청소년인권정책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223
<표 V-2> 청소년인권관계기관협의회(가칭)의 기능과 구성(안)	228
<표 V-3> 청소년 인권정책 관련부처의 기능조정 방안	229

그림 목차

[그림 III-1]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섭취 빈도	49
[그림 III-2]	자기 체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51
[그림 III-3]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른 날	53
[그림 III-4]	지난 1주일 동안 저녁식사 방법	55
[그림 III-5]	학교 급식비나/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56
[그림 III-6]	큰 질병을 앓은 경험	58
[그림 III-7]	평일(토·일요일 제외) 하루 평균 수면시간	59
[그림 III-8]	남녀 고등학생 흡연을 추이	61
[그림 III-9]	청소년 흡연을	62
[그림 III-10]	청소년 음주를	64
[그림 III-11]	체육시간 운동을 제외한 정기적인 운동 실천여부	66
[그림 III-12]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67
[그림 III-13]	건강의 우선순위	69
[그림 III-14]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때 취하는 행동	71
[그림 III-15]	학교공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72
[그림 III-16]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느끼는지 여부	74
[그림 III-17]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도	76
[그림 III-18]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76
[그림 III-19]	학교 급식 여부 및 안전도	78
[그림 III-20]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80
[그림 III-21]	우리나라의 각 분야 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	81
[그림 III-22]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 경험	84
[그림 III-23]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험 실태	86
[그림 III-24]	체벌 받은 경험	89
[그림 III-25]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2
[그림 III-26]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해 본 경험	95
[그림 III-27]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96
[그림 III-28]	청소년이라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	98
[그림 III-29]	일상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 경험	100

[그림 III-30]	친구 교제시 주요 고려 요소	106
[그림 III-31]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또래 청소년에 대한 생각	108
[그림 III-32]	최근 1년간의 일탈 행동 경험	110
[그림 III-33]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	114
[그림 III-34]	고민/걱정거리 상담 상대	116
[그림 III-35]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선택	119
[그림 III-36]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121
[그림 III-37]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122
[그림 III-38]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123
[그림 III-39]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	124
[그림 III-40]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중요하다’	126
[그림 III-41]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	127
[그림 III-42]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129
[그림 III-43]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131
[그림 III-44]	자기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	133
[그림 III-45]	1일 평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시간	136
[그림 III-46]	여가시간 만족도	138
[그림 III-47]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139
[그림 III-48]	청소년 행복도	140
[그림 III-49]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	142
[그림 III-50]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 여부	143
[그림 III-51]	동아리 활동 여부, 동아리의 종류	145
[그림 III-52]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빈도	146
[그림 III-53]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에 도움 여부	147
[그림 III-54]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적성/특기 개발에 도움 여부	148
[그림 III-55]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직업/진로 선택에 도움 여부	149
[그림 III-56]	집안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 존중 여부	151
[그림 III-57]	가정내 의사결정자	152
[그림 III-58]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54
[그림 III-59]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55
[그림 III-60]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 실태	157
[그림 III-61]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160
[그림 III-62]	교사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부	162
[그림 III-63]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해명 기회 제공 여부	163

[그림 III-64]	학교의 동아리 활동 인정 여부	165
[그림 III-65]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에서의 허용 여부	166
[그림 III-66]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여부	168
[그림 III-67]	학생회장 선출시 조건없이 자유로운 입후보 여부	169
[그림 III-68]	학교 규칙, 규정 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170
[그림 III-69]	학교 규율, 규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172
[그림 IV-1]	학교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생각	186
[그림 IV-2]	복장, 두발로 인한 평소 자녀와의 의견대립 여부	187
[그림 IV-3]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189
[그림 IV-4]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190
[그림 IV-5]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192
[그림 IV-6]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193
[그림 IV-7]	자녀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	195
[그림 IV-8]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	196
[그림 IV-9]	자녀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정도	197
[그림 IV-10]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99
[그림 IV-11]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의견	200
[그림 IV-12]	집안의 대소사에 자녀의 의견 존중 여부	201
[그림 IV-13]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203
[그림 IV-14]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204
[그림 IV-15]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205
[그림 IV-1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206
[그림 IV-17]	우리나라의 국민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생각	208
[그림 IV-18]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생각	209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인권에 대한 논의는 유럽, 미국 등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UN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1970, 8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민간정부의 출범,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소년 인권 의식 확산, 경제성장에 따른 제반 사회여건의 향상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념비적인 업적으로써, 청소년을 삶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1991년 협약 비준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은 “규정이 필요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현해야 할 조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길은배 외 2001).

현재 청소년분야에서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영역의 중장기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삶과 사회의 주체이자 자율적 권리향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이루어냈다.

또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청소년동아리와 청소년단체 및 인권관련 기관 등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등 국내의 청소년 인권신장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자주 침해

받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지키고 향유해 나가야 한다는 권리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시민사회의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는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3년 1월,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담은 제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한국의 입시교육과 경쟁적 교육시스템 개선 등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과제를 권고한 바 있고, 현재 이의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길은배 외, 2005: 4).

청소년인권 관련 선행 조사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권의 당위성·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재연 외, 1997; 성정숙, 1998).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권리의 필요성과 보장수준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민주화로 청소년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보장 수준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은 사생활의 자유, 교사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표현의 자유, 참여권, 문화생활권 그리고 적법절차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숙, 1998: 86-86)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2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한 UN은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채택 10주년을 맞은 제60차 총회에서 15개 우선영역의 청소년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12월 19일까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5년 10월 제60차 UN총회에서 지속적인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PAY) 이행과 청소년정책 평가를 권고받는 등,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환경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실태조사가 중

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지표 및 조사도구의 개발도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부분적인 영역별 아동인권 모니터링은 시도된 바 있으나, 청소년 연령대를 포괄하는 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는 없었다(김영지·김세진, 2003; 최창욱 외, 2006).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국가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OECD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청소년 인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2006년부터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청소년 인권·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총 152개에 달하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을 개발하였다. 사업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표항목들 중에서 공식 행정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지표 항목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본 보고서(“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와 청소년인권의 세부영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별책)의 두 권으로 발간하였다. 사업 최종년도인 2008년에는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는 국제비교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이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청소년 인권·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총 152개에 달하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표항목들 중에서 정성지표¹⁾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최종년도인 2008년에는 모든 지표항목들에 대한 조사문항 개발을 완료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는 국제비교조사²⁾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I -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추진실적 및 계획(2006~2008)

연도	연구의 내용
2006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개발
2007년	정성지표에 대한 검토·선별작업
	선정된 정성지표의 조사문항 개발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실태조사
2008년	청소년 인권관련 정책제언
	청소년 대상 국제비교조사 실시
	정량지표에 대한 검토·선별작업 및 각국 통계자료 조사

- 1) 본 연구에서 “정성지표”는 양적인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를, “정량지표”는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각각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정량지표는 기존의 행정통계자료 등을 가공하여 산출할 수 있는 반면, 정성지표의 측정은 조작적 정의에 기초한 조사문항의 개발과 척도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는 Campbell and Converse의 “객관적 지표 - 주관적 지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에 관한 논의는 김진호 외(2004: 41)를 참조할 것.
- 2) 152개에 달하는 모든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표의 중요도, 측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영역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수행된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지표체계(안)의 개별지표항목들 중에서 정성 지표를 대상으로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국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조사 실용성(practicability) 등을 기준으로 선별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조사에서 사용할 조사문항과 응답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확정된 조사문항을 토대로 조사표를 구성한 뒤 전국의 남녀 중·고등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인권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로는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인권의 심층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조사, 인권문제와 관련한 부모-자녀세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학부모 대상의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문헌자료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인권지표의 활용, 인권 인프라, 정책 추진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인권보호 시스템 등 5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 수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국내외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인권 관련 UN 등 국제기구의 조약·선언서·권고사항 등 기초문서와, 국내외 전문기관 및 연구자들이 개발한 인권지표(체계) 및 청소년인권에 관한 학술적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표 개발 및 정책제언을 위한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지표항목의 보완 및 선별작업을 위하여 인권관련 학계 인사, 교사, 공무원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에 개발된 각 지표항목들에 대하여 그 타당도(validity)와 중요도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집계된 응답결과는 설문조사 문항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약 6천8백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연구1차년도(2006년)에 개발된 지표항목 중 정성지표를 선별하여 문항화한 것으로서, 청소년인권의 네 가지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걸쳐 총 96개의 항목(배경변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넷째,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부모/교사의 체벌,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전문 훈련을 받은 조사원과 조사대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40일이 소요되었다.

다섯째, 청소년인권 문제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파악을 위하여 중·고등 학생을 자녀로 둔 전국의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은 자녀의 복장/두발 문제, 체벌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 6개영역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문항들을 학부모에 맞게 변형하여 응답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사회조사 전문 업체의 전화상담원을 활용하여, 2007년 7월 중에 약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Ⅱ.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국제기준

1.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인권의 국제기준
3.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기구 권고사항
4. 청소년인권지표 조사항목

II.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국제기준

1.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유형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류 구성원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 라고 규정한다. 인류의 정치 사회체계의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장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은 인권이라는 개념과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주체나 적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노예는 인권의 주체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성이나 특정 계층의 구성원은 인권의 주체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은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그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한 예외로 남겨진 존재가 아동과 청소년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와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김영지, 2004)라는 관점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서의 배려나 관심이 클 뿐 권리 행사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낮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평등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을 단순히 연령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은 청소년 인권문제는 제도적 차별과 평등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그 지적/정의적 능력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출생연도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 그 자체가 청소년 인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은 단순히 평등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지만 그 발달시기에 내재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과 보장이 필요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 인식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개개인의 발달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구성하는 출생동시집단의 관점에서도 특수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에서든지 청소년은 그 사회의 미래를 구성하는 차세대(next generation)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처우수준을 보면 단순히 그들에 대한 배려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과 그 사회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다(류은숙, 2003; 정준교, 2002 재인용)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미래를 담당할 세대에 대한 인권 보장은 바로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얼마나 성숙한 개인들에 의해 이끌어져 나갈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더 발전된 정치 사회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연구자들은 청소년인권은 사회투자의 일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정준교, 2002).

이렇듯, 청소년 인권은 한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성장과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특별한 권리이다. 다행히, 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제정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 ‘청소년헌장’의 제정 이후 인권일반으로서가 아니라 고유한 영역으로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배경내(1998)는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보편적 인권과 청소년의 고유한 인권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는 신

체·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특수한 상황아래 놓인 청소년의 권리가 포함된다. 즉, 생존·발달·참여권적 요소들이 보편적 인권에 해당되고, 보호권적 요소들이 고유한 권리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박영균·최창욱, 2006 재인용). 또한 정승원(2000)은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의 자율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정도에 따라 보호주의적 입장, 해방론적 입장, 두 입장이 절충된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이 있다고 보았다. 보호주의적 입장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방론적 입장은 청소년을 자율적 권리 행사능력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은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박영균·최창욱, 2006 재인용).

요약하면 청소년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요청되어지는 특수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청소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UN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인권 하위영역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에 덧붙여 청소년인권 인프라 등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박영균·최창욱, 2006,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인권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1989년 제정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약칭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모든 인권의 토대로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를 두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제 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는데 여기서 이 협약 가입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덧붙여 24조에 규정한 4가지 일반 원칙에도 생존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생존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부규칙까지 정의함으로써 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³⁾. 그 세부 원칙이란 ①영유아사망율을 감소시킬 것, ②모든 아동들에게 건강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의료지원을 보장할 것, ③영양실조 및 질병,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과 깨끗한 식수,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요소와 싸울 것, ④산모의 산전 산후 건강을 관리할 것, ⑤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과 보건지식 수준을 향상시킬 것, ⑥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사실 일반적인 인권선언이나 조약에는 생존권(the right to survival)이란 개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삶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life)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모든 권리의 기본이자 권리의 주체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권은 “일반 국제법상의 절대규범” 이른바 *jus cogens*의 하나로 주장된다 (Detrick, 1999: 125; 이용교, 2006 재인용).

아동 청소년의 고유한 권리로서 생존권이 제기된 이유는 아동권리협약 당시 너무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입각한 것이었다(Hodgson, 1994, 이용교, 2006 재인용). 생

3) 아동권리협약 2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 관련 세부원칙은 아래와 같다.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존권은 또한 생명권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동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존”은 성장 모니터링(**monitoring**), 질병 통제, 설사로 인한 탈수증 완화(**oral rehydration**), 모유수유(**breastfeeding**), 예방접종, 식량 및 여성 문맹 등을 포함한다(이용교, 2006). 이에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전 연구(박영균·최창욱, 2006)에서는 청소년 생존권을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 요약한 바 있다.

2) 청소년 보호권의 개념

보호권은 청소년들 고유의 취약성, 그리고 청소년 생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다.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우선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성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관한 권리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따라서 해당 연령대에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참여하는 ‘지위비행’의 주체가 되거나, 청소년의 주변인적 특성을 이용하는 노동력과 성적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성을 가진다. 산업혁명 초기에 아동을 공장직공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급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매우 적게 지급한 사례가 있듯, 이러한 청소년 착취의 역사는 깊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청소년 특유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유해환경이 바로 그것으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부추기는 환경이나 성/노동 착취를 유발하는 조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완전한 성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권(혹은 학습권)을 방해하는 요소들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해 청소년이 입게 되는 위기의 결과가 보호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에 대한 위협요인들로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흑사, 차별대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 성적 상품이 된 청소년, 거리의 청소년, 재난을 당한 청소년(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 등이 발달적 위기에 해당된다.

황옥경(2006)은 보호권의 세부영역을 4개로 나누었는데, ①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② 차별로부터의 보호 ③ 위기 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특히 우리나라는 네 번째 영역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에는 많은 정책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거나 매우 피상적인 노력만이 투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행연구(박영균·최창욱, 2006)에서는 청소년 보호권을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보호권을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차별로부터의 보호,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로 분류했는데, 각종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에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과 경제적 착취의 내용이 포함되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위기와 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에는 범죄, 가출, 이주민 가정 청소년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개념이 담겨있다.

3) 청소년 발달권의 개념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발달을 위한 학습과정의 중요성은 UN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제시한 1989년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사회가 구성원이 삶의 초기단계에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요구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중섭, 2006).

1986년에는 UN에 의해 발달에 관한 권리가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서 발달권은 모든 인간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

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달에 참여하고 공헌하며 향유하기 위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Sengupta, 2000)라고 규정한 바 있다.⁴⁾ 다시 말해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발전에 대한 참여와 그것으로부터 결과하는 공정한 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에 기초하여 모든 개인과 완전한 인간의 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발달권의 정의에 따르면, 발전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대한 참여와 기여 그리고 향유에 대한 권리의 실현이 필수적이다.⁵⁾

4) UN에 의해 1986년 채택된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he Developemt:DRD)에 대한 해석을 일부는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일부는 발달을 위한 권리선언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전과 발달은 그 의미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의 제1조 2항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내용에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발달보다는 경제적 발전의 측면에서 이익에 대한 권리와 재분배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강조된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에서의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every human person)과 모든 인민(all Peoples)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을 위한 권리선언의 내용에서 인간의 발달권을 개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발전권 선언은 UN에 의해 압도적인 다수로 1986년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인권을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있고 난 이후 거의 38년이 지난 이후에 채택된 것이다(이중섭, 2006).

5)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발전권 선언은 이전의 전통적 인권개념과 구분되는 여러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권의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으로 규정되어 처음으로 ‘복수화’ 됐다는 점이다. 이권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집단, 집단으로서의 인민)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의어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정치적’인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인간을 발전의 참여자인 동시에 수혜자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발전의 대상이나 수단이 아닌 중심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실현의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참여’의 필수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과 인민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넷째,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발전권의 저해요인에 대해 선언은 ‘아파트헤이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주권과 국가적 통일·영토보존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을 명확히 짚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 군비축소를 통해 확보된 자원이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발전이라 함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

발달권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점에는 일정정도의 합의가 가능하지만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어떤 세부적인 권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과 관련된 조항 역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어(Myers)에 따르면, 아동권리 협약 27조 1항은 발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규정되었고, 제2항에서는 발달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물질적 원조와 프로그램의 지원, 특히 영양, 의복, 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명료하게 축소되었다(이중섭, 2006).⁶⁾

발달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해 보면, 먼저 프리만(Freeman, 2000)은 아동권리협약을 크게 다섯 가지 권리로 분류하고 그중 발달과 복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에 합리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과 기본서비스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교육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용교(2004)도 발달권을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을 제시하고 있고, 김경준 외(2005)에도 발달권의 내용에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여가와 문화에 관한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최창욱 등의 2006년 연구에서는 이에 청소년 발달권을 포괄적으로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은 구체적으로 발달권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류은숙, 2003; 이중섭, 2006 재인용).

6) 특히, 마이어(Myers, 1995: 4)는 아동기 초기의 보호와 발달의 시각에서 아동권리협약이 건강한 아동발달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동기초기의 보호와 발달의 시각에서 보자면 협약은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키는데 제공되어야 할 심리사회적 조건이나 교육적 조건들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중섭, 2006).

4)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청소년 참여권은 여기서 언급된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인권의 영역이다. 행위의 주체가 주로 양육자나 국가기관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는 달리 참여권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행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UN아동권리협약이 포함하고 있는 아동의 4가지 권리영역(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 참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참여라고 본다. 즉, 청소년 참여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심리적 개입(*involvement*)이나 동조(*sympathy*)만으로는 참여라고 볼 수 없다(김정주 외, 1999: 13; 강현아 재인용, 2006).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 중의 하나가 투표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참여권에는 현재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온갖 UCC(*User Created Contents*)를 통해 창발적인 인터넷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 세상에 참여하려는 욕구는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임파워먼트(*empowerment*)도 청소년의 참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종종 쓰인다. 임파워먼트는 소외되고 힘이 미약한 사람의 능력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내부의 힘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청소년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다(Saleeby, 1992; 강현아, 2006 재인용).

아동의 참여권은 특히 시민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은 지리적 사회적 지역의 명확한 구분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 자유, 평등, 거주권, 참정권 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나 국방 등의 책임도 제도적, 법적으로 규정한다. 즉, 시민권은 국가와의 관계 내에서 정의되는 것이다(최원기 외, 2003). 이것

은 18세기의 철학자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루소의 ‘일반의지’에서도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을 갖는 시민은 국가시민(Staatsbürgerschaft), 혹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시민(citoye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배동인, 1992; 강현아 2006 재인용).

이에 선행연구(박영균·최창욱, 2006)에서는 청소년 참여권을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정리했다.

2. 청소년인권의 국제기준

1)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청소년 인권 기준

청소년과 아동은 분명히 그 발달단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는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9~24세 중에서 인권상황이 취약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특히 사회통념상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거의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등 네 가지 범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인권지표를 구성할 때에도 이 틀을 참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길은배 외, 2001; 박영균·최창욱, 2006 재인용). 앞서 설명했듯,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

7) 발달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와 아동기의 경계선을 사춘기, 즉 2차 성징의 여부로 구분한다. 즉, 2차 성징이 발현되어 신체적으로 성인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개인은 아동기에서 벗어난다. 반면에 청소년기의 종료시점은 성인기의 시작 시점으로 정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사용되고 있다.

택을 받을 권리를, 보호권은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포함된다. 발달권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담고 있으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54개 조항을 네 가지 범주의 권리로 영역화하면 <표 II-1>과 같다. 일부 조항은 권리유형에서 중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호권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생존권 등의 순이다(박영균·최창욱, 2006).

<표 II-1> 권리유형별 UN아동권리협약 해당조항

권리유형	해당조항
생존권	생명의 존중, 생존과 발달을 확보할 권리(제6조),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보호권	차별과 관련된 협약(제2조 비차별, 제7조 성명과 국적, 제23조 장애아동, 제30조 원주민 아동), 착취와 학대에 관련된 협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11조 불법 해외 이송과 미귀환, 제16조 사생활, 제19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 제21조 입양, 제25조 정기적인 심사, 제32조 아동노동자, 제33조 약물·학대, 제34조 성적 착취, 제35조 아동의 매매·유괴, 제36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제37조 고문과 자유의 박탈, 제39조 재활혜택, 제40조 미성년자법),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에 관련된 협약(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제22조 난민아동, 제25조 정기적인 심사, 제38조 전쟁, 제39조 재활혜택)
발달권	아동의 의견(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결사의 자유(제15조), 정보와 자료(제17조), 교육(제28조와 제29조), 놀이와 오락활동(제31조), 문화활동의 참여(제31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개인의 발달(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정체성(제6조, 제7조), 건강과 신체적 발달(제24조), 표현의 권리(제12조, 제13조), 가족(제9조, 제10조, 제11조)
참여권	적당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17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이에 대한 국가의 원조(제18조),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42조)

자료 : 길은배 외(2001), p.24 (박영균·최창욱, 2006에서 재인용)

2) 그 외 국제기관 및 국가의 청소년 인권 기준

국외의 청소년보호권 관련 지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설정한 4가지 아동권리영역 이행수준 측정을 위한 하위범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당사국들 자국의 상황에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지표이기 때문에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연령상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개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동지표가 청소년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최창욱 등(2006) 및 김영지(2004)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제기관 및 선진국의 청소년 인권기준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UNICEF의 『세계아동상황 지표』

UNICEF에 의해 매년 출간되는 “세계아동현황보고서”는 세계아동들의 생활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UNICEF는 질병에 걸려 고통 받게 될 아동, 어린 나이에 죽어갈 아동들이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시며,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초등교육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새천년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유엔회원국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UNICEF의 “2006 세계아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에서는 영양, 보건, HIV/AIDS, 교육, 인구지표, 경제지표, 여성, 아동보호 등 9개 부문에 걸쳐 세계 각 국가별 관련지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권과 관련하여 5-14세 아동들의 노동착취를 개별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2) UN이 제시한 국가행동계획의 4가지 영역 21개 지표

2002년 5월 세계 189개국, 350여명의 아동대표와 61명의 국가원수, 그리고 1200여명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UN아동특별총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UN아동특별총회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장·단기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유엔아동특별총회는 세계 각국이 향후 10년간 각국이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자는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결의문 채택 이후 1년 이내, 즉 2003년 말까지 각국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가행동계획에는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아동의 보호·육성 및 개발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인식하에 가정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인신매매 피해아동, 소외아동, 부모나 여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이 아동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빈곤퇴치 전략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과, 여아에 대한 보호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후세대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각국은 보건, 교육, 학대, 착취 및 폭력 근절, HIV/AIDS 퇴치의 4가지 목표에 따라 설정된 21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3) 영국 교육부의 『아동·청소년 발달 기준(Every Child Matters)』

영국 정부는 1950년에 채택되고 1953년부터 발효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1998년부터 가입했고, 이후 이 협약에 맞추어 인권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이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동권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에도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문금지조항, 가족과 개인생활을 존중할 권리,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유럽인권협약과 동일하다. 게다가 영국정부는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부처의 정책결정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영지, 2004: 40).

영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아동복지 사업계획안을 마련함으로써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

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하지만 아동권리의 모니터링 문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며 보건부 내에 아동권리개발기구(Children's Rights Development Unit)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아동권리감독관(Children's Rights Director)이 관장하던 역할을 2000년에 제정한 National Care Standard Act를 통해 확장해서 아동권리감독관 이외에 옴부즈만 제도와 이를 위한 아동권리위원(Children's Rights Commissioner)을 둔다.

최근 영국 정부는 2003년 9월 아동서비스의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영국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재구조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영국정부의 아동권리 보장원칙은 인종, 종교, 문화, 언어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무차별의 원칙, 모든 재판 판결과정에서 아동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는 원칙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기본의료보호서비스의 무상제공제도를 기반으로 한 생명권·생존권·발달권 보장원칙,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을 따른다. 영국 정부는 2004년도 아동법에 의거하여 아동서비스 목표를 건강하게 발달하기, 안전한 생활 유지하기, 즐거우면서 성취하기, 긍정적 기여하기, 경제적인 안정을 규정하였다. 영국정부는 상태의 개념으로 아동청소년발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영국의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

Child 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가족센터가 공동으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여러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모니터링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UN협약의 각 조항을 충족할 수 있는 목록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황옥경, 2002; <http://www.childwatch.org.net>).

이 지표에는 아동에 대한 개념, 일반원칙, 교육, 레저 및 문화, 가족환경과 대안양육, 특별보호, 시민권과 자유, 건강, 영양 및 복지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토대로 민간기구, 국제민간기구들, 그리고 학계

가 참여하는 가운데 5개국(니카라과, 세네갈,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하였고,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1997년 7월부터 첫 번째 단계의 연구결과의 다른 나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황옥경, 2002).

(5)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정책

프랑스에서는 정부, 국회, 아동옴부즈퍼슨(Institution of an Ombudsperson for Children), 국가인권자문위원회(Nat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on Human Rights), 기타 민간단체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 정부는 1989년부터 고용 및 통합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Solidarity)에서 아동의 취업과 보호에 관련된 권리를 통합 관리한다. 그 외에 2000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기관에서는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개별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해결하고 아동에게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집단이나 제도를 찾아내고 기존 법이나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30명의 정치, 과학, 의료, 법, 단체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4-17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두고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 아동옴부즈퍼슨이 직접 국가윤리자문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간단체가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2년에 결성된 프랑스 아동권리단체협의회(French Council of Associations for the Rights of Children)는 1998년부터 건강, 교육, 보호, 노동참여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는 다양한 부처와 기구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총괄하는 조정기구는 없다(김영지, 2004: 100).

(6) 독일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독일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실천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타조치는 청소년 장관회의(Conference of Youth Minister)의 책임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동

의 이익에 관한 기구로는 청소년가족부, 아동위원회, 국가연맹 등이 있다. 독일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측정항목은 부모 및 아동관련 법의 개정, 아동의 보육학교 배치에 관한 법적권리 부여, 가족 수당 인상, 노동법에 있어서의 청소년 건강 및 안전관련 내용 개정,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의 기본법 포함, 아동학대, 아동매춘, 섹스관광 등의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공표, 청년실직에 대한 긴급대책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기회부여사업 등이다.

(7) 일본의 신 엔젤 플랜

일본 정부는 현재의 핵가족화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200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신 엔젤 플랜(New Angel Plan)’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보육 서비스등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화, 직장 과 양육을 위해 고용환경을 정비하는 등 핵가족화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원의 저연령 아동의 입원 확대와 연장보육, 휴일보육의 추진, 방과 후 아동반의 추진 등 보육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에 집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문적 기관은 뚜렷이 없으며 법무성이 설치한 아동인권전문위원회제도는 인권옹호위원의 겸임직으로 한계가 있다.

그 외 청소년관련 인권보장은 뚜렷이 만들어지거나 시행되는 것이 따로 없으며 대부분은 교육법의 일부로 규정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학교 교육법 11조는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체벌이 일본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교육기본법이 요청하는 교육의 비폭력성에도 반한다는 결정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공공연하게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된다.

(8) 호주의 『청소년과 지역사회 관련지표 - 멜버른시 “지금 여기서”(제2차 청소년 대책 초안- Here & Now, Draft Youth Strategy 2000-2003)』

이 지표는 호주의 멜버른 시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시의회의 역할과 방법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문제 중심의 지표라기보다는 청소년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가치인정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표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격려하고, 참여를 늘려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강조하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지표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인구(총 인구, 연령대별 인구, 학력별 인구, 출신지별 인구, 주거상태, 직업별 인구, 실업문제 등), 청소년방문자(총 방문자수, 주중 방문자, 주말 방문자, 방문목적, 교통수단 등), 무주택 가출 청소년 및 소외계층(청소년 가출자 및 무주택자 수, 가출 원인, 카이로스 플레이스 프로젝트 등 무주택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 등), 학생(교육여건, 직업교육 등), 마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 미국의 『청소년 지표(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미국의 청소년지표는 미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 의해 1988년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다섯 번째 청소년지표가 출간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지표는 14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건, 학교와 학교 외 활동, 경제적 요소, 가족구조 등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0) 미국의 『아동복지 지표』

1997년부터 미연방 아동가족 통계청(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cs: Forum)은 어린이와 가족의 복지지표를 America's Children in Brief :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을 통해 알리고 있다. Forum은 일 년에 한 번씩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http://childstats.gov>) 하고 있으며, 5개 지표의 틀 안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당시 중요한 상세지표를 선정하여 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3) 국제기관과 각국의 청소년 인권 기준 요약

비교적 명문화된 국제기구와 일부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⁸⁾.

우선 UNICEF의 세계아동상황지표는 기본지표와 기본지수 향상률, 영양, 보건, 교육, 인구, 경제, 여성 등의 7개 하위영역과 47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세계아동상황지표는 청소년의 성장이나 발달에 중심을 두어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주로 영양이나 보건, 의료에 집중되어 있고 참여나 보호, 발달에 관련된 다른 영역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미국 교육부의 청소년지표는 가족과 직장, 교육과 건강 그리고 행동이나 태도 등 청소년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표는 인구, 학교와 관련된 특징, 고용과 관련된 특징, 학교와 일 이외의 활동, 보건 등의 5가지의 범주와 5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생존권과 발달권의 지표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며, 보호권과 참여권은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미국의 교육통계센터(NCES)가 제시한 청소년 지표는 앞선 교육부에서 분류한 통계와는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교육통계센터는 청소년 지표의 범주를 크게 가정, 학교, 보건, 시민권과 가치, 미래 등 5가지로 나누

8) 이 요약자료는 최창욱 등(2006)의 전년도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고 개별 범주 내에 관련 지표(53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 역시 생존권과 발달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복지지표는 총 10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범주에 2가지에서 10가지의 지표씩 총 33개의 개별지표를 가지고 있다. 10가지 범주는 건강, 경제적 안정, 교육, 사법, 사회적 유대감, 보호와지지, 안전, 시민권, 문화와 정체성, 환경 등이다. 특히, 이 지표는 다양한 인권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지표들은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개별지표들이 뉴질랜드의 특수한 상황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원주민언어를 할 수 있는 마오리원주민 청소년 수 등), 청소년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제기구와 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안은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이나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설정된 것이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별과 변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창욱 등(2006)은 각국의 여러 가지 인권기준을 통합하여 새로운 포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기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일부 연구자들의 인권지표안도 포괄해서 검토했는데 예를 들어, Jones(2003)는 캐나다의 6세~9세 그리고 10세~13세 청소년에 대한 발달과 종교에 대한 몰입(헌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캐나다의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1996-97)의 통계에서 산출된 것으로서, 학업성취와 전망, 교외학습과 교회활동, 부모와 부모의 지지에 의해 평가된 인성발달과 같은 발달의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발달권 측면의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Waters 외(2002)의 아동건강, 발달, 복지지표는 다른 지표들보다는 매우 세부적으로 개별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지표의 범주로 건강, 교육, 환경, 서비스 전달을 구분하고 각 범주에 따른 관심영역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표는 다른 범주들보다 아동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강조하여 이 범주를 평가할 수 있는 개별지표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 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의 일부분들에 대한 시사를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의 하위 영역들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박영균·최창욱, 2006).

<표II-2> 외국의 청소년인권 관련 지표

지 표 명	영역 (지표수)	하위영역	근거
UNICEF의 세계아동상황 지표	7영역 (47지표)	기본지표와 기본지수 향상률, 영양, 보건, 교육, 인구, 경제, 여성	
미국 교육부의 청소년지표	5영역 (59지표)	인구, 학교와 관련된 특성, 고용과 관련된 특성, 학교와 일 이외의 활동, 보건	2005
미국 교육통계센터(NCES)의 청소년지표	5영역 (53지표)	가정, 학교, 보건, 시민권과 가치, 미래	1996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아동청소년 복지지표	10영역 (33지표)	건강, 경제적 안정, 교육, 사법, 사회적 유대감, 보호와 지지, 안전, 시민권, 문화와 정체성, 환경	
캐나다 청소년개발 지표	4영역 (46지표)	학업성취와 전망, 부모가 평가하는 인성 발달, 과외학습과 활동, 부모의 지지	Jones (2003)
Waters 등의 아동건강, 발달, 복지지표	4영역 20소영역 (144지표)	건강: 부모의 건강과 복지, 흡연, 알코올, 기타약물, 음식 및 영양, 놀이와 여가, 아동복지 교육과 과업: 교육과 학습, 독해와 문해, 소득과 생활조건, 고용요인과 부모의 건강·복지 우호적 환경: 생태체계적 환경과 안전성을 포함한 자연환경, 범죄와 안전, 교통, 놀이와 여가시설, 주거, 일반, 공식적 사회연대, 비공식적 사회연대, 양육 서비스전달: 건강증진·예방·조기발견, 주보호	2002

출처: 박영균·최창욱, 2006, p.55

3. 청소년인권 관련 국제기구 권고사항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00년 5월 1일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2003년 1월 15일 제 838차 및 제 839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2003년 1월 31일 제 862차 회의에서 권고의견을 채택하였다. 아래 표는 선행연구(박영균·최창욱, 2006)에서 분류한 각 영역별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생존권에 관련되어서는 2000년 당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전반적인 보건인프라의 상황이 주로 지적되었다. 당시 전체 예산대비 보건예산의 비율이 1% 미만이었다는 문제는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국민 전체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외에 약물에 관련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최근까지도 뚜렷이 부각되는 약물문제가 없다는 사회적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약물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기타 다른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보호권에 대해서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아동학대와 방임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과 법률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청소년 성착취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충분한 법적 보호절차 없이 범법 청소년들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달권에 대해서는 장애,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발달권 제한을 철폐하라는 지적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은 것으로 이 권고안을 반영하는 과정에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이 발달권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II -3>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요약(2003.1)

	권 고 내 용
생존권	<p>보건 정책 - 보건예산 비율이 1% 미만이며 90%의 보건의료기관이 민영이라는 점, 모유수유율의 하락을 지적. 보건예산을 증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생후 6개월간 모유단독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모유수유에 관한 국가규범 채택 및 수유여성의 고용상 불이익 근절을 위한 조치 권고</p> <p>약물 대책 - 흡연, 필로폰 등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증가에 대응하여 HIV/AIDS, 성병, 10대의 흡연과 약물사용에 관한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권고</p>
보호권	<p>아동학대와 방임 방지와 보호에 대한 정책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 개혁등의 조치 요구</p> <p>체벌에 대한 규정 -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 체벌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개별 학교당국에게 체벌관련 결정을 위임한 교육부의 규정을 비판.</p> <p>청소년 성착취관련 -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심. 그러나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과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 표명.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를 포함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제안.</p> <p>범법청소년의 보호 -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되어야하며, 법 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요구. 청소년의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고,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철폐하도록 법률개정 권고</p>
발달권	<p>장애,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발달권 제한 철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어린이·교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장애어린이의 숫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 외국인 어린이의 교육 수요, 교육과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평가 - 학교, 수련시설 등 공공건물과 장소에 대한 장애, 외국인 어린이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유치원·초중등·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프로그램 확대

	권 고 내 용
참여권	<p>아동복지법의 개정 - 어린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도록</p> <p>징계절차의 개정 -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당사자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절차개선 권고</p> <p>교육과 정보제공 -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어린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교육하도록 권고</p> <p>법령과 규정 개정 -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초중등학교 운영규칙은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 대상.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규칙을 개정 권고</p> <p>정기적 모니터링 - 어린이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보고를 시행하도록 권고</p> <p>정보접근권 증진 -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화시키고,</p> <p>청소년집회와 결사 권한 증진 - 청소년들의 모임과 그들의 활동을 신장시키는 재정적이고 교육적이며,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모임을 격려하고 증진.</p> <p>정책 참여가능성 증진 - 청소년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데 청년들의 기여를 고려함.</p> <p>교류 활동 증진 - 증가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과 청소년 단체 사이의 교류를 장려, 총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청소년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등 국제무대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할 것.</p>
그외	<p>차별금지조항의 부족 - 헌법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민족, 장애, 출생 등에 기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우려. 협약 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 특히 한부모가정자녀, 혼외출생자녀, 장애인어린이, 이주자 자녀, 여자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교육, 문제인식 캠페인 등 행동 지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p> <p>* 차기 보고서에 2001년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노력 중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조치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p>

출처: 박영균·최창욱. 2006.

참여권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교외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운영규칙이 청소년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가장 뚜렷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다른 권고사항으로는 청소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신장시키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조하는 권고사항과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가능성을 증진하라는 권고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청소년 참여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외에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내 징계절차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과, 청소년들의 정보접근권을 증진시키라는 내용도 중요한 항목이다.

4. 청소년인권지표 조사항목

본 연구의 1차년도(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은 대분류(4개)-관심영역(20개)-세부관심영역(56개)의 분류체계 아래 총 152개의 개별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지표의 세부내용은 부록 3. 참조).

<표 II-4> 2006년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개요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항목수	지표 구분	
				정량	정성
I. 생존권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	1	0
		1-1-2. 생명	2	2	0
		1-1-3. 사망	1	1	0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	1	0
		1-2-2. 빈곤	2	2	0
		1-2-3. 질병	3	3	0
		1-2-4. 영양	2	1	1
		1-2-5. 신체충실도	2	2	0
		1-2-6. 건강	6	1	5
		1-2-7. 치료	3	3	0
		1-2-8. 안전	3	0	3
		1-2-9. 사고	4	4	0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항목수	지표 구분		
				정량	정성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	1	0	
		1-3-2. 가족	3	3	0	
		1-3-3. 사회보장	2	1	1	
II. 보호권	2-1. 학대 및 착취로부터 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	1	1	
		2-1-2. 성 매매 및 성적착취	3	3	0	
		2-1-3. 경제적 착취	5	4	1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1	0	1	
		2-2-2. 민족차별	3	1	2	
		2-2-3. 지역차별	1	0	1	
		2-2-4. 연령차별	1	0	1	
		2-2-5. 고용차별	1	1	0	
		2-2-6. 장애차별	3	2	1	
	2-3. 위기·응급 상황으로부 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	2	0	
		2-3-2. 범죄로부터의 보호	6	5	1	
		2-3-3. 가출로부터의 보호	3	3	0	
	2-4.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 터의 보호	2-4-0. 청소년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3	3	0	
	III. 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4	4	0
			3-1-2. 인지능력	4	0	4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5	1	4	
		3-2-2. 정서적 안정	3	0	3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5	0	5	
		3-3-2. 사회성 발달정도	3	0	3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 기회	3	1	2	
		3-4-2. 직업능력	2	0	2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2	0	2	
		3-5-2. 신체적 능력	4	4	0	
4-1 자기결정권		4-1-1. 종교 결정권	3	1	2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3	0	3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2	0	2		
	4-1-4.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1	0	1		

대분류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항목수	지표 구분		
				정량	정성	
IV. 참여권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2	1	1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표현	3	1	2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2	1	1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2	1	1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2	2	0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3	2	1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	1	3	
		4-5-2. 참정권	4	1	3	
V. 인권 인프라	5-1. 청소년인구	5-1-1. 청소년 총인구	1	1	0	
		5-1-2. 특수청소년 인구	4	4	0	
	5-2. 법·제도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 법의 정비 및 기능	3	0	3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	4	0	4	
	5-3 비정부조직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1	0	1	
		5-3-2.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	3	0	3	
	계			152	77	75

이중에서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지표가 77개, 주관적 태도·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인 정성지표가 75개로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중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활용가능한 자료원과 구체적인 산출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포괄적 정의 이외에 실제 측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문항과 척도를 제시하지 않고 2차년도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남겨 두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2006년에 개발된 지표항목 중에서 정성지표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선별작업을 통해 내년(사업 3차년도)에 시행될 국제비교 설문조사의 조사문항과 척도를 확정하는 것을 1차적인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조사문항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인권지표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성지표에 대한 선별작업 및 조사문항과 척도의 개발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1) 전문가 의견조사

먼저,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항목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⁹⁾. 총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6년에 개발된 지표항목들에 대하여, 각 항목이 ① 청소년인권의 현상을 얼마나 대표성 있게 표현하는지, 또한 ② 청소년인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단계별 5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표항목별 타당도(validity)와 중요도(importance)를 파악하여 최종 조사항목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조사결과의 세부내용은 “부록 2” 참조).

2) 지표항목 선별작업

다음으로 개별 지표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한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선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표항목의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을 검토하였다. 지표의 내용이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더라도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와 척도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조사를 통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9) 조사대상은 구체적으로 청소년학과 교수 8명, 인권관련 연구자 4명, 중·고등학교 교사 4명, 청소년인권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19명이었으며, 2006년 6월 한 달 동안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10)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정성지표 항목(예시) : 청소년인권 관련 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5-2-1-1),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5-2-1-2),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5-2-1-3),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5-2-2-1),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5-2-2-2),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5-2-2-4), 비정부조직의 구성현황(5-3-1-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5-3-2-2),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5-3-2-3) 등

둘째, 각 지표항목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연구 3차년도(2008년)에 한국 청소년의 인권현황을 주요 선진국 청소년들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불가능한 우리사회의 독특한 인권현상, 또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산출 불가능한 지표항목들은 최종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¹¹⁾.

셋째, 조사문항으로서의 실용성(practicability) 내지는 경제성이다. 청소년 인권 현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지표들을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 차례의 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측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수많은 하위 조사항목들의 조합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지표항목들은 최종 조사표에서 제외하였다¹²⁾.

이상의 기준에 의한 지표항목의 선별작업은 2006년에 개발된 정성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량지표의 경우에도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지표항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선별작업은 제 3차년도 연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¹³⁾.

-
- 11) 국제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정성지표 항목(예시)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학교 비율(4-5-2-3),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1-3-3-2), 청소년문제해결전화 접수건수 대비 처리율(2-3-2-4), 청소년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4-5-1-4) 등
 - 12) 실용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정성지표 항목(예시) : 창의성 지수(3-1-2-1), 문제해결능력 지수(3-1-2-2), 자기주도학습 준비도(3-1-2-3), 갈등이해능력 지수(3-3-2-1), 문화감수성 지수(3-3-2-2), 리더십능력 지수(3-3-2-3), 진로성숙도 지수(3-4-2-1), 직업기초능력 수준(3-4-2-2), 양성평등의식 지수(2-2-1-1) 등
 - 13) 실제 조사가 어려운 대표적인 정량지표 항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측정 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지표항목 : 부모의 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의 비율(4-1-2-2), 청소년 도서 대출 현황(4-4-1-2), 청소년 가정내 안전사고 발생률(1-2-9-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2-1-2-2),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수(2-4-0-3) 등, ② 국제비교 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지표항목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1-3-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산업 취업률(2-1-3-1), 인종별 취학률(2-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 비율(2-3-1-1), 소년사건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2-3-2-5), 학교주변 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건수(2-4-0-1), 근지구력(3-5-2-2), 순발력(3-5-2-4), 심폐지구력(3-5-2-5), 유연성(3-5-2-6) 등, ③ 실용성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지표항목 : 청소년 여가시설 수(3-2-1-5), 종교

3) 조사문항 및 조사척도 개발

지표의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조사(설문조사)에서 사용할 조사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진과 청소년인권 관련 연구자, 사회조사업체의 조사표 개발 전문가들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각 지표항목별로 연구진이 조사문항을 제안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경제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표항목을 하나의 조사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표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 복수의 하위 조사항목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조사문항별 응답항목은 중간항이 있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¹⁴⁾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항의 성격에 따라 명목척도(nominal scale)의 사용을 병행하였다.

이상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사문항은 총 59개 문항으로서, (생존권 관련 17, 보호권 관련 11, 발달권 관련 16, 참여권 관련 15),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¹⁵⁾.

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4-1-1-3) 등

14) 리커트 척도의 경우 중간항목(예컨대,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의 응답항목 중 “보통”을 설정하는 방식과 제외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있는데, 응답의 편의성 측면에서 중간항목이 있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척도평균치에 있어서도 중간항목이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정 (1985), p. 137 참조.

15) 구체적인 조사문항의 내용과 응답척도는 “부록 1. 조사표”를 참조할 것.

<표 II -5> 2007년 청소년인권 현황 조사항목

대분류	조사문항	해당/관련 지표항목
I. 생존권	최근 1년간 신체적 질병을 앓은 경험	1-2-3-1
	몸이 아플 때 등교 여부	1-2-6
	몸이 아플 때 검진/치료 여부	1-2-7
	지난 1주일간 아침식사를 거른 날	1-2-4-2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지의 여부	1-2-4-2
	패스트푸드로 식사하는 빈도	1-2-4
	자신의 비만수준에 대한 평가	1-2-5-2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1-2-6-4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1-2-6-5
	평일날 하루 평균 수면시간	1-2-6
	지난 1년간 흡연경험/빈도	1-2-6-2
	지난 1년간 음주경험/빈도	1-2-6-3
	학교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정도	1-2-6
	학교친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1-2-6
	자살 생각이나 시도 경험	1-3-1-1
	범죄피해로부터의 안전 정도(2)	1-2-8-2
	급식비나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1-2-2-1
	II. 보호권	지난 1년간 체벌 경험(2)
체벌에 대한 의견		2-1-1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태도		2-2-2-3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6)		2-2
비행/일탈행동 경험(5)		2-3-2
비행/일탈행동 피해경험(4)		2-3-2-3
심각한 고민/걱정거리의 유무 및 내용		2-3
고민/걱정거리의 상담상대		2-3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2-1-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2-1-3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차별을 당한 경험		2-1-3

대분류	조사문항	해당/관련 지표항목
Ⅲ. 발달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	3-1-1
	대졸학력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견(3)	3-1-1
	대학진학과 사교육/가정배경의 관계(2)	3-1-1
	진학을 위한 과외교습 수강 경험	3-1-1-4
	학교 공부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3)	3-4
	부모님과 대화 빈도(2)	3-2-1-1
	학교선생님과 대화 빈도	3-2-1-1
	하루 평균 여가시간	3-2-1-4
	자신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3-2-1-4
	지역사회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의견	3-2-1-5
	생활영역별 만족도(4)	3-2-1
	전체적인 행복감	3-2-2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의 수	3-3-1-1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3-3-1-4
	동아리 가입/활동 여부와 그 종류	3-3-1-4
	자신을 외톨이로 느낀 경험	3-2-2
Ⅳ. 참여권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의 여부	4-1-2-1
	진로/진학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4-1-3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4-1-4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4-1-2-1
	학교의 규율/교칙에 대한 의견	4-5-2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 여부	4-2-1-1
	학교의 규칙/규정 제정에 학생의견 반영 여부	4-2-1-1
	자신의 두발/복장에 대해 부모님 간섭 여부	4-2-1-2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4-2-2-2
	선생님께 자유롭게 의견표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4-2-2-3
	학교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여부	4-3-1-1
	조건없이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4-5-2-1
	학교의 교내/교외 동아리활동 허용 여부	4-3-2-2
	학교에서 교외 아르바이트를 인정하는지의 여부	4-5-1-2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4-5-1-3

주: ()안의 수치는 세부문항 수입.

Ⅲ. 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6. 요약과 논의

Ⅲ. 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

1)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영역별 인권실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 항목 중 정성지표항목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4개 영역에 걸쳐 총 152개의 개별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① 한 차례의 조사로 파악하기에는 조사항목의 수가 과다하고, ②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조사가 어려운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실제 조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문항 개발을 통한 조사표의 확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지표항목(정성지표)에 대한 검토 및 선별작업을 거쳐(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는 제Ⅲ장 4절 참조) 최종 조사항목을 확정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약 7천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학급 단위의 집단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 조사의 내용과 방법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중·고등학생 연령층의 생활영역, 성장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인권 영역별 인권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다루게 될 조사영역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이고, 각 조사 영역은 다시 3-4가지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

어져 있으며, 전체 조사항목은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에 해당하는 96개 문항이다. 지표항목의 검토 및 선별작업을 통해 1차적으로 확정된 조사문항은 59개였지만, 배경변인(9문항)과 기타 청소년인권 현황 파악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표Ⅲ-1〉 인권영역별 문항수

영역구분	문항수
청소년 생존권 영역	22
청소년 보호권 영역	26
청소년 발달권 영역	26
청소년 참여권 영역	14
사회인구학변인	9
계	96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2007년 7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청소년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이 10대 청소년들로서, 이 연령층의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⁶⁾.

조사의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 방식에 의거하여, 조사대상 모집단을 성(남/녀), 교급(중학교/일반계 고등학교/실업계 고등학교)별로 층화한 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5개 권역(서울/경인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모집단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총 7천명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각 권역별로 광역시 1개 지역과 시/군부 3~5개 지역 등 총 25개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확정하고, 각 조사지점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명부에 의거하여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2~3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16)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서 비진학 및 취업 청소년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의 학급 단위 집단조사 방식으로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총 6,912명의 중·고등학생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이 된 표본의 수는 6,808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본문에서 통계분석에서 유의도 수준은 $p < 0.05 = *$, $p < 0.01 = **$, $p < 0.001 = ***$ 으로 표기하였다.

3) 표본의 특성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3,634명(53.2%)으로서 여자(3,198명, 46.8%)보다 다소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257명(47.7%), 고등학생이 3,575명(52.3%)로서 실제 인구에 비해 고등학생이 과다표집되었다. 고등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인문계)가 2,650명(74.1%), 실업계가 925명(25.9%)으로 실제 모집단의 인구비율과 거의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이 2,410명(35.4%), 광역시가 1,650명(24.2%), 기타 시/군부 지역이 2,759명(40.4%)으로서 시/군부 지역이 실제 인구에 비해 과소표집되었는데, 이것은 군소도시/농촌지역 학교의 학급인원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Ⅲ-2〉 표본의 특성

		사례수	비율 (단위 : 명,%)
전체		6,832	100
성별	남자	3,634	53.2
	여자	3,198	46.8
교급	중학생	3,257	47.7
	고교생	3,575	52.3
고교계열	일반계	2,650	74.1
	실업계	925	25.9
거주지역	서울	2,423	35.5
	광역시	1,650	24.2
	시군부	2,759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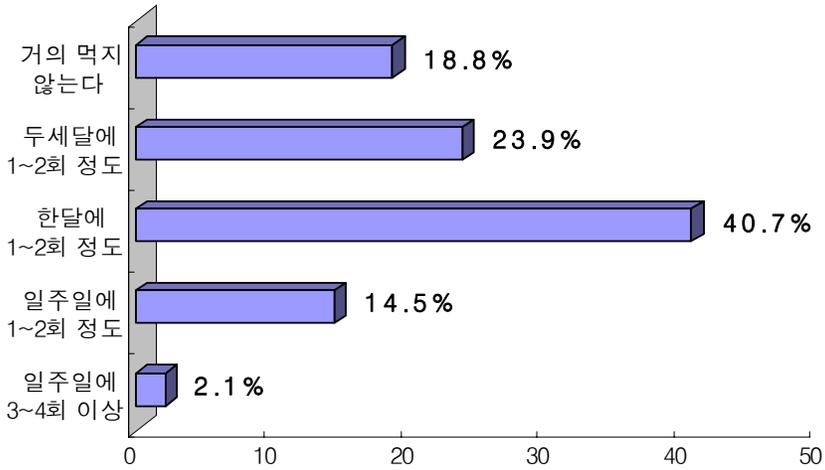
2. 청소년 생존권 실태

1) 신체적 생존권

(1)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비만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전체 10.2%(남자는 11.7%, 여자는 8.4%)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보다 남자 중학생은 1.9배, 남자 고등학생은 2.3배 늘어난 수치인데,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비만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약 2조 81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만을 따지지 않더라도 비만 청소년은 건강문제 위험집단이다. 비만으로 진단된 중학생 가운데 76.5%는 간기능 이상,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고혈당 등 한 가지 이상의 비만관련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인제의대 비만센터 강제현·유선미, 2004).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만의 주된 원인은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충분하지 않는 패스트푸드의 과도한 섭취라는 것이 세계 각국 보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해 폭력성이나 기타 비행을 유발하는 배경변인으로 의심받기도 한다(한국청소년 연구소, 2000; 주간동아, 2002년 8월 1일, 인스턴트 식품이 아이들 폭력성 키운다). 이런 배경으로 고려할 때,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에 직결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거의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5에 조금 못 미치는 18.8%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회 정도 먹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 16.6%는 매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1]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섭취 빈도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패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학생(19.6%)들이 여학생(17.9%)에 비해서 더 많았고, 고등학생(17.3%)보다 중학생(20.5%)이 더 많았으며,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섭취 빈도

(단위 :%)

		거의 먹지 않는다	두세달에 1~2회 정도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4회 이상
성1)	남자	19.6	24.3	38.9	15.1	2.2
	여자	17.9	23.4	42.9	13.9	1.9
교급2)	중학생	20.5	25.7	40.0	12.2	1.6
	고교생	17.3	22.2	41.5	16.7	2.4
지역3)	서울	20.5	23.0	41.5	13.7	1.3
	광역시	15.0	25.7	41.4	15.2	2.6
	시군부	19.6	23.5	39.7	14.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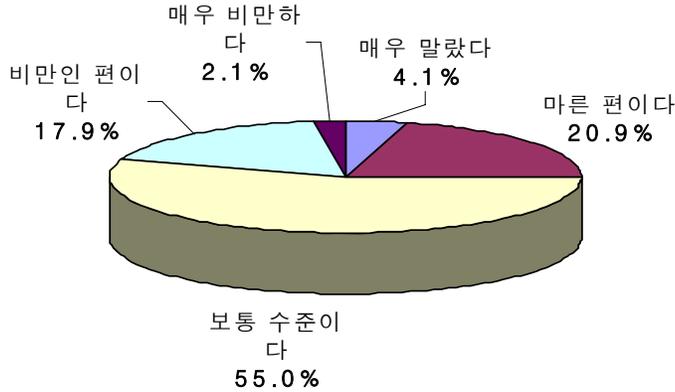
통계17): 1) $x^2=12.26^*$, 2) $x^2=47.80^{***}$, 3) $x^2=33.10^{***}$

(2) 자신의 체격에 대한 자기평가

1980년대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체격은 급속하게 커졌다. 이제 문제는 체지방율과 같은 질적인 성장수치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체력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체지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외국과의 체격 비교에서 대체적으로 신장 및 체중은 전반적으로 일본 및 중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일본 및 중국보다 작은 경향이 보였다. 또한 체격은 신체상(Body image)의 핵심요소로서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 체격에 만족하는지, 혹은 자기 체격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기 정체감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체격에 대한 자기평가는 신체적인 충실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상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수라 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의 체격 자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55.0%)의 청소년들은 자기 체격이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신이 정상범위에서 벗어날 만큼 매우 비만하다고 느끼거나 매우 말랐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모두 합해 6.2%를 차지했다. 흥미로운 것은 객관적인 지표는 청소년들의 체지방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자기평가는 비만인 편이라는 응답(17.9%)이 마른 편이라는 응답(20.9%)보다 더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체격에 대한 자기평가 기준이 자기 주변의 또래들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 본 조사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 = $p < .05$, ** = $p < .01$, *** = $p < .001$ 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림Ⅲ-2] 자기 체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성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체격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기가 비만인 편이라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18.4%)이 남자 청소년(17.5%)보다 많았고, 마른 편이라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25.6%)이 여자 청소년(15.5%)보다 더 많았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하지만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가 매우 비만하다는 응답(1.7%)은 남자청소년들(2.5%)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적었다. 반면에 자기가 매우 말랐다는 응답은 남자청소년들이 5.9%로서 여자청소년의 2.0% 을 월등하게 앞섰다.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중학생(22.0%)이 고등학생들(19.9%)보다 스스로를 더 마른 편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 청소년들(20.0%)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광역시 17.6%, 시군부 16.2%)보다 자신이 남들에 비해 더 살찐 편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영양섭취의 균형이 지역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나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신체평가 기준이 보다 더 마른 쪽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Ⅲ-4〉 자기 체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단위 :%)

		매우 말랐다	마른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비만인 편이다	매우 비만하다
성1)	남자	5.9	25.6	48.6	17.5	2.5
	여자	2.0	15.5	62.3	18.4	1.7
교급2)	중학생	3.8	22.0	55.3	16.9	2.0
	고교생	4.4	19.9	54.7	18.8	2.2
지역3)	서울	4.2	19.1	54.4	20.0	2.3
	광역시	4.2	23.1	53.1	17.6	2.0
	시군부	3.9	21.2	56.6	16.2	2.0

통계: 1) $\chi^2=207.90^{***}$, 2) $\chi^2=8.78$, 3) $\chi^2=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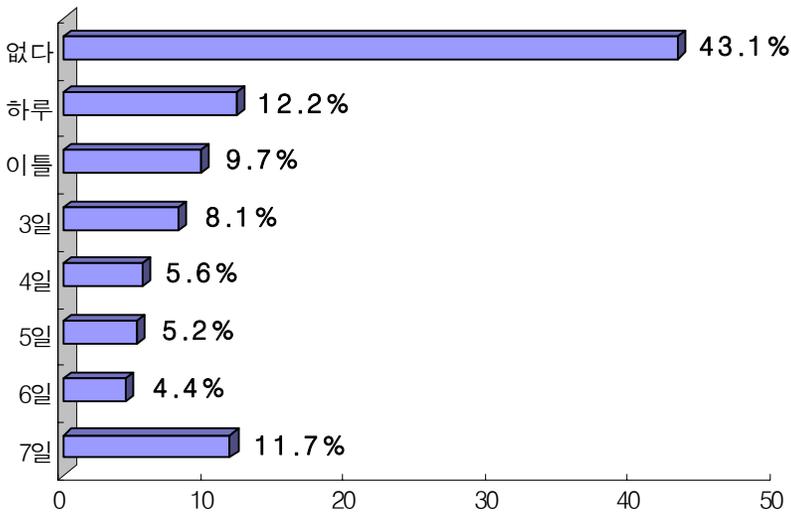
(3) 아침식사 결식 경험

최근 보고서들은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등 가족의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자녀에 대한 돌봄, 보호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 부모 가정의 수는 1995년의 96만 가구에서 10년 후인 2005년에는 137만 가구로 42.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조이혼율은 1.5%에서 2.6%로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도 1990년의 27.4%에서 2000년에는 35.4%로 증가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통계청, 2006이혼통계결과). 그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60년의 36.3%에서 80년에는 42.8%로, 2006년에는 48.9%로 꾸준히 증가하면서(통계청, 「경제활동연보」) 학령기 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교육지도 및 보살핌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이다.

또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스페인의 1,800시간, 일본의 1,801시간, 호주의 1,814시간, 멕시코의 1,857시간, 폴란드의 1,956 시간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2,390시간으로 일본보다도 32.7%나 높다(OECD, OECD Factbook 2005 - Actual Hours Worked, 2005).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연계되어 나타나는 방치현상은 대표적으로 청소년

기 아동의 결식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과도한 아침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대신 수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침식사는 이후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의 활동에너지이자 근골격계의 성장에 직결되어 청소년의 적절한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침식사 결식 청소년의 비율과 결식 빈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1주일간 아침식사를 거른 날이 며칠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침을 거른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과반수에 못미치는 43.1%로 나타났다. 하루 아침을 걸렀다는 응답이 12.2%, 일주일의 절반을 넘는 4일 이상 아침을 굶었다는 응답이 모두 26.7%를 차지해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청소년 중의 1/4은 매일 아침의 절반 이상을 굶은 채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내내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응답도 11.7%를 차지해 아침 결식이 새로운 청소년 건강 문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III-3]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른 날

성별, 학령, 지역별 아침 결식청소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아침을 거른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들(46.7%)이 여자 청소년들(39.0%)보다 더 많았

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비교적 아침을 더 잘 챙겨먹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아침을 걸렀다는 응답에는 성차이가 없었다. 이는 심각한 아침결식의 경우는 성별 문화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학생(47.7%)이 고등학생(38.9%)보다 아침 결식이 없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결식을 한다는 응답 역시 중학생(9.5%)이 고등학생(13.7%)에 비해서 적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차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부가되는 학업부담이나 아침 자율학습의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침 결식자 비율의 지역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Ⅲ-5>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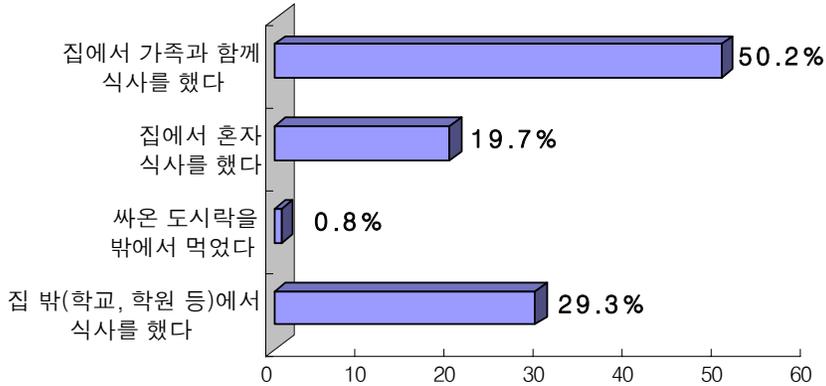
(단위 :%)

		없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성1)	남자	46.7	12.4	9.2	7.3	4.7	4.6	3.5	11.7
	여자	39.0	12.0	10.4	9.0	6.7	5.8	5.5	11.7
교급2)	중학생	47.7	12.0	9.4	7.5	5.4	4.8	3.9	9.5
	고교생	38.9	12.5	10.0	8.6	5.8	5.5	4.9	13.7
지역3)	서울	41.8	13.3	9.6	7.9	5.9	4.7	4.7	12.2
	광역시	45.6	10.7	9.7	8.2	5.0	5.1	3.8	11.9
	시군부	42.7	12.2	9.9	8.1	5.7	5.7	4.5	11.1

통계: 1) $\chi^2=64.87^{***}$, 2) $\chi^2=66.76^{***}$, 3) $\chi^2=16.09$

(4) 저녁식사 장소

청소년들에게 저녁식사를 주로 어디에서 했는지 질문한 결과,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했다는 응답은 절반(50.2%)에 불과했다. 학교나 학원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응답이 29.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집에서 혼자 먹었다는 응답도 19.7%나 되었다. 이는 지금 청소년들의 절반은 학업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Ⅲ-4] 지난 1주일 동안 저녁식사 방법

성별, 학령과 지역별로 저녁식사 장소의 분포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 대신 학원이나 학교에서 저녁을 먹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매우 뚜렷해서 중학생들은 65.5%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36.3%만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나 학원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응답이 12.1%나 되었고 고등학생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서울지역 청소년들(58.4%)이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44.9%, 46.2%)에 비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는 응답 역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반면 서울외 지역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응답이 평균 35.2%로 나타나, 18.9%에 불과한 서울지역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

<표Ⅲ-6> 지난 1주일 동안 저녁식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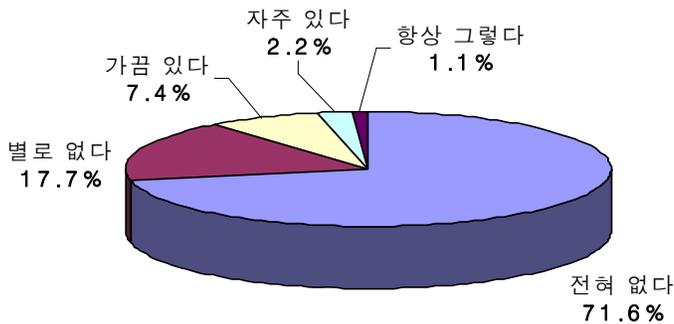
(단위 :%)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싸운 도시락을 밖에서 먹었다	집 밖 (학교, 학원 등)에서 식사를 했다
성1)	남자	51.7	19.8	0.8	27.7
	여자	48.5	19.5	0.8	31.2
교급2)	중학생	65.5	21.8	0.6	12.1
	고교생	36.3	17.8	0.9	45.0
지역3)	서울	58.4	21.6	1.1	18.9
	광역시	44.9	18.7	0.8	35.6
	시군부	46.2	18.6	0.5	34.7

통계: 1) $\chi^2=10.75^*$, 2) $\chi^2=923.72^{***}$, 3) $\chi^2=199.81^{***}$

(5) 급식비 미납 경험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의 급식비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1.6%를 차지했다. 별로 없다는 응답(17.7%)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소년 중의 89.3%는 급식비 납부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항상 미납(1.1%)이나 자주 미납(2.2%)하는 청소년은 3.3%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5] 학교 급식비/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성별, 학령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급식비 미납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학생(2.2%)이 고등학생(4.2%)보다 미납자 비율이 절반가량 더 낮았고,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보다 미납자 비율이 더 낮았다.

〈표Ⅲ-7〉 학교 급식비/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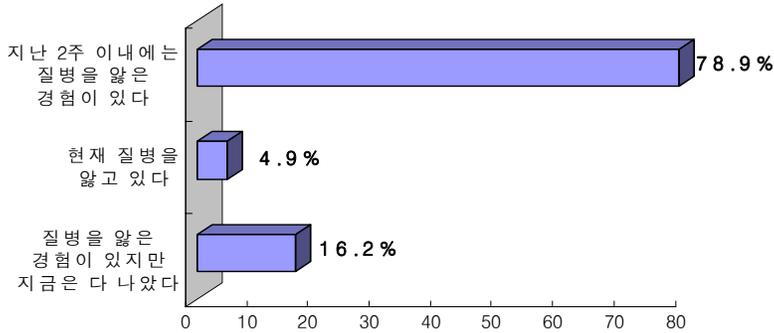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그렇다
성	남자	72.2	17.7	7.0	2.0	1.1
	여자	70.8	17.7	7.9	2.4	1.1
교급	중학생	78.3	14.4	5.1	1.4	0.8
	고교생	65.5	20.8	9.5	2.9	1.3
지역	서울	77.2	14.3	5.9	1.6	0.9
	광역시	70.2	18.5	8.0	2.3	1.0
	시군부	67.4	20.2	8.4	2.7	1.3

통계: 1) $\chi^2=3.82$, 2) $\chi^2=142.31^{***}$, 3) $\chi^2=63.55^{***}$

(6) 큰 질병의 경험

청소년들의 유병율은 신체적 생존권의 주요 지표중의 하나로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면역 상태와 청소년 생활 환경의 위생수준을 반영한다. 지난 2주 이내에 결석을 할 정도로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8.9%는 그로 인해 결석할 정도의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를 차지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면서도 통계적인 가치가 있는 질병 분류체계를 만들지 못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학교를 결석할 수 있는 질병 중에는 아폴로 눈병과 같은 비교적 경미하고 전염성만 높은 질병도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질병의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6] 큰 질병을 앓은 경험

유병율의 성별, 학령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유병율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병율이 1.2%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유병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유병율이 19.2%로 가장 낮았고 서울지역과 시군부 지역의 청소년들은 광역시 청소년들에 비해서 각각 3.2%와 1.9% 정도 높았다. 이는 주거환경이나 학교환경의 위생수준에 있어서 지역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Ⅲ-8> 큰 질병을 앓은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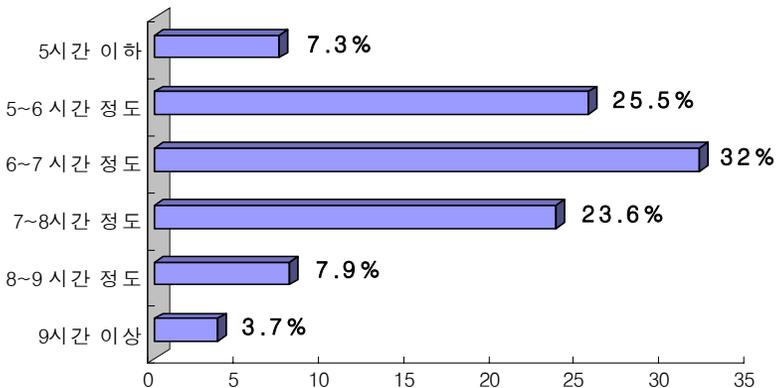
		지난 25주 이내에는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다 나았다
성1)	남자	78.5	4.9	16.6
	여자	79.4	4.8	15.9
교급2)	중학생	78.3	4.1	17.7
	고교생	79.5	5.6	14.9
지역3)	서울	77.6	4.7	17.7
	광역시	80.8	4.0	15.2
	시군부	78.9	5.5	15.6

통계: 1) $x^2=.73$, 2) $x^2=15.36^{***}$, 3) $x^2=11.43^*$

(7) 평일 수면시간

성장기의 충분한 수면은 적절한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지적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200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는 평균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이었으나 이후 고교 1학년은 6.02시간, 2학년은 5.62시간, 3학년은 4.86시간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창국, 2005, Pediatrics 1월호). 이중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미국의 같은 나이 학생들(7~8시간)보다 100분 이상 적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6~7시간), 중국(7.5시간)보다도 훨씬 짧았다.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원인으로 31.9%가 이른 등교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터넷·TV 등 오락(25.9%), 과제(18.9%), 야간 학습(14.9%)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초등 5~6학년이 17.7%, 중 1~2학년 24.6%, 중3~고1 39.5%, 고 2~3학년 53.4% 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평일의 경우 하루 몇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은 32%의 청소년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라고 응답했으며 5-6시간(25.5%), 7-8시간(23.6%)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학계에서 권장하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수면시간은 8시간 내외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기준보다 부족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III-7] 평일(토·일요일 제외) 하루 평균 수면시간

성별, 학령,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5-6시간 수면한다는 응답이 여학생들에게서는 27.3%가 나타났으나 남학생에게서는 23.8%에 불과하는 등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이 비교적 더 많은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로는 7-8시간 수면한다는 응답이 34.3%였던 중학생들보다 13.9%에 불과한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업부담이 청소년 수면시간 부족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면시간의 지역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Ⅲ-9> 평일(토·일요일 제외) 하루 평균 수면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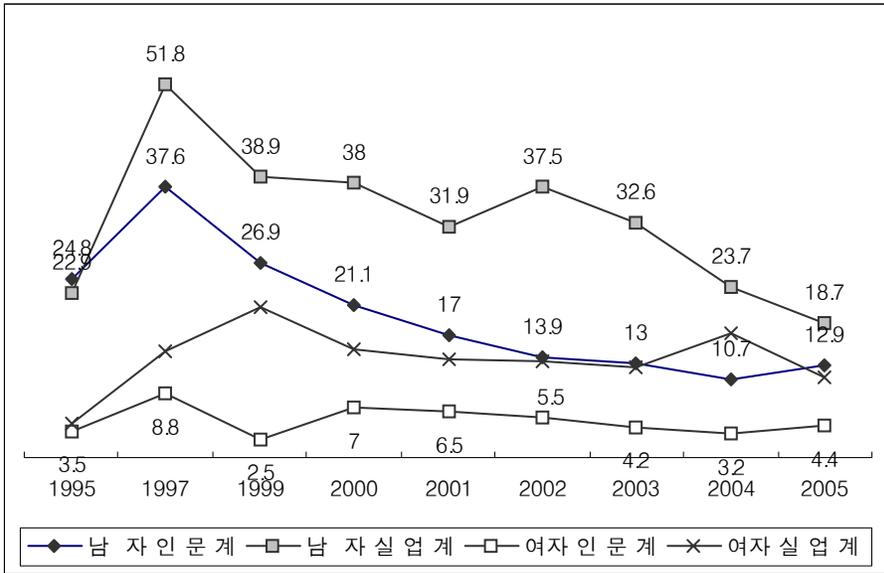
		5시간 이하	5~6 시간 정도	6~7 시간 정도	7~8시간 정도	8~9 시간 정도	9시간 이상
성1)	남자	7.4	23.8	31.4	25.2	8.6	3.6
	여자	7.1	27.3	32.8	21.8	7.1	3.9
교급2)	중학생	3.5	14.0	32.2	34.3	11.7	4.4
	고교생	10.7	35.9	31.9	13.9	4.5	3.1
지역3)	서울	7.6	25.7	32.1	23.2	7.8	3.7
	광역시	7.6	26.5	32.0	22.8	8.0	3.1
	시군부	6.8	24.6	32.0	24.4	8.0	4.1

통계: 1) $\chi^2=22.89^{***}$, 2) $\chi^2=855.11^{***}$, 3) $\chi^2=7.16$

(8) 흡연과 음주 경험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5년에 발간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흡연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1987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1997년의 51.8%에서 2005년 현재 18.7%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여자 청소년들, 특히 실업계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1989년에 흡연율이 최고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래프 참조). 그 결과, 2004년과 같이 여자 실업계 청소년들의 흡연율(17.4%)이 남자 인문계 청소년(10.7%)보다 더 높은 시점이 나타날 정도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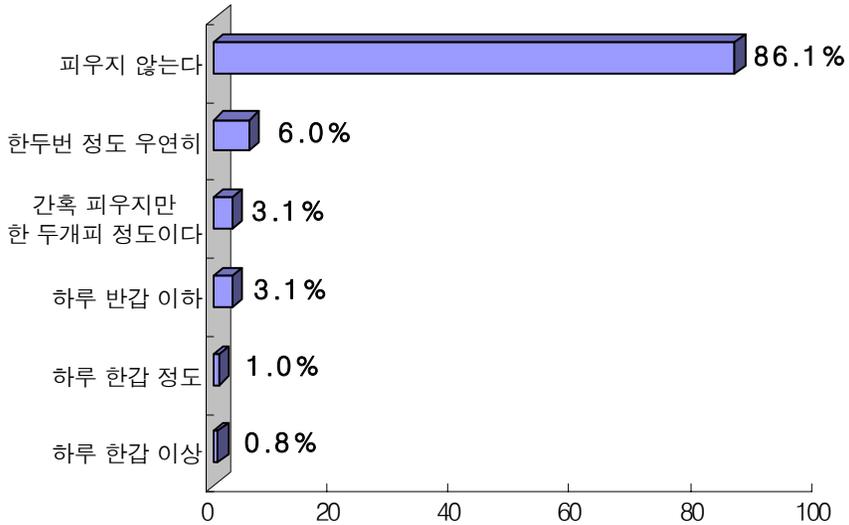
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6년 전국 중고생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조사 보고서에서도 고3 여학생의 흡연율은 12.4%로 성인 여자 흡연율 5.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제 흡연은 남자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여자 청소년 흡연 문제는 일본이나 영국 미국과 같은 일부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출처: 연세대 국민건강증진연구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 각년도

[그림Ⅲ-8] 남녀 고등학생 흡연율 추이

본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9%만이 한번 이상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86.1%는 전혀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림Ⅲ-9] 청소년 흡연율

성별, 학령별, 지역별 흡연율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남자 청소년(18.1%)들이 여자 청소년들(9.2%)에 비해서 흡연하는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5년의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17.7%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9.8%로 나타났으나, 전체 중학생의 중에서 10명 중 한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흡연율의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Ⅲ-10> 청소년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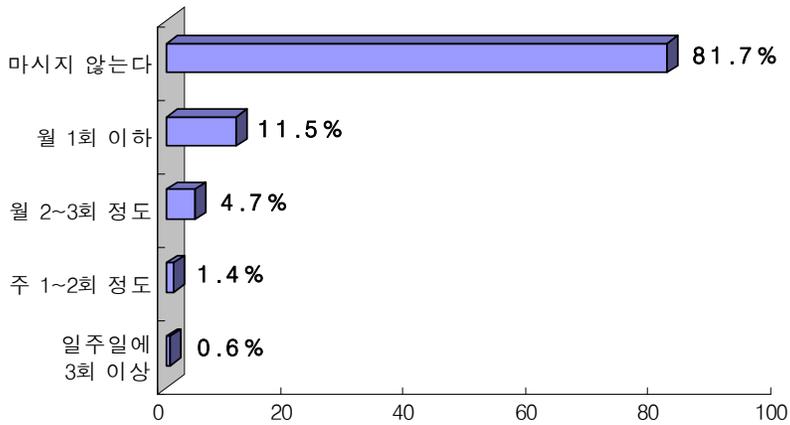
(단위 :%)

		피우지 않는다	한두번 정도 우연히	간혹 피우지만 한 두개 정도이다	하루 반갑 이하	하루 한갑 정도	하루 한갑 이상
성1)	남자	81.9	7.2	3.8	4.5	1.4	1.2
	여자	90.8	4.6	2.3	1.5	0.4	0.3
교급2)	중학생	90.2	6.0	2.1	1.1	0.2	0.3
	고교생	82.3	6.0	4.0	5.0	1.6	1.1
지역3)	서울	86.2	5.6	2.7	3.3	1.1	1.1
	광역시	85.8	6.3	3.2	3.4	0.8	0.5
	시군부	86.1	6.2	3.4	2.7	1.0	0.6

통계 : 1) $\chi^2=131.41^{***}$, 2) $\chi^2=161.89^{***}$, 3) $\chi^2=12.94$

음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술 소비량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01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69.8%로, 1998년 68.4%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음주율이 1998년 54.87%에서 2001년 59.5%로 높아졌으며 20대의 음주율도 1998년 82.98%에서 2001년 9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술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도 98년 15.1세에서 지난해 12.6세로 어려졌고, 고3 남학생의 절반이 술을 마시는 가운데 고3 여학생의 음주율도 38.5%로 성인 여성의 음주율 36.3%보다도 높았다. 또한 청소년 음주는 다른 약물이나 비행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청소년 음주자 가운데 34.8%가 담배를 피우며 14.7%가 성경험이 있고 9.2%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음주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7%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월 1회 이하인 경우가 11.5%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습관성 음주인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그림Ⅲ-10] 청소년 음주율

그러나 성별 연령별 음주율을 분석한 결과, 음주율 자체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주1회 이상 습관성 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이 2.7%로 여자 청소년들의 1.4%보다 높았다. 또한 중학생의 음주율이 7.1%, 습관성 음주는 0.5% 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인 음주율이 38.5%, 습관성 음주는 3.4%에 달하는 등 연령에 따른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에는 지역 간의 차이도 있어서 서울과 광역시 지역에 비해서 시군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습관성 음주자의 경우는 서울(2.7%)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광역시 거주 청소년들(1.2%)이 가장 낮았다.

〈표Ⅲ-11〉 청소년 음주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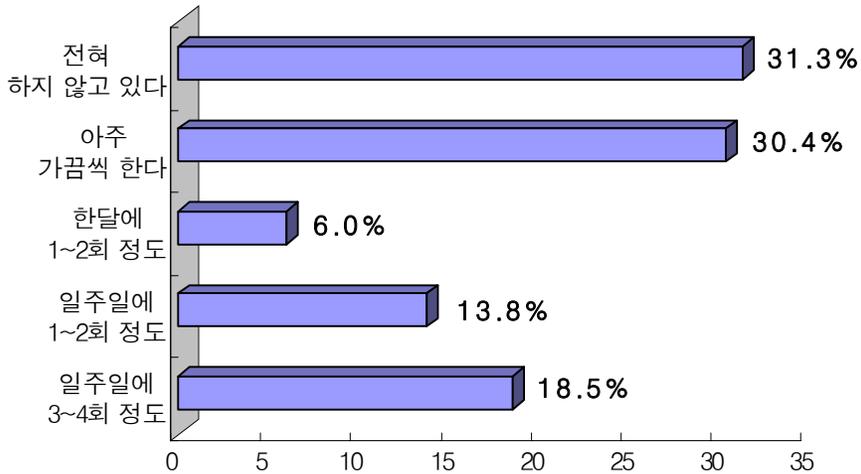
		마시지 않는다	월 1회 이하	월 2-3회 정도	주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성1)	남자	81.5	10.8	5.1	1.8	0.9
	여자	81.9	12.4	4.2	1.0	0.4
교급2)	중학생	92.9	5.2	1.3	0.2	0.3
	고교생	71.5	17.3	7.7	2.5	0.9
지역3)	서울	82.3	10.5	4.5	1.8	0.9
	광역시	82.6	11.5	4.7	0.8	0.4
	시군부	80.7	12.5	4.8	1.5	0.5

통계: 1) $\chi^2=18.94^{***}$, 2) $\chi^2=530.13^{***}$, 3) $\chi^2=16.50^*$

(9) 정기적인 운동 실천 여부

정기적인 운동은 체력과 균형잡힌 신체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본 조사에서 학교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스스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1.3%를 차지했다. 아주 가끔씩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인 30.4%로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인 일주일에 3-4회 정도 운동을 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는 신체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Ⅲ-11] 체육시간 운동을 제외한 정기적인 운동 실천여부

성별, 학령별,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76%)이 남자 청소년(48.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학생(58.9%)보다 고등학생(64.2%)의 운동부족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흥미로운 것은 운동부족인 청소년의 비율은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보다는 시군부 지역에서 더욱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운동부족의 원인이 학업부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도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Ⅲ-12> 정기적인 운동 실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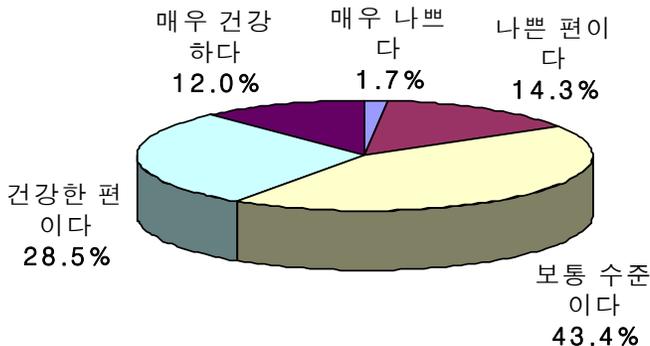
(단위 :%)

		전혀 않고 있다	아주 가끔씩 한다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4회 정도
성1)	남자	21.7	27.2	6.7	18.2	26.1
	여자	42.1	33.9	5.2	8.8	10.0
교급2)	중학생	27.7	31.2	6.8	14.4	19.9
	고교생	34.6	29.6	5.2	13.2	17.3
지역3)	서울	28.6	29.8	6.2	15.1	20.3
	광역시	29.9	27.8	6.6	16.2	19.6
	시군부	34.4	32.4	5.4	11.3	16.4

통계: 1) $\chi^2=603.62^{***}$, 2) $\chi^2=42.26^{***}$, 3) $\chi^2=59.39^{***}$

(10) 주관적 건강 평가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83.9%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보통이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43.4%는 자신의 건강 수준이 평균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으며 28.5%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도 12%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건강 증진행동을 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Ⅲ-12]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평가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신이 건강한 편이거나 매우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들은 자신이 매우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1.3%)은 남자 청소년(2.1%)들보다 적었지만, 보통수준이거나 나쁜 편이라는 응답은 남자청소년들보다 더 많았다.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보다 긍정적인 평가에 치우치면서도 극단적으로 나쁜 평가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자신이 더 건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중학생의 응답과 비슷하고,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은 고등학생의 응답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는 결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 있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Ⅲ-13〉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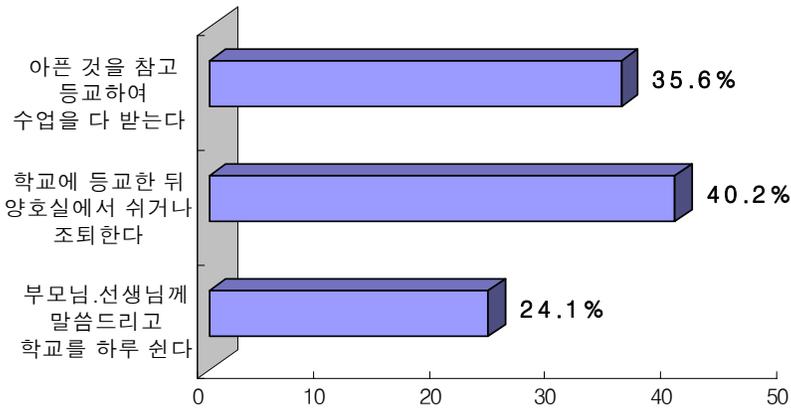
(단위 :%)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성1)	남자	2.1	13.8	39.3	30.7	14.2
	여자	1.3	15.0	47.9	26.1	9.7
교급2)	중학생	1.3	10.9	42.2	31.4	14.2
	고교생	2.2	17.4	44.4	25.9	10.1
지역3)	서울	1.5	14.4	41.8	28.9	13.4
	광역시	1.7	13.7	43.7	28.7	12.2
	시군부	2.0	14.7	44.5	28.0	10.8

통계: 1) $\chi^2=77.27^{***}$, 2) $\chi^2=101.96^{***}$, 3) $\chi^2=12.74$

(11) 건강의 우선순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학업과 건강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플 경우 당신은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아프더라도 일단 등교한다’는 응답이 75.8%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인내심과 복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이 매우 아픈데도 등교한다는 응답은 신체적 건강권을 경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질병의 경우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전염가능성을 극대화 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Ⅲ-13] 건강의 우선순위

성별에 따른 건강 우선순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건강을 무시하고 학교수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뚜렷했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아파도 등교해서 수업을 다 받는다는 응답이 38.1%로 여자 청소년에 비해서 5.2%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단 등교한 뒤에 양호실에서 쉬거나 조퇴한다는 응답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3.7% 더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아프면 학교를 하루 쉰다는 응답이 26.2%로 고등학생의 같은 응답보다 4% 더 많아 비교적 학업 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서울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건강을 비교적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4〉 건강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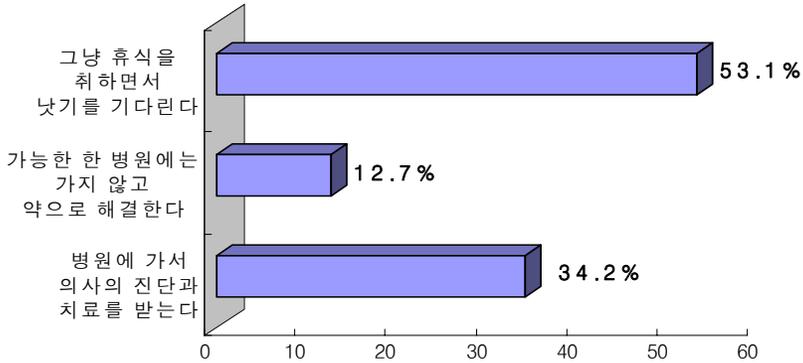
(단위 :%)

		아픈 것을 참고 등교하여 수업을 다 받는다	학교에 등교한 뒤 양호실에서 쉬거나 조퇴한다	부모님·선생 님께 말씀 드리고 학교를 하루 쉰다
성1)	남자	38.1	38.5	23.4
	여자	32.9	42.2	24.9
교급2)	중학생	33.9	39.9	26.2
	고교생	37.2	40.6	22.2
지역3)	서울	35.3	35.0	29.7
	광역시	34.5	44.9	20.6
	시군부	36.6	42.1	21.3

통계: 1) $\chi^2=19.94^{***}$, 2) $\chi^2=16.73^{***}$, 3) 76.86^{***}

(12) 건강 회복에 대한 적극적 태도

몸이 아플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반수인 53.1%의 청소년들은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고 응답했으며,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34.2%로 나타났다.



[그림Ⅲ-14]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때 취하는 행동

건강회복에 대한 태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냥 휴식을 취하며 낫기를 기다린다는 응답이 6.6% 더 많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들보다 10.1%나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적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태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건강회복의 적극성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Ⅲ-15>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을때 취하는 행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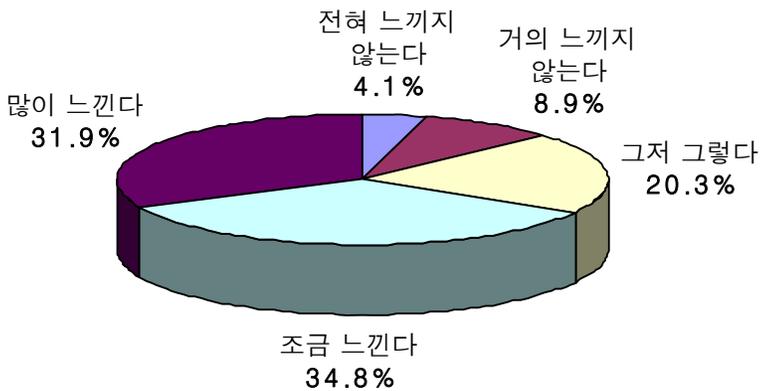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	가능한 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으로 해결한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성1)	남자	53.9	12.2	33.9
	여자	52.1	13.3	34.6
교급2)	중학생	49.6	10.9	39.5
	고교생	56.2	14.3	29.4
지역3)	서울	55.1	12.7	32.2
	광역시	51.2	13.1	35.7
	시군부	52.5	12.4	35.1

통계: 1) $x^2=2.83$, 2) $x^2=79.29^{***}$, 3) $x^2=7.84$

(13) 학업 스트레스

2003년도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문제해결력은 세계 1위, 읽기 소양은 2위, 수학은 3위, 과학 소양은 4위를 차지하는 등, 성취도는 매우 높았으나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서의 흥미, 자아 효능감, 동기 등 이른바 ‘정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강제에 의해서 학업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동기와 반하는 학업 부담은 스트레스로 반영될 수 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이 66.7%를 차지한 반면,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그림Ⅲ-15] 학교공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뚜렷해서 학업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이 15.8%인데 비해 여자 청소년은 9.7%에 불과했고,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이 62%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72.1%로 10%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스트레스를 훨씬 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보다는 다른 성품을 증시하는 남자 청소년들의 또래문화와 연관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령에 따른 차이도 매우 뚜렷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나 많았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은 19.1%나 적었다. 학업 스트레스의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Ⅲ-16> 학교공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단위 :%)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조금 느낀다	많이 느낀다
성1)	남자	5.3	10.5	22.2	33.2	28.8
	여자	2.7	7.0	18.1	36.5	35.6
교급2)	중학생	4.9	10.8	22.2	35.7	26.4
	고교생	3.3	7.1	18.6	34.0	37.0
지역3)	서울	4.3	9.3	19.6	34.9	31.8
	광역시	4.4	8.6	19.5	34.4	33.0
	시군부	3.7	8.7	21.3	34.9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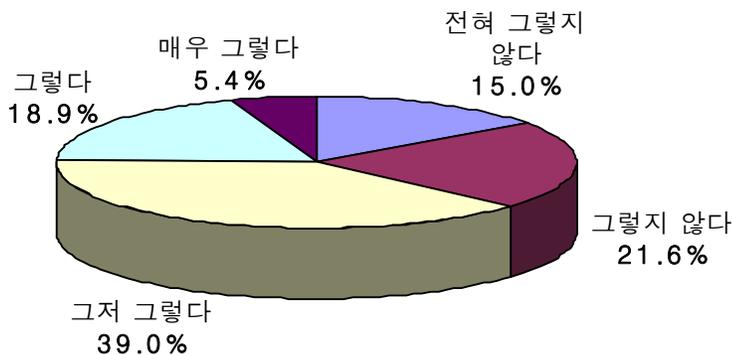
통계: 1) $\chi^2=94.19^{***}$, 2) $\chi^2=107.90^{***}$, 3) $\chi^2=5.59$

(13) 또래간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학 진학이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상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 친구들과의 경쟁의식을 부추긴다는 사실은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03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에 따르면 2003년 중학교 2학년일 때 평균 친구 수는 8.94명이었으며, 2004년 중 3학년일 때 8.85명, 2005년 고 1학년일 때 7.25명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8.01명)이 여학생(6.49명)보다 친구 수가 많았으나, 남학생들의 친구 수는 고교 진학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친구와의 친밀도 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고교 진학 후 계열별 친구 수를 살펴보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학생의 친구수(6.47명)가 인문고(6.98명)나 실업고(8.22명)보다 적었다. 2005년 한국·일본·중국·미국의 고교생 7,200명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결과,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친구관계보다는 공부나 입시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 분야를 묻는 항목에 한국 학생들은 장래 진로(66%)를 꼽은 반면 미국 학생들은 친구관계(64%)를, 일본 학생들은 대중문화(62%)를 들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은 78%가 ‘희망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장 크게 소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에 대해 중국은 76%, 미국은 54%, 일본은 29%에 그쳤다. 어떤 학생이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67%)을 최우선으로 꼽은 반면 일본 학생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48.4%)에 제일 많이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또래 친구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조사한 결과, 경쟁의식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에 가까운 24.3%를 차지했다. 전혀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의 36.6%보다는 낮았으나 또래관계가 경쟁관계로 인식되는 현상이 결코 소수에 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III-16]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느끼는지 여부

성별에 따른 또래 경쟁의식을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경쟁의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 중에서 경쟁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 같은 응답을 한 여자 청소년들은 34.2%를 차지한 반면,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이 25.7%인데 비해 남자 청소년들은 22.7%로 낮았다.

또래 경쟁의식의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또래 경쟁의식이 우리나라 전체에 일반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Ⅲ-17>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경쟁상대로 느끼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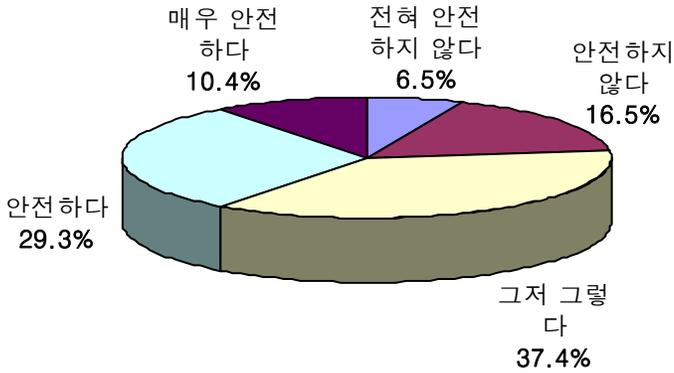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6.9	21.9	38.0	17.2	5.9
	여자	12.9	21.3	40.1	20.8	4.9
교급2)	중학생	17.2	22.7	37.4	17.4	5.3
	고교생	13.1	20.7	40.4	20.2	5.6
지역3)	서울	15.3	23.2	37.7	18.3	5.5
	광역시	15.4	20.8	39.3	19.8	4.7
	시군부	14.6	20.7	40.0	18.9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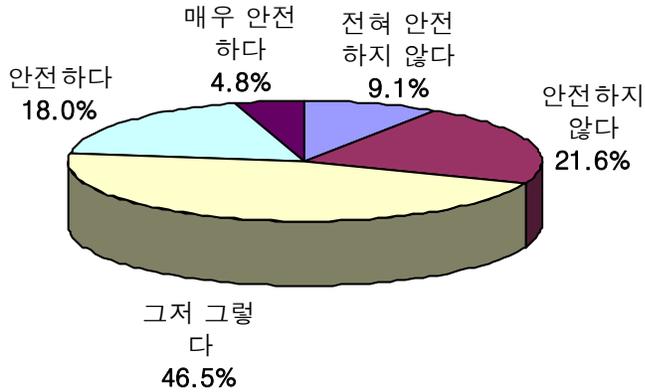
통계: 1) $\chi^2=33.88^{***}$, 2) $\chi^2=33.42^{***}$, 3) $\chi^2=10.36$

(14) 생활환경의 범죄 안전도 평가

죄와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생존권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을 거주지역과 학교로 구분하여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신의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청소년은 전체의 39.7%인 반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였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평가는 안전하다가 22.8%로 거주지역의 안전도 평가 39.7%보다 많이 낮았다.



[그림Ⅲ-17]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도



[그림Ⅲ-18]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성별에 따른 생활환경의 범죄 안전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안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거주지역과 학교주변에 대해 동일했으나, 거주지역 보다는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도 평가가 낮은 경향은 성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견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안전도 평가는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

해서 학교주변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환경의 안전도 평가는 거주지역 주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군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8> 생활 환경에 대한 범죄 안전도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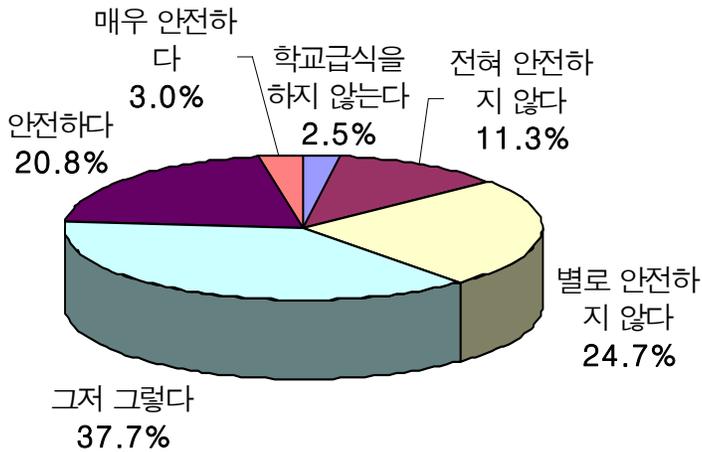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거주 지역	성1)	남자	7.0	13.0	33.2	32.8	14.0
		여자	5.9	20.4	42.2	25.4	6.3
	교급2)	중학생	6.8	16.8	36.8	29.3	10.3
		고교생	6.2	16.2	38.0	29.3	10.4
	지역3)	서울	7.8	18.9	38.2	26.0	9.2
		광역시	7.1	17.0	36.7	30.3	8.8
시군부		5.0	14.0	37.2	31.6	12.3	
학교 주변	성4)	남자	10.6	18.4	43.5	20.8	6.7
		여자	7.4	25.0	49.9	14.9	2.7
	교급5)	중학생	9.9	24.3	45.0	16.2	4.6
		고교생	8.3	19.1	47.9	19.7	5.1
	지역6)	서울	9.4	20.2	46.4	19.1	4.9
		광역시	9.8	22.6	44.5	18.2	4.9
시군부		8.4	22.1	47.8	17.0	4.7	

통계: 1) $\chi^2=222.72^{***}$, 2) $\chi^2=2.07$, 3) $\chi^2=66.45^{***}$ 4) $\chi^2=154.28^{***}$,
5) $\chi^2=40.30^{***}$, 3) $\chi^2=11.41$

(15) 학교 급식의 안전도 평가

가정의 돌봄 기능 약화와 함께 교육기관의 역할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 급식은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이다. 청소년들의 학교 급식 여부와 그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2.5%만이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학교급식 서비스의 보급률은 충분히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전도에 있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한 반면 안전하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나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19] 학교 급식 여부 및 안전도

성별에 따른 학교급식 안전도 평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았고 안전하다는 평가는 더 적어서 학교 급식의 안전도를 더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학교급식의 안전도를 더 높이 평가했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시군부 청소년들이 대도시지역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교급식의 안전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9> 학교 급식 여부 및 안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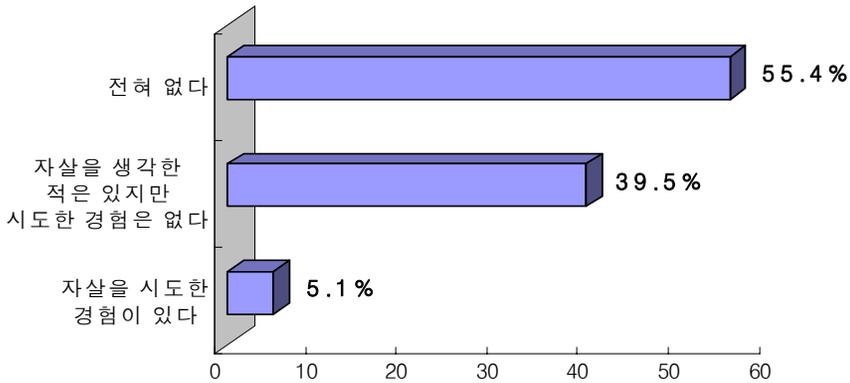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성1)	남자	2.3	13.7	21.8	35.5	22.3	4.3
	여자	2.7	8.5	28.0	40.2	19.1	1.4
교급2)	중학생	2.0	8.6	22.8	37.1	25.3	4.2
	고교생	3.0	13.6	26.5	38.3	16.8	1.8
지역3)	서울	2.3	13.5	25.9	37.8	18.2	2.3
	광역시	1.1	11.2	24.2	36.3	23.2	4.1
	시군부	3.6	9.3	24.0	38.5	21.8	2.8

통계: 1) $\chi^2=133.40^{***}$, 2) $\chi^2=146.81^{***}$, 3) $\chi^2=72.77^{***}$

2) 질적 생존권

(1) 청소년의 자살 의도 혹은 경험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91건에서 2002년 425건, 2003년 547건, 2004년 491건, 2005년 608건으로 01년 대비 2005년까지 5년 만에 55.5% 증가했다. 2004년 기준으로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2위가 자살로 10만 명당 9.7명 꼴로 자살을 했다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로 10만 명당 10.1명 꼴이다(통계청, 각년도). 실제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4%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39.5%는 자살에 대한 상상을 해 본적이 있었으며 5.1%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III-20]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상상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1.5배 더 많았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1.73배 더 많았다. 그러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하여서 학령차이나 지역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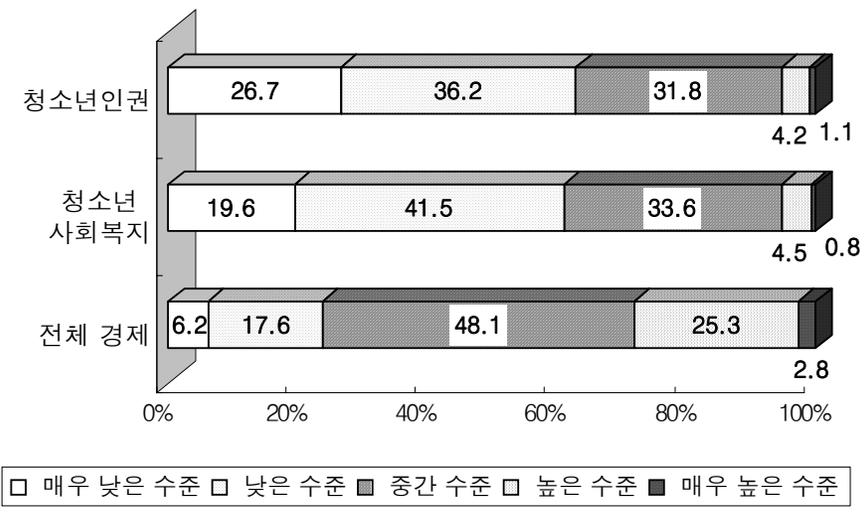
<표III-20>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

		전혀 없다	자살을 생각한 적은 있지만 시도한 경험은 없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성1)	남자	64.1	32.1	3.8
	여자	45.5	47.9	6.6
교급2)	중학생	56.7	38.1	5.1
	고교생	54.1	40.8	5.1
지역3)	서울	56.7	38.1	5.1
	광역시	54.2	40.8	4.9
	시군부	54.9	40.0	5.1

통계: 1) $\chi^2=239.42^{***}$, 2) $\chi^2=5.08$, 3) $\chi^2=3.39$

(2) 청소년 사회복지 및 인권보장수준 평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에 비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나 청소년 인권보장 측면의 발전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발전 수준에 대해서는 낮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3.8%에 불과했으나, 청소년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같은 응답이 절반을 넘는 61.1%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62.9%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림III-21] 우리나라의 각 분야 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는 남자 청소년이 31.7%로서 여자 청소년의 24%보다 더 높았으며, 또한 중학생(28.7%)이 고등학생(27.6%)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성1)	남자	7.9	16.0	44.5	28.0	3.7
	여자	4.3	19.5	52.2	22.1	1.9
교급2)	중학생	5.2	16.6	49.5	25.0	3.7
	고교생	7.1	18.6	46.8	25.5	2.1
지역3)	서울	7.2	16.4	45.6	27.4	3.3
	광역시	5.9	17.8	48.4	25.1	2.9
	시군부	5.5	18.6	50.1	23.4	2.4

통계: 1) $\chi^2=109.43^{***}$, 2) $\chi^2=32.16^{***}$, 3) $\chi^2=27.43^{***}$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서도 남자청소년들(6.8%)이 여자청소년들(3.4%)에 비해서, 중학생들(7.9%)이 고등학생들(2.9%)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고등학생들(4.7%)이 그 외 지역 고등학생들(광역시 5.3%, 시군부 5.7%)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표Ⅲ-22>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성1)	남자	21.5	37.6	34.0	5.7	1.1
	여자	17.5	45.9	33.1	3.1	0.3
교급2)	중학생	14.0	38.1	39.9	6.8	1.1
	고교생	24.7	44.6	27.9	2.4	0.5
지역3)	서울	22.7	41.9	30.7	4.2	0.5
	광역시	19.3	42.5	32.9	4.1	1.2
	시군부	17.1	40.6	36.6	5.0	0.7

통계: 1) $\chi^2=81.80^{***}$, 2) $\chi^2=271.44^{***}$, 3) $\chi^2=44.28^{***}$

청소년 인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낮은 평가 속에서도 역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평가가 낮은 경향도 역시 사회복지 수준 평가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표Ⅲ-23〉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성1)	남자	29.2	31.1	32.6	5.5	1.6
	여자	23.8	41.9	31.0	2.7	0.6
교급2)	중학생	20.2	34.1	38.1	6.1	1.5
	고교생	32.6	38.0	26.1	2.5	0.8
지역3)	서울	28.3	37.9	29.1	3.9	0.8
	광역시	26.9	35.9	31.6	4.1	1.5
	시군부	25.1	34.8	34.3	4.6	1.2

통계: 1) $\chi^2=119.32^{***}$, 2) $\chi^2=242.07^{***}$, 3) $\chi^2=2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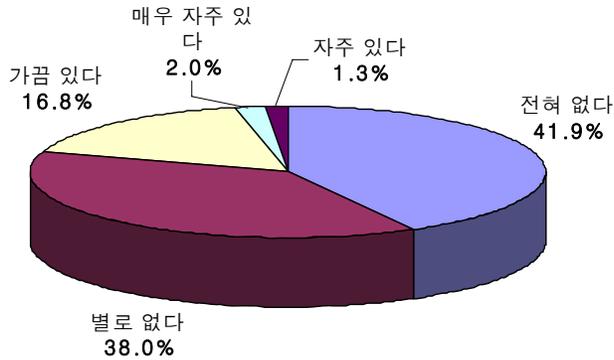
3. 청소년 보호권 실태

1) 신체적·경제적 피해 및 착취

(1) 신체적·정신적 장애 친구에 대한 놀림이나 따돌림 가해 실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79.9%)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20.1% 존재하고 있어 특별한 지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¹⁸⁾.

18)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왕따’ 등 집단 괴롭힘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가 반 친구에게 맞았다고 쉽게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대



[그림Ⅲ-22]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한 경험

이에 대한 성, 교급, 지역에 따른 분석에서 남학생(23.8%)이 여학생(16%)보다 장애친구들을 놀리거나 따돌림한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4>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림한 적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성1)	남자	37.9	38.4	19.8	2.1	1.9
	여자	46.4	37.5	13.6	1.8	0.6
교급2)	중학생	38.4	39.0	19.2	2.2	1.2
	고교생	45.1	37.0	14.7	1.7	1.4
지역3)	서울	41.4	37.8	17.5	1.9	1.3
	광역시	41.3	39.3	16.2	2.0	1.2
	시군부	42.8	37.3	16.7	2.0	1.3

통계: 1) $\chi^2=87.72^{***}$, 2) $\chi^2=42.08^{***}$, 3) $\chi^2=2.94$

처할 경우 해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 위기개입과 정책이란 책자에서 왕따 피해 대처법으로 우발적 싸움인지 지속적인 괴롭인지 확인하고, 일기장에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처받지 않게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법기관보다 전문상담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국민일보, 2007. 9. 7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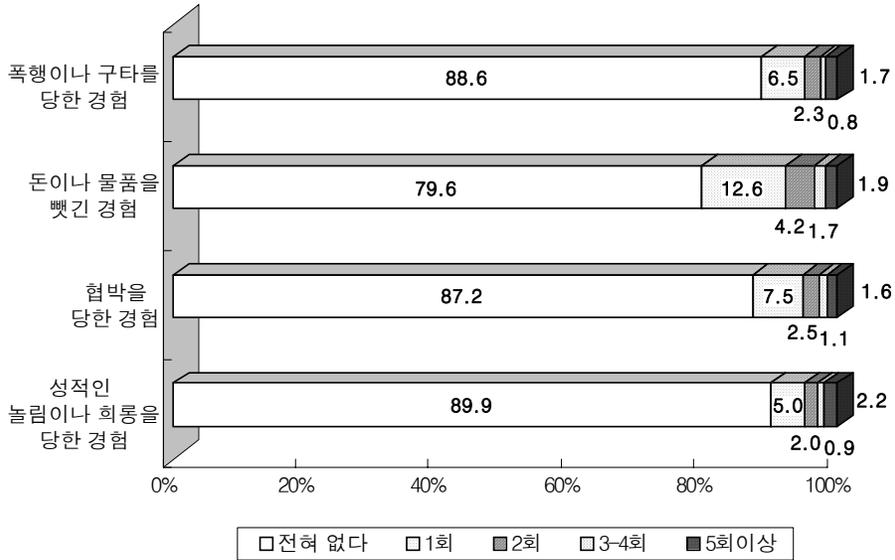
이에 대한 학생 심층면접 조사결과, 고등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한 학생이 더 많았고 다만 중학생 응답자 중 경험이 있다고 말한 학생들이 없다고 말한 학생보다 조금 더 많았다. 내용은 외모가 주었고 성격이나 마음이 안 맞아서 등의 이유를 말하였다.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 했다라고 말한 학생들도 몇몇 있었으며 그 중 왕따를 시킬 때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들을 놀리거나 따돌림한 경험은 많은 학생들의 경우 없었으나 5분의 1정도의 학생들은 놀리거나 따돌림의 가해 경험이 있었고 특히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같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행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험 실태

지난 1년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10.8%,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이 20.8%, 협박을 당한 경험이 12.2%,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이 10.1%로 나타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¹⁹⁾.

19) ‘.....홍성교육청이 최근 홍성지역 38개 초·중학교 학생 5,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에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가 울들어 신체적 폭행, 협박,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장소는 대다수가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을 꼽았으며 학교폭력의 주체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일 아니라서가 40%, 일이 커질 것 같아 25%, 보복이 두려워 22%의 순으로 응답해 대다수가 학교폭력에 무감각하거나 2차 피해를 염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전체의 2%가 대체로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형태는 협박과 욕설, 집단 괴롭힘, 금품갈취,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대전일보, 2007. 9. 9일자)



[그림III-23] 신체적·정신적 피해 경험 실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에 대해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남학생(16.4%)이 여학생(5.7%)에 비해 세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III-25>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83.6	9.1	3.5	1.1	2.7
	여자	94.3	3.6	1.0	0.5	0.6
교급2)	중학생	88.4	6.7	2.3	0.9	1.6
	고교생	88.7	6.3	2.4	0.8	1.8
지역3)	서울	89.8	5.5	2.0	1.0	1.7
	광역시	87.8	7.5	2.6	0.6	1.5
	시군부	88.0	6.7	2.5	0.9	1.9

통계: 1) $\chi^2=194.67^{***}$, 2) $\chi^2=1.46$, 3) $\chi^2=11.08$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남학생(23.8%)이 여학생(16.6%)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그리고 중학생(25.7%)이 고등학생(15.6%)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6>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76.2	14.3	4.8	2.0	2.7
	여자	83.4	10.7	3.6	1.3	0.9
교급2)	중학생	74.3	15.8	5.2	2.3	2.3
	고교생	84.4	9.7	3.3	1.1	1.4
지역3)	서울	77.8	14.7	4.2	1.7	1.6
	광역시	80.1	11.8	4.4	1.4	2.3
	시군부	80.9	11.3	4.2	1.9	1.8

통계: 1) $\chi^2=64.98^{***}$, 2) $\chi^2=106.62^{***}$, 3) $\chi^2=18.97^*$

협박을 당한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 역시 남학생(15.7%)이 여학생(9.5%) 보다 많은 것으로, 그리고 중학생(15.1%)이 고등학생(10.7%)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7>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84.3	8.8	3.2	1.4	2.2
	여자	90.5	6.0	1.8	0.9	0.9
교급2)	중학생	84.9	8.9	3.0	1.4	1.7
	고교생	89.3	6.2	2.1	0.9	1.5
지역3)	서울	87.9	7.2	2.4	1.1	1.4
	광역시	86.7	7.3	2.8	1.3	1.8
	시군부	87.0	7.8	2.5	1.1	1.7

통계: 1) $\chi^2=61.31^{***}$, 2) $\chi^2=30.50^{***}$, 3) $\chi^2=3.71$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에 따른 분석에서 여학생(11.4%)이 남학생(8.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Ⅲ-28>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91.1	3.8	1.9	0.8	2.4
	여자	88.6	6.4	2.1	1.0	1.9
교급2)	중학생	89.3	5.5	2.2	0.9	2.1
	고교생	90.5	4.7	1.7	0.9	2.2
지역3)	서울	90.0	4.9	2.3	1.0	1.8
	광역시	90.8	4.6	1.6	0.9	2.1
	시군부	89.4	5.4	1.9	0.7	2.5

통계: 1) $\chi^2=27.73^{***}$, 2) $\chi^2=4.91$, 3) $\chi^2=9.73$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경험 실태는 10명중 1명꼴로 다른 사람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5명중 1명꼴로는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구체화된 범죄의 행동으로 구분될 여지도 있는 현상으로 가해학생들의 지도와 피해학생들의 구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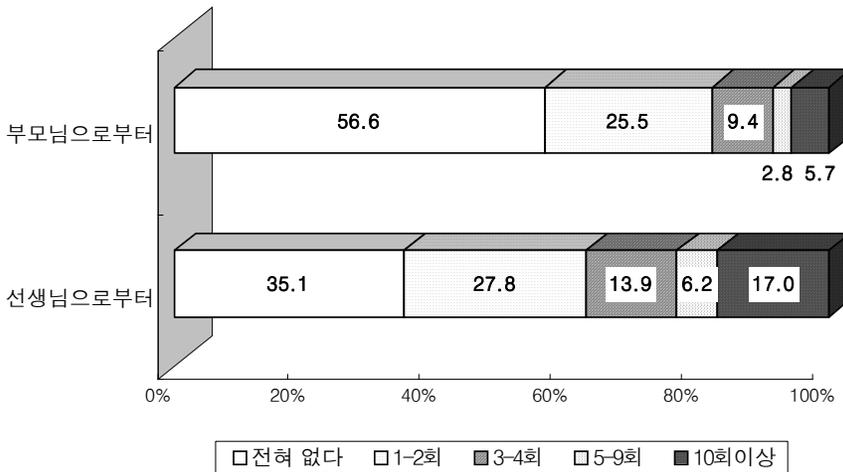
청소년기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각인되는 경험중 하나가 자라면서 받는 체벌일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의견과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는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논란을 부르는 의제이기도 하다²⁰⁾.

20) ‘부산지역에서 지난달 학생들이 학교에서 벌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인권단체가 학교 체벌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A 청소년인권단체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체벌 근절’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또 이날 오전 아수나로는 충주시교육청 앞에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에 관해 지난 1년간 경험한 체벌 횟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선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에서는 ‘전혀없다’는 응답이 56.6%, ‘1-2회’가 25%, ‘3-4회’가 9.4%, ‘5-9회’가 2.8%, ‘10회 이상’이 5.7%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최근 1년간 체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체벌을 받은 경우에는 1-2회의 체벌을 받았다는 청소년들이 4분의 1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에 있어서는 35.1%의 청소년들이 전혀 체벌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2회’가 28%, ‘3-4회’가 13.9%, ‘5-9회’가 6.2%, ‘10회이상’이 17.0%로 나타났다. 체벌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으나 10회이상 많은 체벌을 받은 청소년들도 17.0%나 되었다.

전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체벌 받은 경험보다는 선생님에게 체벌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체벌의 횟수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Ⅲ-24] 체벌 받은 경험

서도 1인 시위를 펼쳤으며...서울 수원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의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부산일보, 2007. 8.22일자)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을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학생(44.9%)이 여학생(41.6%)에 비해 체벌 경험이 다소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중학생(50.6%)이 고등학생(36.7%) 보다 더 많은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9〉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2회	3-4회	5-9회	10회이상
성1)	남자	55.1	25.9	10.0	2.8	6.2
	여자	58.4	25.0	8.7	2.8	5.1
교급2)	중학생	49.4	28.3	11.0	3.9	7.4
	고교생	63.3	22.9	7.8	1.8	4.2
지역3)	서울	54.6	25.5	11.0	3.2	5.7
	광역시	56.4	26.2	8.8	2.5	6.2
	시군부	58.6	25.0	8.3	2.6	5.4

통계: 1) $\chi^2=10.79^*$, 2) $\chi^2=151.81^{***}$, 3) $\chi^2=17.55^*$

선생님에게 받은 체벌의 경우는 남학생(71%)이 여학생(5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중학생(63.6%)이 고등학생(66.2%)이 다소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60.7%)이 시군부(67.9%) 보다 체벌 경험이 다소 적게 나타났다.

〈표Ⅲ-30〉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2회	3-4회	5-9회	10회이상
성1)	남자	29.0	26.2	14.6	6.8	23.3
	여자	41.9	29.7	13.0	5.5	9.9
교급2)	중학생	36.4	28.1	13.5	6.8	15.2
	고교생	33.8	27.6	14.2	5.6	18.8
지역3)	서울	39.3	26.1	13.6	5.2	15.7
	광역시	33.7	28.3	13.3	7.5	17.2
	시군부	32.1	29.1	14.4	6.2	18.1

통계: 1) $\chi^2=272.13^{***}$, 2) $\chi^2=20.7^{***}$, 3) $\chi^2=38.10^{***}$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학생들에게 주로 체벌이 이루어지던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등학교의 경우 훈육 보다는 입시준비에 대한 배려로 부모님에 의한 체벌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²¹⁾. 중학생들의 경우,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으로는 어릴 적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짓말, 심한 장난, 형제자매간의 다툼, 컴퓨터 사용, 학원수업에 빠지거나 성적문제 등으로 체벌을 받았다. 체벌시 주위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으로 신체의 아무 부위나 마구 맞다가 발로 밟힌 적도 있다는 학생과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별로 받지 않았으나 무서운 표정과 상처를 주는 심한 말로 주로 혼난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체벌시 부모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체벌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답변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못해서 체벌을 받았고 체벌 당시에는 화가 나서 반발감이 들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고 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다양하나 시험을 못 봐서 성적으로 체벌을 받은 경험을 말한 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다. 거짓말을 해서, 형제자매간의 다툼, 학원수업에 빠지거나 등의 이유로 체벌을 받았으며 남자친구를 사귀는 문제로 뺨을 맞은 여학생의 경험, 신체적 체벌과 함께 외출 정지와 핸드폰을 압수당한 경험도 있었다.

교사로부터 받는 체벌 경험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벌은 중학생들의 경우, 과제물을 안 해와서, 준비물을

21)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로 나눌 경우 지지적 관계는 미국>독일>스웨덴>일본>한국 순으로 강하게 나타난 반면 통제적 관계는 한국>미국>독일과 일본>스웨덴 순으로 강하게 나타나 한국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체벌을 가한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40%가량에 이른 반면 나머지 4개국은 10%에도 미치지 않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동아일보, 2007. 4.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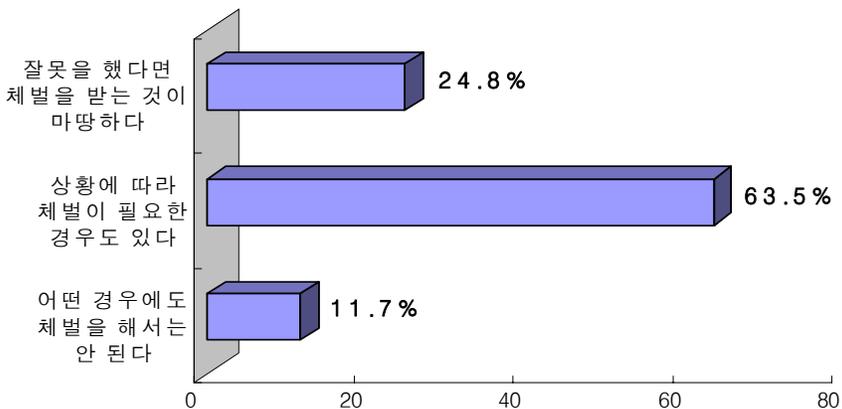
안 챙겨와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딴 짓을 해서, 지각을 해서, 성적의 이유 등으로 주로 일반적인 경우들을 말하였다. 한 학생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단체 체벌의 불만을 말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과제물을 안 해 와서, 지각을 해서, 성적의 이유 등이 주를 이루었다. 두발/복장의 규정을 어겨서 체벌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학생들의 과반수 정도는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분의 2 정도는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이 있어 부모 보다는 교사에게 체벌을 더 받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63.5%)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잘못을 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가 24.8%,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은 11.7%로 가장 적게 응답되었다.



[그림Ⅲ-25]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성, 교급, 지역별로 구분하여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29.4%)의 경우가 여학생(19.7%)보다 체벌의 필요성을 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았다.

〈표Ⅲ-31〉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잘못을 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성1)	남자	29.4	58.3	12.4
	여자	19.7	69.4	11.0
교급2)	중학생	27.4	62.1	10.6
	고교생	22.5	64.7	12.8
지역3)	서울	24.1	63.3	12.7
	광역시	24.8	64.0	11.2
	시군부	25.5	63.3	11.1

통계: 1) $\chi^2=99.43^{***}$, 2) $\chi^2=24.84^{***}$, 3) $\chi^2=4.20$

학생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체벌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잘못을 하면 체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부모님이 오해를 하였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 가능한 말로 했으면 좋겠다 등으로 부모님의 체벌에 대해 완강한 반대의 의견은 없었다.

응답자 중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고 부모님의 체벌에 대해 반대의 의견은 극소수였다.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²²⁾ 말로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잘 못 하였다면 어느

22)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재생회의는 체벌 자체의 허용은 있을 수 없

정도 체벌이 허용되어야 학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반대의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말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체벌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찬성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중학생들의 의견과 비슷하였는데 과반수의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였다. 단계적 체벌 즉, 처음에는 말로 경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통보하여 신체적 체벌 이전에 기회를 주는 형태로 몸으로 때우면 끝이다 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얼굴을 때리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체벌방법에 대한 지적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체벌이 없다면 가점제가 도입되어 성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체벌이 차라리 낫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에 반해 상당수의 학생들도 찬성의 입장을 표했으며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고 이유없이 체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의 체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한 두명 악역을 맡는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거나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르고 체벌로 인해 성적이 오르기도 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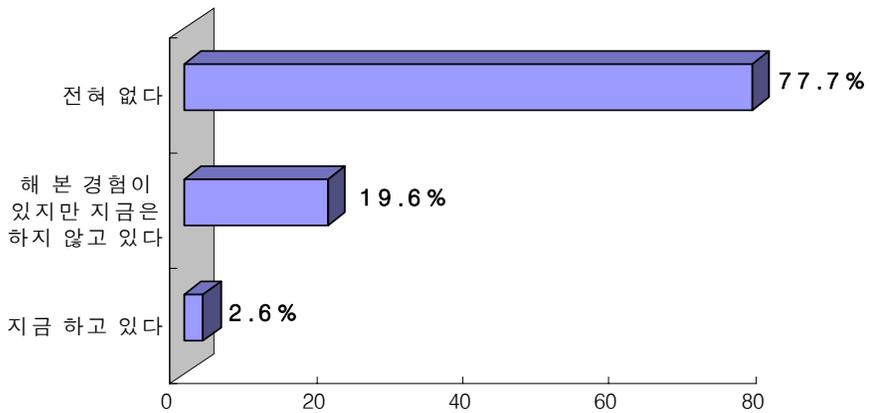
이상의 체벌에 대한 견해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모두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씩은 인정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체벌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아르바이트 경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77.7%)가 대부분이었으며,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19.6%)와 ‘지금 하고 있다’(2.6%)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분의 1 정도에 그쳤다²³⁾.

다면서도 60년전의 체벌 기준이 교사의 행동을 강력히 제약해 학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07. 1. 18일자)

- 23)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교육전문 취업포털 에듀잡(www.edujob.com)과 족보닷컴(www.zocbo.com)은 최근 자사 회원인 중고생 1천237명을 상대로 이번 여름방학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7.9%가 ‘학습보충’이라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학기간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응답이 20.7%로 뒤를 이었고 ‘아르바이트’(5.1%), ‘봉사활동’(4.4%) 등에 주력하겠다는 응답도 소



[그림Ⅲ-26]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해 본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에 대해 성, 교급, 지역의 하위 집단별로 구분하여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 남녀간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나 고등학생(29%)이 중학생(14.9%)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32>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해 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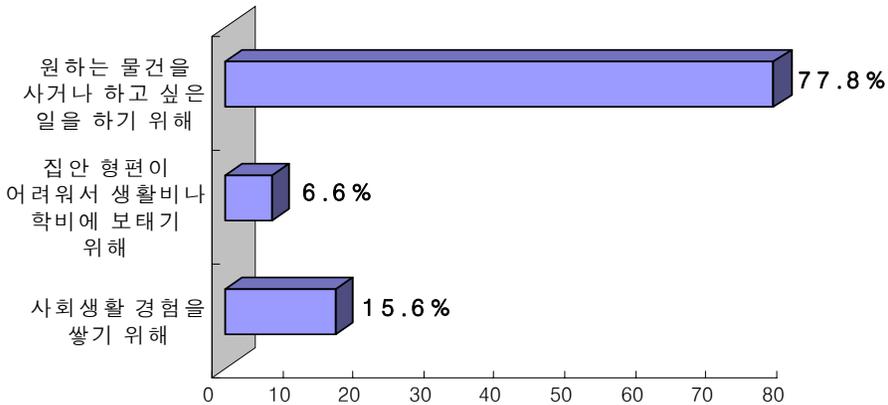
(단위 :%)

		전혀 없다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성1)	남자	78.4	19.1	2.5
	여자	76.9	20.3	2.8
교급2)	중학생	85.1	13.7	1.2
	고교생	71.0	25.1	3.9
지역3)	서울	77.6	19.2	3.2
	광역시	82.8	15.0	2.1
	시군부	74.8	22.7	2.4

통계: 1) $\chi^2=2.53$, 2) $\chi^2=202.66^{***}$, 3) $\chi^2=44.58^{***}$

수 나왔다.(연합뉴스, 2007. 6.27일자)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에 대해 묻은 결과,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6.6%)와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15.6%)라고 응답한 경우는 적었다²⁴⁾.



[그림Ⅲ-27]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를 성, 교급, 지역별로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가 그 동기인 경우가 남학생(75.2%)보다 여학생(80.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4년 7~9월 전국 중고생 2,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 때(46.8%) 용돈을 벌기 위해(74.8%)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한 아르바이트는 전단지 배포와 스티커 부착(36.3%), 일반음식점(22.6%), 패스트푸드점(10.3%), 건설현장(5.4%), 공장(4.3%) 순이었다. 구직 경로는 텔레비전/신문/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37.6%),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27.1%),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21.1%), 사업주가 직접 소개(6.1%)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좋은 점은 용돈을 풍족하게 쓸 수 있다(58.3%)는 점을 꼽았고,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77.2%나 됐다.’(한겨레, 2006.12.10일자)

〈표Ⅲ-3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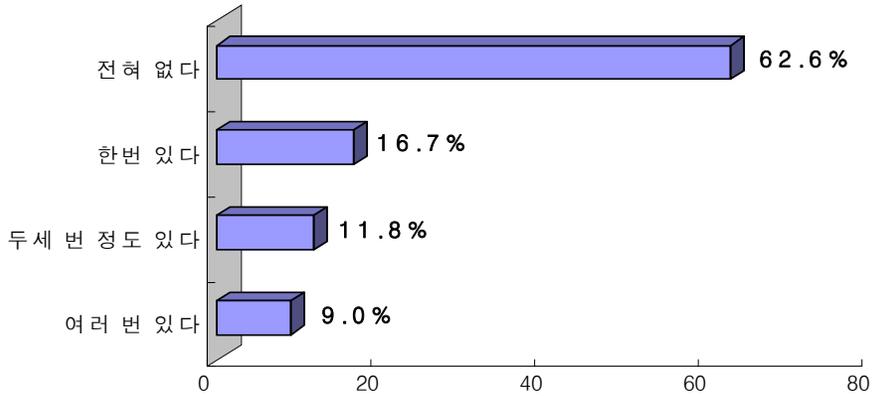
(단위 :%)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성1)	남자	75.2	7.3	17.4
	여자	80.6	5.8	13.6
교급2)	중학생	77.6	6.8	15.5
	고교생	77.9	6.5	15.6
지역3)	서울	75.4	7.0	17.7
	광역시	76.8	7.0	16.2
	시군부	80.1	6.2	13.8

통계: 1) $\chi^2=6.95^*$, 2) $\chi^2=0.07$, 3) $\chi^2=4.67$

역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이 62.6%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한번 이상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도 37.4%로 전체의 3분의 1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25)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albamon.com)과 알바누리(albanuri.co.kr)가 전국 고교 3학년생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 중고교 회원(아르바이트 경험자)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22.1%)와 근로조건을 예고 없이 변경한 경우(15.9%)가 많았고, 인격적 무시와 임금 체불, 성적 모욕과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한겨레, 2006.12.10일자)



[그림Ⅲ-28] 청소년이라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

청소년이란 이유로 아르바이트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성, 교급, 지역별로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여학생(40.1%)이 남학생(34.9%)보다 다소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9.2%)보다는 광역시(37.3%)와 시군부(36%)로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Ⅲ-34> 청소년이라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한번 있다	두세 번 정도 있다	여러 번 있다
성1)	남자	65.1	14.4	10.4	10.1
	여자	59.9	19.2	13.2	7.7
교급2)	중학생	66.2	14.5	11.3	8.0
	고교생	60.8	17.7	12.0	9.5
지역3)	서울	60.8	17.2	14.6	7.5
	광역시	62.7	18.0	10.6	8.7
	시군부	64.0	15.7	10.1	10.3

통계: 1) $\chi^2=13.12^{**}$, 2) $\chi^2=5.24$, 3) $\chi^2=10.94$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학생들 심층면접 결과, 중학생의 경우 24명중 6명이 있다고 답하였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24명중 9명이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생들의 경우 피면접자중 5명이 전단지, 1명이 신문배달을 한 경험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의 보수는 많지 않았고 주로 번 돈으로 용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공통적으로 장시간 오래 걸어야 해서 다리가 아팠다고 힘든 점을 얘기하였으며 돈 벌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몇몇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말하였다. 부모님은 대부분이 찬성하거나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으나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고 한명의 학생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앞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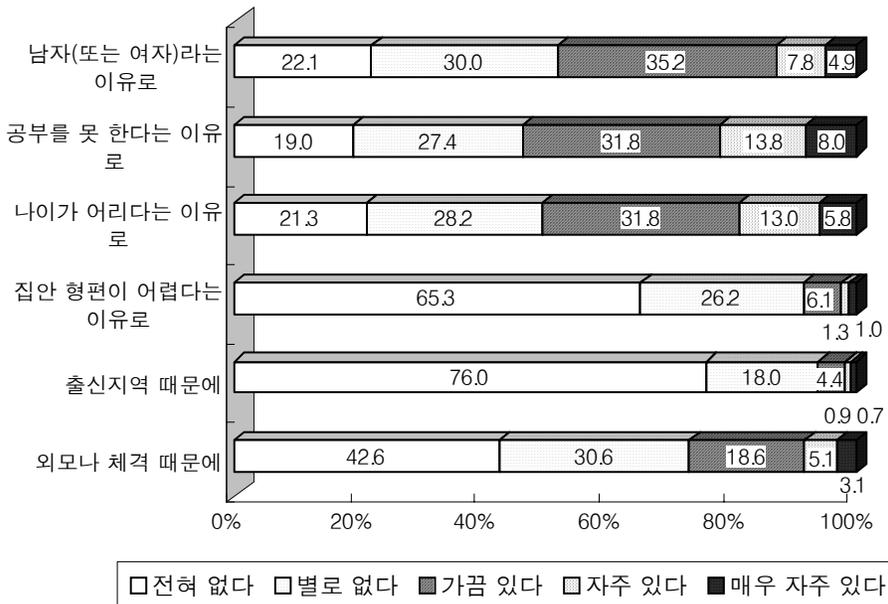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6명이 전단지, 3명이 패스트푸드점, 1명이 PC방(1명 복수경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다. 전단지 아르바이트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시간 오래 걸어야 해서 다리가 아팠다고 힘든 점을 얘기하였으며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어리다고 차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돈 벌기가 힘들다,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자, 아르바이트도 요령이 필요하다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말하였다. 번 돈으로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부모님께 드렸다는 학생들도 소수 있었다. 중학생에 비해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앞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모두 답하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전체 학생들의 5분의 1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들의 3분의 1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부당한 차별

(1) 일상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 경험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적이 있는 차별 경험을 성, 성적, 나이, 경제 수준, 출신지역, 외모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우선 성차별에 대한 응답은 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47.9%)가 없다는 응답(52.1%)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도 있다(53.6%)는 응답이 없다는 경우 보다 많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50.6%)도 과반수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8.4%), 출신지역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우(6%), 외모나 체격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우(26.8%)는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림Ⅲ-29] 일상생활에서의 부당한 차별 경험

성차별 경험에 대해 성, 교급,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여학생(50.8%)이 남학생(45.4%) 보다 다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급이나 지역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표Ⅲ-35>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27.3	27.4	30.8	7.6	7.0
	여자	16.2	33.0	40.1	8.1	2.6
교급2)	중학생	24.5	28.7	33.8	7.8	5.2
	고교생	19.9	31.2	36.4	7.8	4.7
지역3)	서울	22.8	30.2	34.8	7.9	4.3
	광역시	22.8	29.8	34.5	7.5	5.4
	시군부	21.1	30.0	35.9	7.9	5.1

통계: 1) $\chi^2=221.49^{***}$, 2) $\chi^2=23.91^{***}$, 3) $\chi^2=6.27$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겪은 경우를 성, 교급,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56.8%)이 중학생(50%)에 비해 다소 높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민감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Ⅲ-36>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21.4	27.0	29.1	13.4	9.2
	여자	16.3	27.9	34.8	14.4	6.7
교급2)	중학생	22.8	27.2	29.2	13.5	7.3
	고교생	15.5	27.6	34.1	14.1	8.6
지역3)	서울	20.1	27.8	30.7	13.8	7.6
	광역시	19.4	28.3	31.1	13.0	8.2
	시군부	17.8	26.5	33.0	14.3	8.3

통계: 1) $\chi^2=54.51^{***}$, 2) $\chi^2=64.10^{***}$, 3) $\chi^2=9.7$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을 몇 가지 하위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학생(55.2%)이 남학생(46.4%) 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54.2%)이 중학생(46.5%) 보다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Ⅲ-37>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25.3	28.2	28.9	11.1	6.4
	여자	16.7	28.1	35.0	15.1	5.1
교급2)	중학생	25.9	27.6	29.6	11.7	5.2
	고교생	17.1	28.7	33.8	14.1	6.3
지역3)	서울	20.3	25.8	33.0	14.4	6.5
	광역시	21.8	29.7	31.3	12.3	4.9
	시군부	21.9	29.3	30.9	12.1	5.7

통계: 1) $\chi^2=104.68^{***}$, 2) $\chi^2=81.94^{***}$, 3) $\chi^2=21.66^{**}$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성, 교급, 지역별 분석에서 하위집단별로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고 대체적으로 경제 수준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8> 집안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66.7	24.9	6.0	1.3	1.1
	여자	63.8	27.8	6.3	1.4	0.8
교급2)	중학생	73.3	21.1	4.1	0.8	0.7
	고교생	58.1	30.9	8.0	1.8	1.2
지역3)	서울	65.8	26.2	5.9	1.1	1.0
	광역시	64.6	26.6	6.4	1.7	0.7
	시군부	65.4	26.0	6.2	1.3	1.0

통계: 1) $\chi^2=10.37^*$, 2) $\chi^2=180.59^{***}$, 3) $\chi^2=4.57$

출신지역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39> 출신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76.8	16.6	4.6	1.0	1.0
	여자	75.0	19.6	4.3	0.8	0.4
교급2)	중학생	81.2	14.3	3.3	0.7	0.5
	고교생	71.2	21.4	5.5	1.0	0.9
지역3)	서울	80.8	15.0	3.0	0.5	0.5
	광역시	75.2	18.8	4.8	0.8	0.4
	시군부	72.1	20.2	5.4	1.2	1.1

통계: 1) $\chi^2=20.45^{***}$, 2) $\chi^2=94.02^{***}$, 3) $\chi^2=65.41^{***}$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학생(28.5%)이 남학생(25.2%)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다.

<표Ⅲ-40> 외모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 당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45.7	29.0	17.0	4.6	3.6
	여자	39.0	32.5	20.5	5.5	2.5
교급2)	중학생	46.3	28.8	17.6	4.6	2.6
	고교생	39.2	32.3	19.5	5.4	3.6
지역3)	서울	44.8	28.8	18.8	5.0	2.7
	광역시	41.7	32.6	17.9	5.3	2.5
	시군부	41.1	31.1	18.9	5.0	3.8

통계: 1) $\chi^2=44.95^{***}$, 2) $\chi^2=36.20^{***}$, 3) $\chi^2=18.14^*$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에 대한 심층면접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차별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피면접자의 과반수 이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차별을 당했다고 한 학생들의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는 체벌을 받을 때, 무거운 것을 들을 때 여학생과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으며 글씨체가 나빠서라는 이유도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소수이지만 가정에서 남동생과의 차별을 말하였다. 고등학생들은 과반수 정도의 학생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는 체벌을 받을 때, 힘든 일 할 때 여학생과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다. 한 여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의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남동생, 여동생과의 차별을 말하였다.

가정형편 때문에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면접자 중 중학생 한 명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라는 경험을 말하였고 응답자 중 이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유없이 욕하고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경험을 말하였고 응답자 중 이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외모 때문에 받은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중학생 응답자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남학생들이 예쁜 여학생이랑 비교를 한다던지 남자처럼 생겨서 선생님이 일을 시킨다, 친구들한테 장난식으로 놀림받은 경험을 말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서너명의 학생들만이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강하게 생겨서 체벌시 다른 학생들보다 세게 맞는거나 누구에게 딱히 놀림을 받은 적은 없으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성적으로 인한 차별은 중학생의 경우 경험이 없다고 말한 학생들이 더 많긴 하였으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주로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었다. 고등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경험이 없다고 말한 학생들이 더 많았으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었으며 학원에서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학생 중에는 계속 공부를 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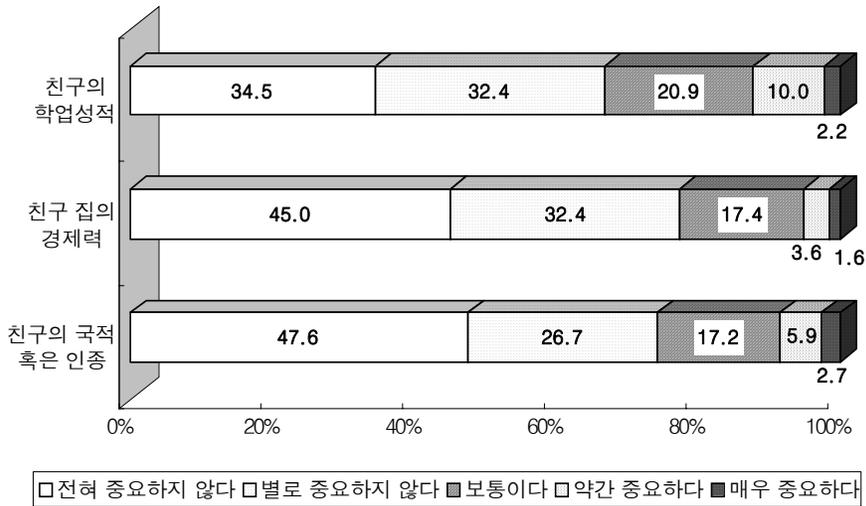
편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 실태를 요약해 보면,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성적에 의한 차별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대신 집안형편이나 출신지역, 외모에 의한 차별 대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업을 강조하는 학교 혹은 사회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기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인식이 크다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의식의 연장선으로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성적 평등의식 함양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2) 친구 교체시 차별 요소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친구의 학업성적’의 경우 ‘중요하지 않다’(66.5%)가 ‘보통이다’(20.9%)나 ‘중요하다’(12.2%)보다 매우 많은 응답을 보였다. ‘친구 집의 경제력’의 경우도 ‘중요하지 않다’(77%)가 ‘보통이다’(17.4%)와 ‘중요하다’(5.2%)보다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친구의 국적 혹은 인종’은 ‘중요하지 않다’(74.6%)가 ‘보통이다’(17.2%)와 ‘중요하다’(8.6%)보다 많은 응답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에서 세 가지의 고려 요소 중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친구의 학업성적’(12.2%), ‘친구의 국적 혹은 인종’(8.6%), ‘친구 집의 경제력’(5.2%)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세 요소 모두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30] 친구 교제시 주요 고려 요소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친구의 학업성적을 주요 고려 요소로 보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성, 교급,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중학생(61.1%)보다 고등학생(72.2%)이 친구의 학업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41> 친구의 학업 성적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성1)	남자	35.1	30.1	21.4	10.3	3.1
	여자	33.8	35.0	20.4	9.7	1.1
교급2)	중학생	29.6	31.5	24.0	12.2	2.7
	고교생	39.0	33.2	18.1	8.0	1.7
지역3)	서울	33.1	31.9	20.9	12.0	2.0
	광역시	34.2	32.4	22.1	9.0	2.3
	시군부	35.9	32.8	20.2	8.9	2.2

통계: 1) $\chi^2=48.12^{***}$, 2) $\chi^2=109.13^{***}$, 3) $\chi^2=20.36^{**}$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친구 집의 경제력을 고려하는가를 성, 교급,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74.2%) 보다 고등학생(80.4%)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Ⅲ-42> 친구 집의 경제력

(단위 :%)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성1)	남자	45.1	30.4	18.3	3.8	2.5
	여자	45.0	34.7	16.3	3.4	0.5
교급2)	중학생	40.8	33.4	19.4	4.7	1.6
	고교생	48.9	31.5	15.5	2.5	1.6
지역3)	서울	43.4	31.9	18.4	4.4	1.9
	광역시	45.1	32.7	17.6	3.2	1.4
	시군부	46.4	32.6	16.4	3.1	1.5

통계: 1) $\chi^2=55.64^{***}$, 2) $\chi^2=64.13^{***}$, 3) $\chi^2=15.28$

친구의 국적이나 인종이 친구를 사귀는데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성, 교급,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71.7%) 보다 고등학생(76.5%)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Ⅲ-43> 친구의 국적 혹은 인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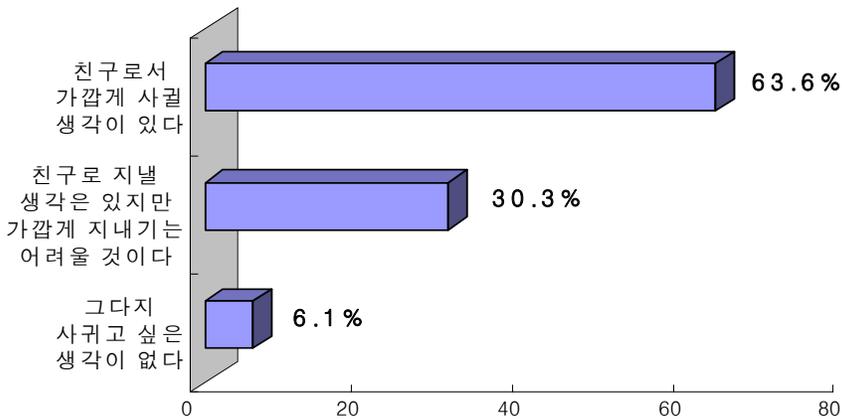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성1)	남자	47.2	24.2	18.0	6.6	4.0
	여자	48.0	29.4	16.3	5.0	1.3
교급2)	중학생	44.9	26.8	19.0	6.5	2.8
	고교생	50.0	26.5	15.5	5.3	2.7
지역3)	서울	48.4	25.6	17.4	6.1	2.5
	광역시	48.2	26.1	17.7	6.1	2.0
	시군부	46.5	28.0	16.7	5.5	3.4

통계: 1) $\chi^2=72.24^{***}$, 2) $\chi^2=25.26^{***}$, 3) $\chi^2=14.04$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에 있어 친구의 학업성적, 국적이나 인종, 집안의 경제수준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기본적으로 세 요소 모두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친구로서의 견해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정의 또래 청소년에 대한 친구로서의 관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의 ‘친구로서 가깝게 사귄 생각이 있다’(63.6%)고 응답했으나,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친구로 지낼 생각은 있지만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30.3%), 그리고 ‘그다지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6.1%)라는 다소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그림Ⅲ-31]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또래 청소년에 대한 생각

이에 대한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고등학생(66.6%)이 중학생(60.2%)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받아들이는데 다소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44〉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또래 청소년에 대한 생각

(단위 :%)

		친구로서 가깝게 사귄 생각이 있다	친구로 지낼 생각은 있지만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다지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성1)	남자	59.1	33.4	7.6
	여자	68.6	27.0	4.4
교급2)	중학생	60.2	33.0	6.8
	고교생	66.6	27.9	5.5
지역3)	서울	64.4	29.9	5.6
	광역시	62.7	31.4	5.9
	시군부	63.3	30.1	6.6

통계: 1) $\chi^2=73.94^{***}$, 2) $\chi^2=30.40^{***}$, 3) $\chi^2=3.18$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친구로 사귄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친구로 사귀는데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근 변화에 청소년들이 아직 정서적인 동화와 동류의식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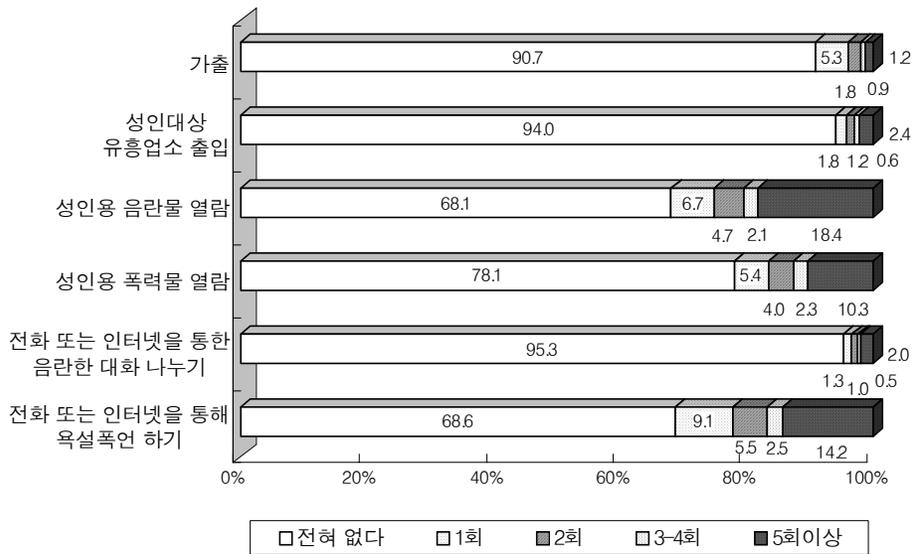
3) 일탈행동과 고민

(1) 일탈 행동 실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체계가 약화됨으로써 통제력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일탈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쉼터 입소자들 중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는 경우가 6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된다면 가출 청소년도 함께 증가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소년 가출 경험률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학생)의 경우 1999년 8.6%에서 2006년 19.0%로 증가하였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도 64.8%에서 89.3%로 증가했

다. 2004년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가출 청소년은 16,89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청소년쉼터 보호 청소년은 6회 이상의 상습가출(35.7%),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3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쉼터 설치 등 보호시설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최근 1년 동안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가출경험이 9.3%, 성인대상 유흥업소 출입이 6%, 성인용 음란물 열람이 31.9%, 성인용 폭력물 열람이 21.9%,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대화 나누기가 4.7%,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이나 폭언하기가 31.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정보통신매체 활용상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32] 최근 1년간의 일탈 행동 경험

가출 경험에 대한 성, 교급, 지역별 실태를 살펴보면, 남학생(10.6%)이 여학생(7.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교급이나 지역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Ⅲ-45〉 가출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89.4	5.9	2.2	0.9	1.6
	여자	92.2	4.7	1.4	1.0	0.8
교급2)	중학생	91.2	5.3	1.5	1.0	1.1
	고교생	90.3	5.4	2.1	0.9	1.3
지역3)	서울	90.3	5.2	2.0	1.1	1.4
	광역시	90.4	6.3	1.5	1.1	0.7
	시군부	91.3	4.8	1.9	0.7	1.3

통계: 1) $\chi^2=22.66^{***}$, 2) $\chi^2=5.48$, 3) $\chi^2=13.34$

성인대상 유흥업소 출입은 남학생(7.6%)이 여학생(4.3%)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고등학생(9.2%)이 중학생(2.6%)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6〉 성인대상 유흥업소 출입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92.4	2.2	1.3	0.6	3.4
	여자	95.7	1.4	1.1	0.6	1.2
교급2)	중학생	97.4	1.0	0.7	0.2	0.8
	고교생	90.8	2.6	1.7	1.0	3.8
지역3)	서울	92.8	2.2	1.1	0.9	3.0
	광역시	94.7	1.5	1.5	0.2	2.2
	시군부	94.5	1.7	1.1	0.7	2.0

통계: 1) $\chi^2=43.63^{***}$, 2) $\chi^2=134.51^{***}$, 3) $\chi^2=17.68^{**}$

성인용 음란물 열람은 남학생(46.6%)이 여학생(15.3%) 보다 현격히 많았으며, 고등학생(40.4%)이 중학생(22.6%) 보다 두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7> 성인용 음란물 열람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53.4	7.1	5.8	3.0	30.8
	여자	84.7	6.4	3.5	1.2	4.2
교급2)	중학생	77.4	6.3	4.0	2.0	10.3
	고교생	59.6	7.2	5.3	2.2	25.7
지역3)	서울	67.9	6.3	4.1	2.0	19.8
	광역시	64.6	6.4	5.3	2.6	21.0
	시군부	70.4	7.3	4.9	2.0	15.5

통계: 1) $\chi^2=938.61^{***}$, 2) $\chi^2=304.88^{***}$, 3) $\chi^2=34.21^{***}$

성인용 폭력물 열람에서도 남학생(32.3%)이 여학생(10.2%) 보다 많았으며, 고등학생(28.5%)이 중학생(14.7%) 보다 많았다.

<표Ⅲ-48> 성인용 폭력물 열람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67.7	6.7	5.5	3.3	16.8
	여자	89.8	3.8	2.2	1.2	3.1
교급2)	중학생	85.3	4.5	3.1	1.5	5.6
	고교생	71.5	6.1	4.7	3.0	14.6
지역3)	서울	77.5	5.0	3.3	2.1	12.3
	광역시	76.1	5.9	4.7	2.8	10.5
	시군부	79.8	5.3	4.1	2.2	8.6

통계: 1) $\chi^2=517.03^{***}$, 2) $\chi^2=211.49^{***}$, 3) $\chi^2=28.13^{***}$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대화 나누기는 남학생(6.2%)이 여학생(3.1%) 보다 다소 높았으나 교급이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Ⅲ-49>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대화 나누기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93.8	1.6	1.3	0.5	2.8
	여자	96.9	1.0	0.6	0.4	1.0
교급2)	중학생	95.5	1.3	0.9	0.5	1.9
	고교생	95.1	1.4	1.1	0.5	2.0
지역3)	서울	94.5	1.5	1.1	0.5	2.5
	광역시	95.7	1.2	1.3	0.4	1.5
	시군부	95.7	1.3	0.7	0.4	1.8

통계: 1) $\chi^2=43.5^{***}$, 2) $\chi^2=0.97$, 3) $\chi^2=10.25$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는 남학생(39.6%)이 여학생(22.1%) 보다 많았으며 중학생(33.2%)이 고등학생(29.8%)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Ⅲ-50>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폭언 하기

(단위 :%)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이상
성1)	남자	60.4	8.7	6.9	2.9	21.0
	여자	77.9	9.5	4.0	2.0	6.6
교급2)	중학생	66.8	11.2	5.4	3.0	13.6
	고교생	70.2	7.1	5.6	2.1	14.9
지역3)	서울	69.4	9.3	4.8	2.5	14.0
	광역시	68.7	7.9	6.2	2.9	14.4
	시군부	67.8	9.6	5.9	2.3	14.3

통계: 1) $\chi^2=354.25^{***}$, 2) $\chi^2=41.21^{***}$, 3) $\chi^2=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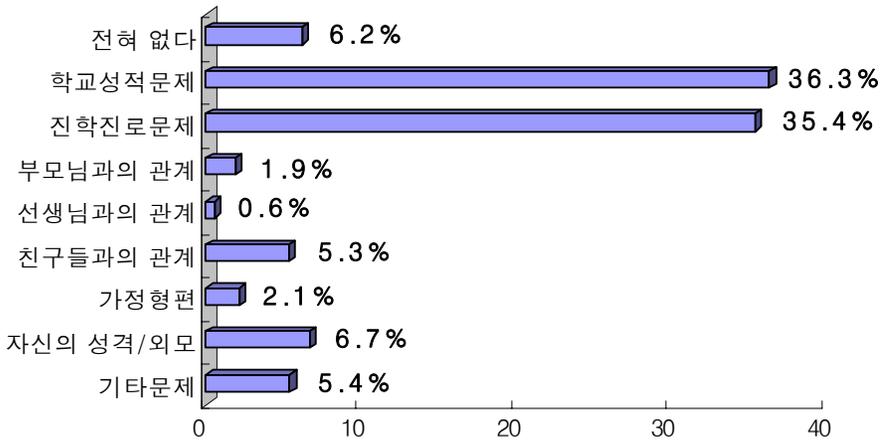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실태를 요약하자면, 3분의 1정도의 학생들이 성인용 음란물을 보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었으며, 26)

- 26)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서울지역 5개 보호관찰소(법무부 산하)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135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운영

5명중 1명꼴로는 성인용 폭력물을 보고 있었다. 더구나 가출의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1회 이상의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청소년들이 현재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중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학교성적문제(36.3%)와 진학진로문제(35.4%)로 나타나 성적과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짐작케 해준다.



[그림Ⅲ-33]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를 성, 교급, 지역에 따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도 모든 하위집단에서 학교성적문제와 진학진로문제를 가장 심한 현재의 걱정거리라고 응답하였다.

하고 청소년의 수강명령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타인정보남용, 온라인 게임 중독,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정보윤리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사이버범죄 수강명령프로그램을 이수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불법다운로드, 음란물, 게임중독, 타인 정보의 오·남용, 온라인 게임중독, 정보출처 명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에 대한 인식과 타인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윤리 인식이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6. 3. 2일자)

<표Ⅲ-51>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걱정거리

(단위 :%)

		전혀 없다	학교 성적 문제	진학 진로 문제	부모님 과의 관계	선생님 과의 관계	친구들 과의 관계	가정 편	자신의 성격/ 외모	기타 문제
성1)	남자	8.1	38.8	33.4	1.8	0.6	4.1	2.1	5.5	5.7
	여자	4.1	33.6	37.7	2.1	0.5	6.7	2.1	8.1	5.1
교급2)	중학생	7.7	40.3	28.0	2.0	0.5	7.1	1.7	7.0	5.6
	고교생	4.9	32.7	42.2	1.9	0.6	3.7	2.5	6.5	5.2
지역3)	서울	6.4	37.7	36.3	2.0	0.5	4.2	2.0	6.2	4.7
	광역시	6.8	38.2	33.2	1.5	0.4	5.7	2.1	5.9	6.2
	시군부	5.7	34.0	35.9	2.2	0.8	6.0	2.2	7.6	5.6

통계: 1) $\chi^2=107.37^{***}$, 2) $\chi^2=187.99^{***}$, 3) $\chi^2=3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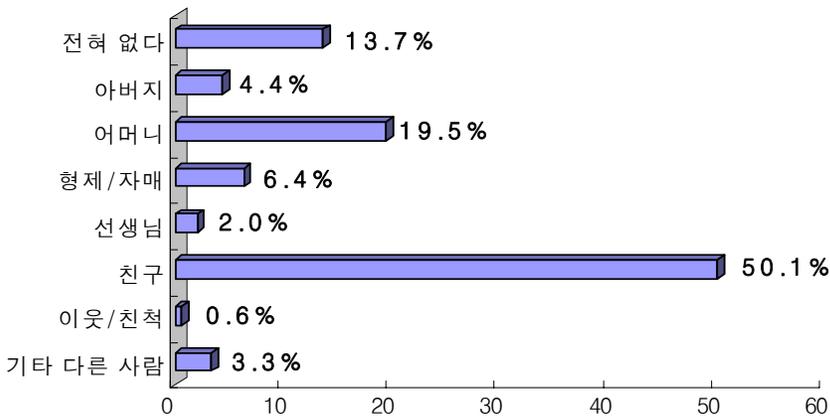
이에 대한 학생심층면접조사 결과는 중학생 피면접자중 15명의 학생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고 답하였는데 성적, 공부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키, 체중, 머리 기르는 문제, 친구관계, 한국이 질려서 이민이나 유학 등 떠나고 싶다는 의견 학교생활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 힘들고 친구들을 못 믿겠다는 여학생의 고민도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1명의 학생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고 답하였고 성적, 공부, 대학진학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으며, 소수의 의견으로는 체중, 키, 부모님 관계, 남자친구, 대학등록금, 취업,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본모습을 모르고 오해하는 점 등을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3분의 1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성적과 진학진로 문제가 본인의 가장 큰 걱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업지향적인 그리고 대학입학에 매진하게 되어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실태라고 할 수 있겠다.

(3) 고민/걱정에 대한 상담자 선택 실태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구와 털어놓고 상담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친구’(50.1%)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머니(19.5%)로 나타났는데, 전혀 없다는 응답도 13.7%나 되어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해소가 어려운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Ⅲ-34] 고민/걱정거리 상담 상대

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여학생의 경우가 상담의 대상으로 ‘친구’(56.2%)와 어머니(20.3%)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남학생의 경우(친구 44.7%, 어머니 18.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학생(17%)의 경우가 여학생(10%) 보다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상담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많아 남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표Ⅲ-52〉 고민/걱정거리 상담 상대

(단위 :%)

		전혀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기타 다른 사람
성1)	남자	17.0	6.6	18.7	6.1	2.6	44.7	0.7	3.7
	여자	10.0	1.9	20.3	6.7	1.4	56.2	0.6	2.9
교급2)	중학생	13.5	4.7	21.7	6.3	2.1	48.0	0.8	3.0
	고교생	13.9	4.1	17.5	6.4	2.0	52.0	0.5	3.7
지역3)	서울	14.1	4.1	19.7	6.0	2.0	50.0	0.8	3.3
	광역시	14.1	4.6	20.7	6.1	1.3	49.4	0.6	3.3
	시군부	13.2	4.5	18.5	6.9	2.5	50.6	0.5	3.4

통계: 1) $\chi^2=209.92^{***}$, 2) $\chi^2=27.32^{***}$, 3) $\chi^2=15.44$

이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고민/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를 먼저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주로 엄마),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며 일부 친척(형, 누나, 이모)이라고 하는 학생도 소수 있었다. 상대가 없다, 혼자 삭힌다고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과의 상의는 친구들보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어른들하고 말하기 힘들다, 일이 커질까봐 라는 등의 이유를 말하였다. 인터넷 용어 사용이 평상화 되어 세대차가 나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신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 아직 상의할 만한 고민거리가 없다는 학생도 일부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대부분이 친구를 먼저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주로 엄마),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며 형, 누나를 말한 학생도 소수 있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

27)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몇 달 전부터 책을 펴면 글자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는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 정신과를 찾을까 고민하던 중 상담기관을 찾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았다. 그는 심리검사 결과 부모에게서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만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불안지수’와 ‘스트레스지수’는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2007. 4.19일자)

부모님과 상담에서는 그 내용이 주로 진로, 대학진학 등의 내용이고 있었던 일을 나열하고 혼이 안 날만한 말만 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부모님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힘들다, 잔소리하실 것 같더라는 등의 이유를 말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의 고민/걱정거리의 상담자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친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중 1명은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상의하고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결과는 전혀 상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0명중 1명 이상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조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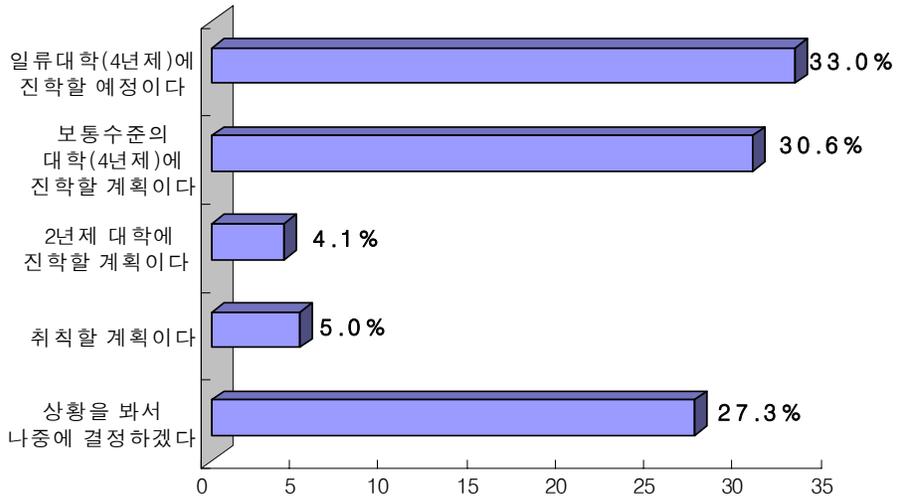
4. 청소년 발달권 실태

1) 직업적 발달

(1) 고교 졸업후의 진로 결정

2006년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성적,적성) (35.0%)」, 「직업(29.6%)」, 「외모(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업」에 대한 고민은 2002년 6.9%에서 2006년 29.6%로 22.7% point 증가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이 결과는 학업에 이어 취업이 청소년들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늦은 경제활동 참가는 성인기로의 이행도 늦추고, 결혼과 출산도 늦춰 결과적으로 출산률 감소와 노동인구의 감소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직업경력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학력인플레라고 할 만큼 지나치게 오랜 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를 질문한 결과, 당장 취직을 하겠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63.6%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27.3%는 아직 진로를 확정짓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림Ⅲ-35]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선택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학진학을 생각하는 비율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많았고 장래 진로를 확정하지 않은 비율은 남자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진학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당연히 장래 진로를 확정하지 않은 비율은 중학생이 더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뚜렷해서 서울 지역 청소년들은 대학진학 의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군부 지역은 미결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Ⅲ-53〉 고등학교 졸업후 진로 선택

(단위 :%)

		일류대학 (4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보통수준의 대학(4년제) 에 진학할 계획이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취직할 계획이다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성1)	남자	32.9	29.3	3.7	5.0	29.0
	여자	33.2	32.0	4.5	5.0	25.3
교급2)	중학생	32.4	26.4	2.3	4.0	34.9
	고교생	33.6	34.4	5.7	5.9	20.3
지역3)	서울	39.8	29.3	3.9	3.1	23.9
	광역시	33.8	29.9	4.3	5.4	26.6
	시군부	26.7	32.2	4.1	6.5	30.6

통계: 1) $\chi^2=15.19^{**}$, 2) $\chi^2=229.00^{***}$, 3) $\chi^2=12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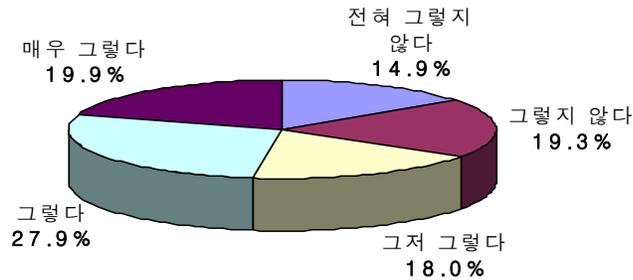
(2) 괜찮은 직업 획득의 조건으로 대학진학 인식

2006년 청소년개발원(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5개국 비교조사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부와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성적문제로 부모와 갈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과열화된 고등교육 수요와 연결된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학력차별의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학력차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괜찮은 직업 획득과 대학학력이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했다.

최근의 취업관련 연구는 단순히 양적인 취업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보장, 그리고 적절한 여가시간을 제공하는 괜찮은 직장(Decent job)에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 즉 질적인 취업률을 더욱 중시한다. 그만큼 취업시장이 괜찮은 직장과 그렇지 못한 직장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괜찮은 직장에의 취업이 대학 졸업자에게만 제공된다면 학력인플레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괜찮은 직장에의 취업에 대학졸업이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7.8%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들의 34.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서 취업의 기본 조건으로 대학진학을 중시하는 비율이 실제 대학진학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36]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대학졸업과 좋은 일자리 취업의 관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시군부 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는 광역시 지역 청소년이, 광역시 지역 보다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좋은 직장에의 취업에 대학졸업장이 미치는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54>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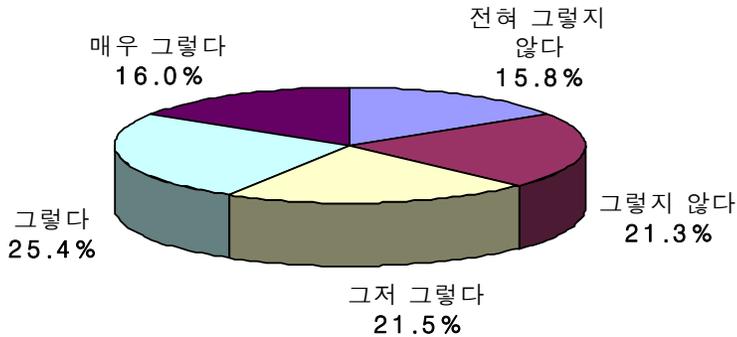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7.3	17.4	18.5	26.3	20.5
	여자	12.1	21.5	17.4	29.7	19.2
교급2)	중학생	16.2	20.3	18.5	26.1	18.8
	고교생	13.7	18.4	17.5	29.5	20.9
지역3)	서울	13.3	17.5	17.2	28.4	23.6
	광역시	15.1	20.3	16.9	28.6	19.0
	시군부	16.2	20.3	19.3	27.0	17.2

통계: 1) $\chi^2=55.31^{***}$, 2) $\chi^2=22.58^{***}$, 3) $\chi^2=46.38^{***}$

(3) 배우자 획득의 조건으로 대학진학 중요도 인식

학력차별의식은 취업 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배우자 선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46.9%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37.1% 였다.



[그림Ⅲ-37]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들(40.8%)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42%)이 이 의견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36.2%)에 비해서 고등학생(46%)이 더 동의했으며,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좋은 배우자와 대학졸업이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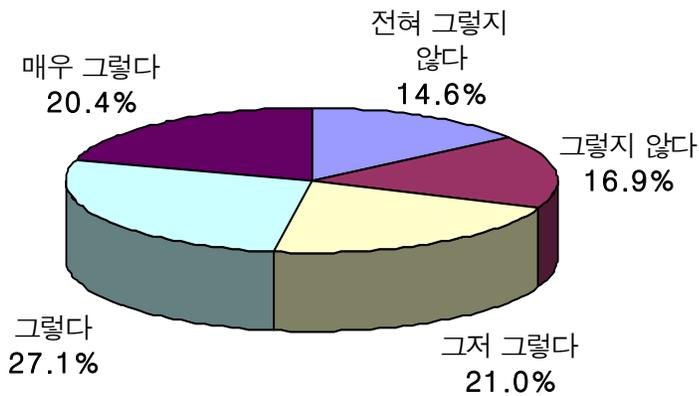
<표Ⅲ-55>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7.6	20.1	21.5	23.5	17.3
	여자	13.8	22.6	21.5	27.5	14.5
교급2)	중학생	18.0	22.7	23.1	22.4	13.8
	고교생	13.9	20.0	20.1	28.1	17.9
지역3)	서울	13.8	20.0	20.8	26.5	18.9
	광역시	17.0	20.0	21.1	26.3	15.6
	시군부	17.0	23.2	22.4	23.8	13.6

통계: 1) $\chi^2=38.79^{***}$, 2) $\chi^2=69.77^{***}$, 3) $\chi^2=47.19^{***}$

(4) 존중받을 자격으로 대학진학 중요도 인식

대학진학과 존중받을 자격을 연결짓는 것은 학력차별주의의 전형적 가치관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47.5%는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해서 이런 학력차별주의 인식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38]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들(45%)보다는 여자 청소년들(50.5%) 중에 이런 학력차별의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력에 따른 분석결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뚜렷한 학력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광역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광역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시군부 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더 뚜렷한 학력차별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Ⅲ-56>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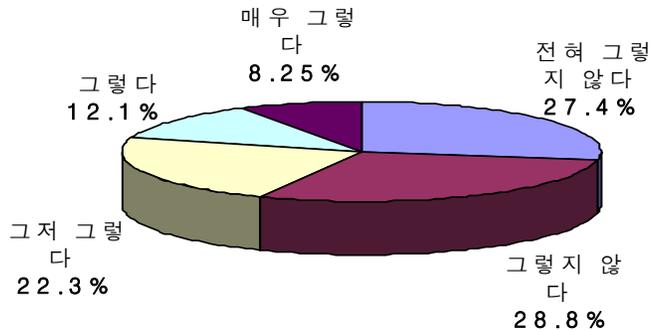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6.8	16.9	21.4	24.1	20.9
	여자	12.2	16.9	20.5	30.5	20.0
교급2)	중학생	17.4	19.4	22.3	23.3	17.5
	고교생	12.0	14.5	19.8	30.5	23.1
지역3)	서울	12.8	15.8	20.7	26.5	24.3
	광역시	15.0	16.6	20.7	28.0	19.7
	시군부	16.0	18.0	21.4	27.0	17.5

통계: 1) $\chi^2=50.63^{***}$, 2) $\chi^2=120.91^{***}$, 3) $\chi^2=43.786^{***}$

2) 인지적 발달

(1) 사교육과 대학진학의 관계에 대한 인식

지나친 학력차별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비정상적인 사교육 비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는 문장에 대해 동의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20.3%를 차지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들 56.2보다 35.9%나 적었다. 이는 적어도 청소년들은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Ⅲ-39]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

사교육과 대학진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서 남자 청소년들의 19.8%가 이 의견에 동의한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21.5%가 동의했다. 사교육과 대학진학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율의 차이는 학령에 따른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15.4%만이 이 의견에 동의한 반면, 고등학생은 25.4%가 여기에 동의해 그 격차가 10% 였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사교육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7〉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29.7	27.8	22.8	10.5	9.3
	여자	25.4	30.7	22.3	14.2	7.3
교급2)	중학생	32.2	30.7	21.8	9.0	6.4
	고교생	23.5	27.8	23.3	15.3	10.1
지역3)	서울	24.4	27.7	23.4	14.5	9.9
	광역시	29.8	29.7	21.1	11.8	7.7
	시군부	29.3	30.1	22.7	10.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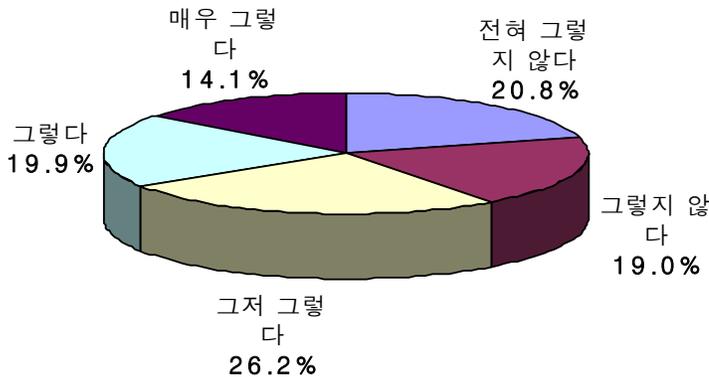
통계: 1) $\chi^2=43.04^{***}$, 2) $\chi^2=135.60^{***}$, 3) $\chi^2=48.46^{***}$

(2) 가정배경과 대학진학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006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액은 상위 10%가 월 73만 1천원인 반면, 하위 10%는 10만 8천원으로 그 차이가 10.2배에 달했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지역별,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따른 차이를 확대하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별 학업성취도 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6)에 따르면 서울지

역 청소년들은 74.46점, 광역시 77.84점, 중소도시 76.59점, 읍면 54.37점으로 지역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가정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청소년들 중의 34%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청소년은 39.8%로 나타났다.



[그림Ⅲ-40]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중요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었지만 전반적인 동의 수준에서는 34%와 33.9%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단지 얼마나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즉 동의하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은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중학생의 28.9%가 여기에 동의한 반면, 고등학생 중에서는 38.7%가 동의해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중에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서울지역 청소년들(37.7%)이 광역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34.1%)보다, 광역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시군부 지역 거주 청소년들(30.6%)보다 좋은 대학진학에 있어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8>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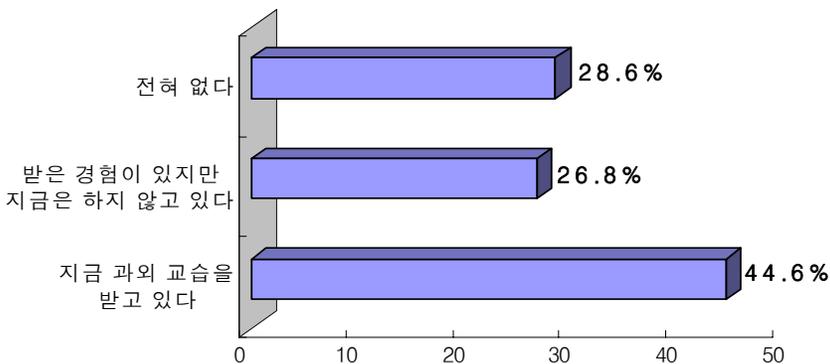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22.0	18.4	25.6	17.9	16.1
	여자	19.3	19.8	26.9	22.2	11.7
교급2)	중학생	24.1	20.2	26.9	17.0	11.9
	고교생	17.7	18.0	25.6	22.6	16.1
지역3)	서울	18.7	18.8	24.8	21.0	16.7
	광역시	21.6	18.0	26.2	20.0	14.1
	시군부	22.1	19.9	27.4	18.8	11.8

통계: 1) $x^2=47.00^{***}$, 2) $x^2=85.85^{***}$, 3) $x^2=37.87^{***}$

(3) 사교육 경험

지난 1년간 단순한 취미가 아닌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질문한 결과,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으며 전체 청소년의 71.4%는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거나 지난 1년간 한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해 사교육이 일반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Ⅲ-41]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

사회인구학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여자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학업에 관련된 남녀 차이를 종합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대학 학력의 중요성도 더 많이 인식하며, 대학 진학 의사도 높고,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현재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들보다 꾸준히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에 비해서 중학생이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7.9%로서 상당히 큰 차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비교적 저연령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현재 중학생 세대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예전보다 사교육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진학과 관련된 사교육을 받는 비율에는 지역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역시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광역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많았고, 광역시 지역 청소년들이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표Ⅲ-59〉 지난 1년간 사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받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과외 교습을 받고 있다
성1)	남자	30.3	25.9	43.9
	여자	26.8	27.8	45.5
교급2)	중학생	24.5	24.5	51.0
	고교생	32.4	28.8	38.8
지역3)	서울	23.2	26.1	50.7
	광역시	29.0	25.7	45.2
	시군부	33.1	27.9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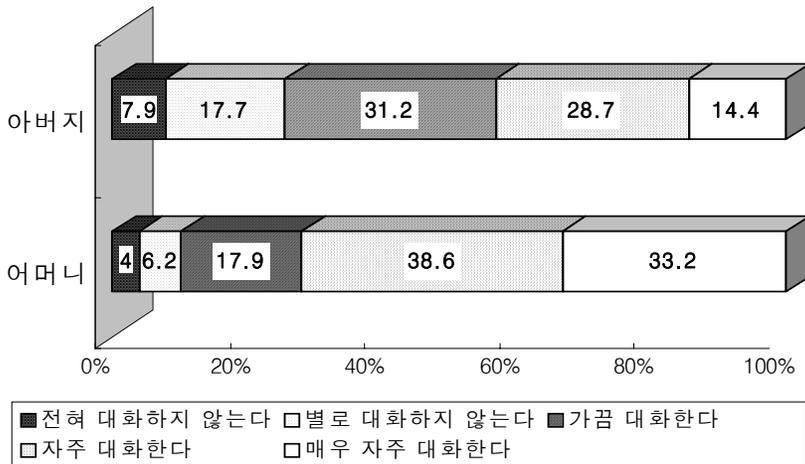
통계: 1) $\chi^2=10.27^{**}$, 2) $\chi^2=102.91^{***}$, 3) $\chi^2=83.62^{***}$

3) 정서적 발달

(1)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내 유대관계의 급속한 약화는 청소년들이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받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의 35.9%와 남자청소년의 23.4%가 가족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았다. 또한 가정폭력상담 건수가 2000년 75,723건에서 2004년 193,329건으로 증가하는 등 가족관계로 인한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다.

청소년들에게 평소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질문한 결과,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3.1%는 아버지와 자주 혹은 매우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했으나 어머니와 같은 빈도로 대화한다는 응답은 72.8%로서 거의 30% 정도 더 많았다.



[그림Ⅲ-42]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성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아버지와와의 대화 빈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자주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0>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

(단위 :%)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성1)	남자	8.5	17.4	32.1	27.8	14.3
	여자	7.2	18.1	30.2	29.8	14.6
교급2)	중학생	6.0	14.6	29.0	32.1	18.3
	고교생	9.6	20.7	33.3	25.6	10.9
지역3)	서울	7.6	17.8	30.0	29.3	15.3
	광역시	8.0	17.8	32.1	28.4	13.8
	시군부	8.1	17.6	31.8	28.5	14.0

통계: 1) $\chi^2=8.50$, 2) $\chi^2=163.60^{***}$, 3) $\chi^2=4.91$

반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는 성별, 교급별, 지역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자 청소년들(76.1%)이 남자 청소년들(68.1%)에 비해서 더 자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주로 극단적으로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이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유의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자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자주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Ⅲ-61>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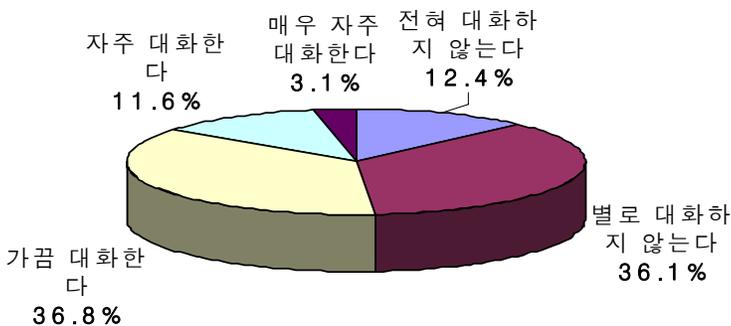
(단위 :%)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성1)	남자	5.2	6.7	20.0	40.7	27.4
	여자	2.7	5.6	15.6	36.3	39.8
교급2)	중학생	3.7	5.6	15.2	36.0	39.5
	고교생	4.3	6.7	20.5	40.9	27.5
지역3)	서울	3.5	5.5	16.8	39.6	34.7
	광역시	3.6	6.2	18.4	39.6	32.3
	시군부	4.8	6.8	18.7	37.2	32.5

통계: 1) $\chi^2=135.23^{***}$, 2) $\chi^2=114.23^{***}$, 3) $\chi^2=17.61^*$

(2) 교사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학교 선생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4.7%만이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선생님과 대화한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보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Ⅲ-43]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선생님과 대화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주 혹은 매우 자주 선생님과 대화한다는 응답이 6.5%나 더 많았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와는 반대로 선생님과 대화 빈도는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제일 적고,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잦았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는 한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같은 환경적 변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Ⅲ-62>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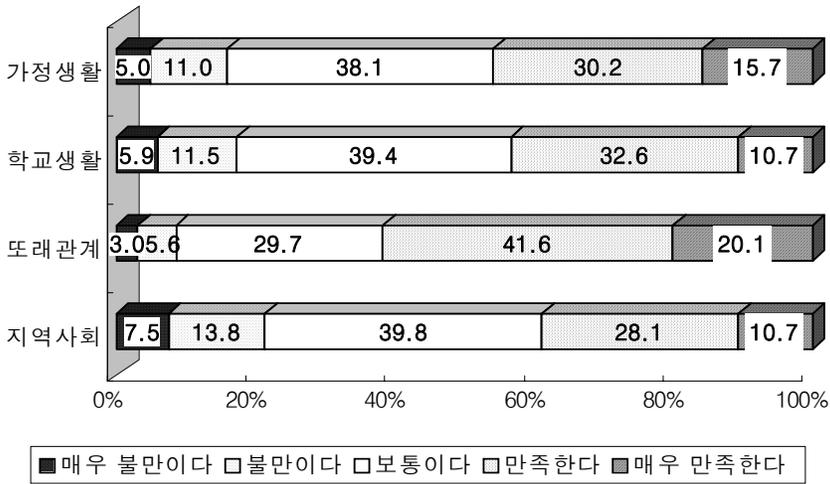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성1)	남자	13.6	35.3	36.6	11.0	3.5
	여자	11.1	37.0	36.9	12.3	2.7
교급2)	중학생	10.5	32.7	38.7	14.1	4.0
	고교생	14.2	39.2	35.0	9.3	2.3
지역3)	서울	13.6	38.1	35.5	10.3	2.5
	광역시	12.5	36.8	35.9	11.8	3.0
	시군부	11.4	33.9	38.4	12.6	3.7

통계: 1) $\chi^2=16.22^{**}$, 2) $\chi^2=94.72^{***}$, 3) $\chi^2=27.03^{***}$

(3) 가정, 학교,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들이 자기 생활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활영역을 ①가정생활, ②학교생활, ③또래관계, ④ 지역사회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했다.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한데 묶어 만족하는 청소년들로 산정해 이들 만족하는 청소년의 비율로 만족도를 산출했다.

그 결과, 또래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61.7%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45.9%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3.3%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38.8%로 가장 낮았다.



[그림Ⅲ-44] 자기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보다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Ⅲ-63>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1)	남자	5.5	9.7	37.5	30.7	16.6
	여자	4.3	12.5	38.9	29.7	14.6
교급2)	중학생	4.4	9.0	35.7	32.1	18.7
	고교생	5.4	12.9	40.3	28.5	12.9
지역3)	서울	5.5	11.8	35.5	30.3	16.8
	광역시	5.0	10.8	38.3	30.4	15.6
	시군부	4.4	10.5	40.3	30.1	14.7

통계: 1) $\chi^2=22.16^{***}$, 2) $\chi^2=80.81^{***}$, 3) $\chi^2=16.97^*$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가정생활 만족도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약간 높았지만, 불만이라는 응답도 역시 높았다. 가장 큰 차이는 보통이라는 응답에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중립적인 응답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시군부 청소년들간의 만족도 차이에 있어서 광역시 청소년들이 시군부 청소년들보다 비율상으로 4.1%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4>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1)	남자	7.1	11.2	37.7	32.1	11.9
	여자	4.5	11.8	41.2	33.2	9.3
교급2)	중학생	5.4	9.8	37.2	34.3	13.4
	고교생	6.3	13.0	41.4	31.1	8.2
지역3)	서울	5.4	11.3	36.4	34.7	12.2
	광역시	6.1	10.4	39.9	33.4	10.3
	시군부	6.1	12.3	41.7	30.3	9.6

통계: 1) $\chi^2=36.85^{***}$, 2) $\chi^2=71.81^{***}$, 3) $\chi^2=30.41^{***}$

또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청소년들과 여자 청소년들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2.7% 더 많았던 반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4.5%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또래 만족도의 남녀차이가 발견되었고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또래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들 보다 더 높았다. 고등학생들의 또래 만족도는 59.5%였던 반면, 중학생들은 64.2%로 나타났다.

그러나 또래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거주 지역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Ⅲ-65>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1)	남자	3.2	5.0	28.9	40.3	22.7
	여자	2.7	6.4	30.6	43.0	17.2
교급2)	중학생	3.4	5.8	26.6	40.7	23.5
	고교생	2.5	5.5	32.5	42.4	17.1
지역3)	서울	3.0	5.0	28.8	41.2	22.0
	광역시	3.1	5.6	30.0	42.2	19.1
	시군부	2.9	6.2	30.3	41.6	19.1

통계: 1) $\chi^2=36.78^{***}$, 2) $\chi^2=60.00^{***}$, 3) $\chi^2=11.81$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높았고, 역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정작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일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Ⅲ-66>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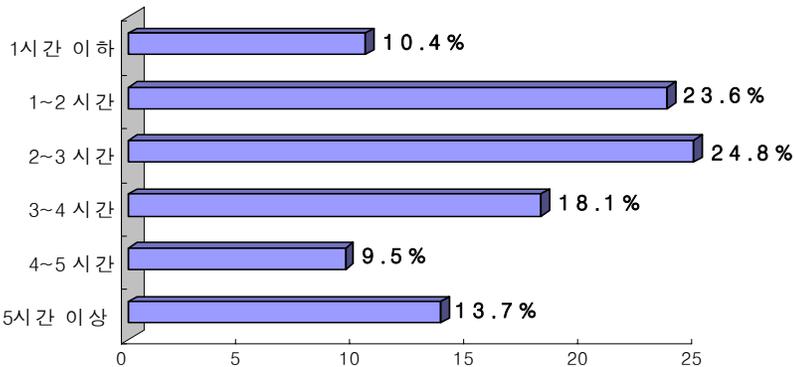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1)	남자	7.5	12.5	37.3	28.9	13.7
	여자	7.5	15.4	42.6	27.3	7.2
교급2)	중학생	7.9	13.1	38.2	28.3	12.6
	고교생	7.2	14.5	41.3	28.0	9.0
지역3)	서울	7.2	14.0	40.0	28.4	10.5
	광역시	7.9	13.1	39.5	28.8	10.7
	시군부	7.5	14.2	39.9	27.5	10.9

통계: 1) $\chi^2=91.42^{***}$, 2) $\chi^2=27.73^{***}$, 3) $\chi^2=2.64$

(4) 청소년 여가시간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으로서, 청소년활동실태조사(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여가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로 25.6%의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과외수업과 같은 사교육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마땅한 활동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땅한 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도 거의 비슷한 25.1%를 차지. 특히 사교육 때문에 청소년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학업부담이 높아지는 고학년에 될수록 오히려 줄어들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따라서 적절한 여가시간의 보장과 여가활동 거리의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내가 전체의 58.8%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13.7%)을 제외하면 그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10.4%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특히 심각하게 정서적 발달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45] 1일 평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시간

여가시간의 남녀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해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았다. 중학생들이 사교육 경험이 많은 것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학업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울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보다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학업부담도 많고 사교육도 많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외의 결과였다.

<표Ⅲ-67> 1일 평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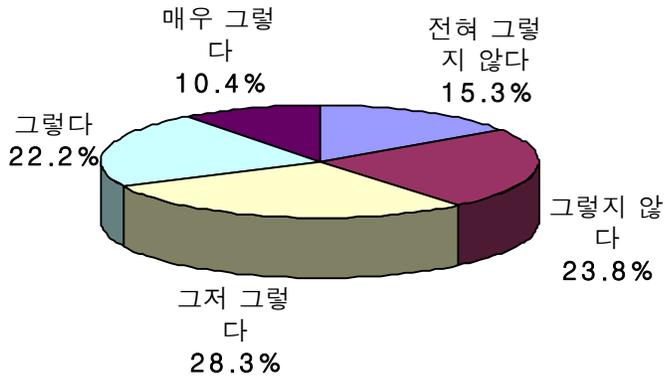
(단위 :%)

		1시간 이하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성1)	남자	10.0	23.3	24.3	18.8	9.1	14.4
	여자	10.8	23.8	25.3	17.2	9.9	12.9
교급2)	중학생	7.9	19.7	26.7	20.5	10.9	14.2
	고교생	12.7	27.0	23.0	15.9	8.1	13.2
지역3)	서울	6.9	19.8	25.6	21.7	10.2	15.8
	광역시	14.3	27.1	23.6	14.3	8.6	12.1
	시군부	11.2	24.7	24.8	17.1	9.3	12.9

통계: 1) $\chi^2=8.09$, 2) $\chi^2=120.63^{***}$, 3) $\chi^2=124.67^{***}$

(5) 여가시간 만족도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여가시간이 전반적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60.9%로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물론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15.3%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어진 여가시간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Ⅲ-46] 여가시간 만족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서 여가시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나머지 지역 청소년들보다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았다.

<표Ⅲ-68> 여가시간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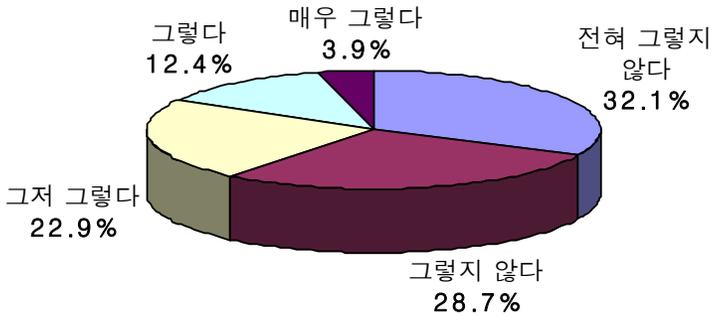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6.2	21.7	27.8	22.1	12.3
	여자	14.3	26.2	28.9	22.3	8.3
교급2)	중학생	11.6	20.0	29.1	25.7	13.6
	고교생	18.7	27.2	27.6	19.0	7.5
지역3)	서울	11.2	21.1	29.3	25.9	12.4
	광역시	18.1	27.0	26.3	20.5	8.1
	시군부	17.2	24.2	28.6	19.9	10.1

통계: 1) $\chi^2=44.26^{***}$, 2) $\chi^2=189.54^{***}$, 3) $\chi^2=100.73^{***}$

(6)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 대상 문화/여가시설(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여가시설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16.3%에 불과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60.8%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여가시설에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 여가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여가시간의 확보 이전에 충분한 여가시설의 확충임을 시사한다.



[그림Ⅲ-47]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여가시설 만족도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낮아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여가시설 만족도가 더 낮았고, 서울지역 보다는 시군부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만족도가 더 낮았다.

<표Ⅲ-69> 지역사회 여가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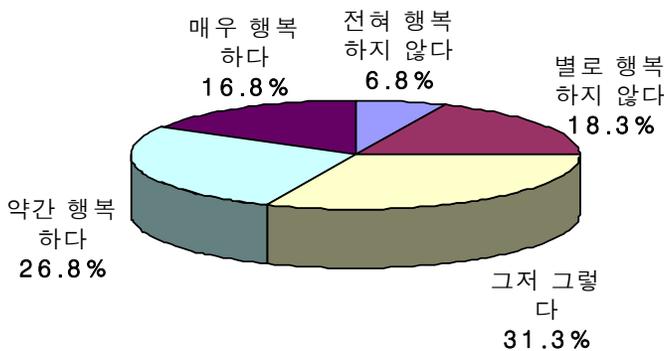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29.2	27.5	24.5	14.0	4.8
	여자	35.3	30.1	21.2	10.5	2.8
교급2)	중학생	30.1	28.6	24.0	12.7	4.6
	고교생	33.8	28.9	22.0	12.0	3.3
지역3)	서울	27.9	28.7	24.5	13.9	4.9
	광역시	31.9	29.1	23.1	12.2	3.6
	시군부	35.7	28.5	21.5	11.1	3.2

통계: 1) $x^2=64.94^{***}$, 2) $x^2=17.86^{***}$, 3) $x^2=47.36^{***}$

(7) 청소년 행복도

청소년의 행복도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도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결과, 행복하다는 응답(약간, 매우 행복)이 43.6%로 불행하다는 응답 25.1% 보다 약 18% 정도 많았다. 즉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불행한 경우보다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림Ⅲ-48] 청소년 행복도

<표III-70> 청소년 행복도

(단위 :%)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성1)	남자	7.4	17.8	30.8	26.0	18.0
	여자	6.1	18.8	31.9	27.8	15.3
교급2)	중학생	5.9	15.4	29.0	28.4	21.3
	고교생	7.6	21.0	33.4	25.5	12.6
지역3)	서울	6.2	17.8	30.6	28.1	17.3
	광역시	6.1	19.1	31.9	26.6	16.3
	시군부	7.7	18.3	31.6	25.9	16.5

통계: 1) $\chi^2=14.86^{**}$, 2) $\chi^2=128.84^{***}$, 3) $\chi^2=10.12$

(8)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6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했다. 척도의 내용은 자신의 성품, 능력,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담은 6개의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조사 결과, 남자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았다 ($T=3.719$, $p < .001$). 또한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광역시 지역 청소년들보다 자존감이 높았으며, 광역시 지역 거주 청소년들은 시군부 지역 거주 청소년들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6689 = 18.157$, $p < .001$).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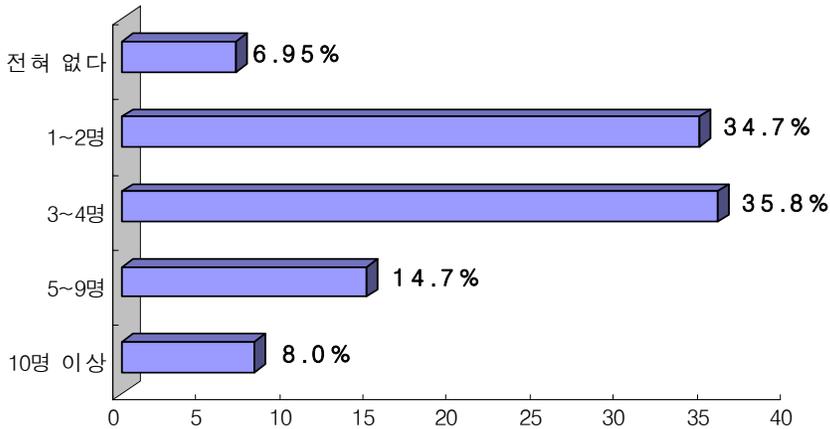
<표III-71>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의 차이

		남자	여자	전체
교급	중학생	19.83	19.25	19.55
	고교생	19.55	19.29	19.43
지역	서울	20.15	19.60	19.90
	광역시	19.50	19.49	19.49
	시군부	19.37	18.89	19.13
전체		19.68	19.27	19.49

4) 사회적 발달

(1) 가까운 친구 수

청소년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 6.9%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3-4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8.0%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49]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8.5%)들이 여학생(5.0%)에 비해 더 많았고, 고등학생(6.6%)보다 중학생(7.2%)이 더 많았으며, 지역별 청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2>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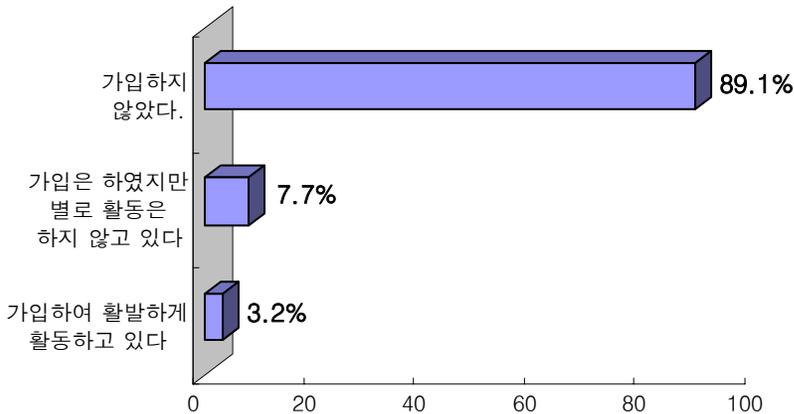
(단위 :%)

		전혀 없다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성1)	남자	8.5	30.7	33.8	15.6	11.4
	여자	5.0	39.2	38.0	13.6	4.2
교급2)	중학생	7.2	32.7	34.8	15.6	9.8
	고교생	6.6	36.5	36.7	13.8	6.4
지역3)	서울	6.1	33.4	37.5	14.2	8.7
	광역시	7.3	34.3	36.1	15.1	7.2
	시군부	7.3	36.1	34.0	14.8	7.8

통계: 1) $\chi^2=186.43^{***}$, 2) $\chi^2=37.28^{***}$, 3) $\chi^2=14.45$

(2) 청소년 단체 활동 가입여부

청소년들의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 중 89.1%는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하지 않은 청소년은 7.7%,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3.2%로 나타났다.



[그림Ⅲ-50]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 여부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학생(89.6%)들이 남학생(88.7%)에 비해서 많았고, 고등학생(88.3%)보다 중학생(90.0)이 더 많았으며,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그 외 지역 청소년들보다 청소년 단체에 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3>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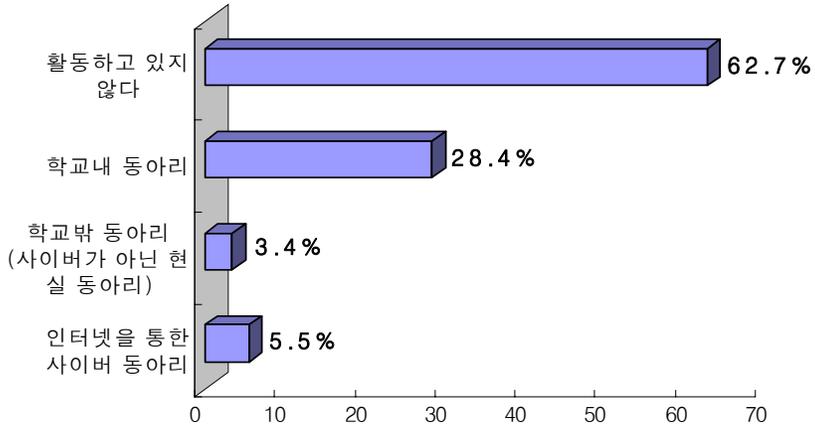
(단위 :%)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1)	남자	88.7	7.6	3.7
	여자	89.6	7.9	2.5
교급2)	중학생	90.0	7.4	2.6
	고교생	88.3	8.0	3.7
지역3)	서울	91.2	6.2	2.6
	광역시	86.7	9.5	3.8
	시군부	88.8	7.9	3.3

통계: 1) $\chi^2=8.05^*$, 2) $\chi^2=7.44^*$, 3) $\chi^2=20.62^{***}$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여부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여부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2.7%로 가장 많았고 학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28.4%로 나타났다. 학교밖 동아리 활동을 하는 8.9% 청소년 가운데 5.5%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1] 동아리 활동 여부, 동아리의 종류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학생(64.5%)들이 남학생(61.2%)에 비해서 더 많았고, 고등학생(57.7%)보다 중학생(68.3%)이 더 많았으며, 지역별 청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표Ⅲ-74> 동아리 활동 여부, 동아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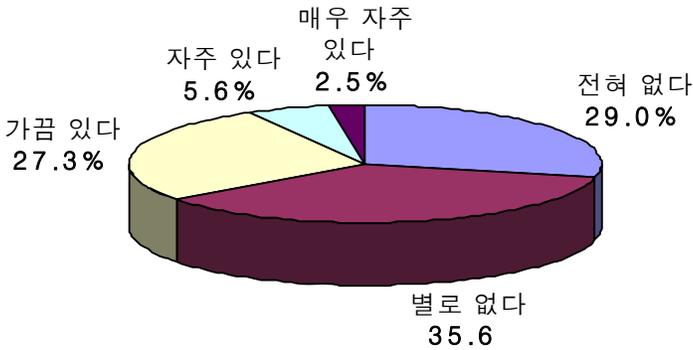
(단위 :%)

		활동하고 있지 않다	학교내 동아리	학교밖 동아리(사이 버가 아닌 현실 동아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성1)	남자	61.2	28.2	4.5	6.2
	여자	64.5	28.7	2.1	4.7
교급2)	중학생	68.3	21.3	3.5	7.0
	고교생	57.7	34.9	3.3	4.2
지역3)	서울	63.5	26.7	4.0	5.8
	광역시	62.7	28.2	3.6	5.6
	시군부	62.0	30.0	2.8	5.2

통계: 1) $\chi^2=36.60^{***}$, 2) $\chi^2=161.59^{***}$, 3) $\chi^2=12.10$

(3) 가정이나 학교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빈도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9.0%는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별로 없다는 응답이 35.6%로 가장 많았다. 자주 외톨이라고 느낀다는 청소년(8.1%)들 중 2.5%는 매우 자주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2]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빈도.

연령과 학교급, 그리고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35.2%)들이 여학생(21.9%)이 비해서 더 많았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았으며. 지역별 청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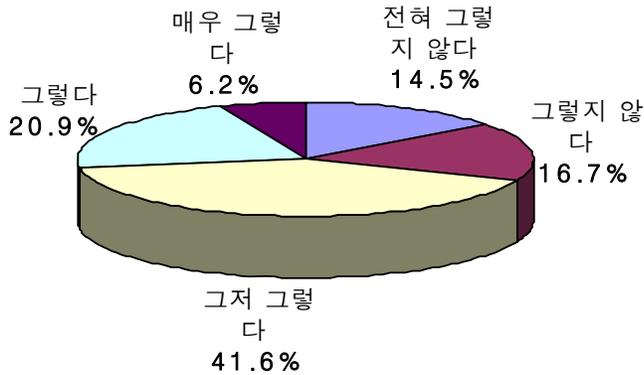
<표Ⅲ-75>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빈도.

		(단위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성1)	남자	35.2	35.9	22.3	4.1	2.4
	여자	21.9	35.2	32.9	7.3	2.7
교급2)	중학생	32.6	36.1	24.3	4.9	2.1
	고교생	25.7	35.1	30.1	6.3	3.0
지역3)	서울	30.0	36.2	26.5	5.3	2.1
	광역시	29.6	34.2	28.3	4.9	3.0
	시군부	27.6	35.8	27.4	6.4	2.7

통계: 1) $\chi^2=201.60^{***}$, 2) $\chi^2=58.75^{***}$, 3) $\chi^2=13.89$

(4)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 중 14.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제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41.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27.1%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3]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에 도움 여부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남학생(29.3%)들이 여학생(24.7%)에 비해서 더 많았고, 중학생(26.6%)보다 고등학생(27.6%)이 더 많았으며, 광역시 청소년들이 서울지역과 시군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입시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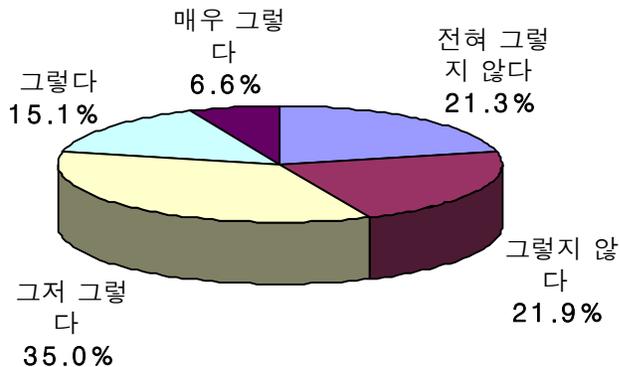
〈표Ⅲ-7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학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5.5	14.2	40.9	21.3	8.0
	여자	13.4	19.6	42.3	20.6	4.1
교급2)	중학생	14.7	16.4	42.3	20.4	6.2
	고교생	14.4	17.1	40.9	21.4	6.2
지역3)	서울	15.7	17.8	40.6	19.9	6.0
	광역시	13.5	14.3	41.5	23.4	7.2
	시군부	14.2	17.3	42.4	20.4	5.7

통계: 1) $\chi^2=76.05^{***}$, 2) $\chi^2=2.16$, 3) $\chi^2=22.80^{**}$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적성/특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 중 21.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5.0%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21.7%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적성/특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4]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적성/특기 개발에 도움 여부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적성/특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남학생(23.6%)들이 여학생(19.6%)에 비해서 더

많았고, 고등학생(16.3%)보다 중학생(27.8%)이 더 많았으며, 지역 별 청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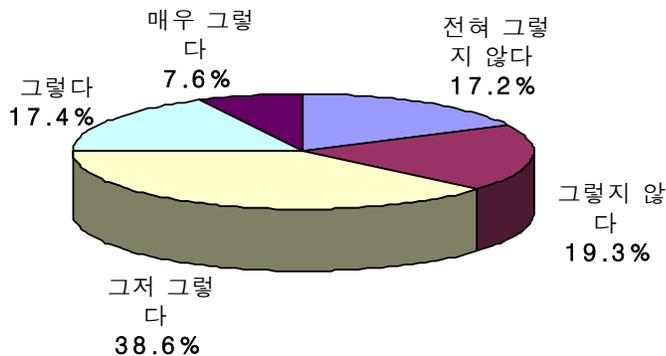
<표Ⅲ-7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적성/특기 개발에의 도움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22.2	18.5	35.7	15.8	7.8
	여자	20.4	25.8	34.2	14.4	5.2
교급2)	중학생	16.7	18.1	37.4	19.8	8.0
	고교생	25.5	25.4	32.8	11.0	5.3
지역3)	서울	22.4	21.3	35.0	14.4	6.9
	광역시	23.0	21.4	33.4	15.6	6.7
	시군부	19.4	22.8	36.0	15.5	6.3

통계: 1) $\chi^2=64.18^{***}$, 2) $\chi^2=215.92^{***}$, 3) $\chi^2=13.18$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청소년 중 17.2%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8.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25.0%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55]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직업/진로 선택에 도움 여부

연령과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남학생(26.9%)들이 여학생(22.7%)에 비해서 더 많았고, 고등학생(21.3%)보다 중학생(28.9%)이 더 많았으며, 서울 이외 지역 청소년들이 서울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78〉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로/직업 선택에의 도움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남자	18.4	16.1	38.6	17.7	9.2
	여자	15.7	22.9	38.5	17.0	5.7
교급	중학생	15.0	15.9	40.2	19.9	9.0
	고교생	19.1	22.4	37.1	15.1	6.2
지역	서울	19.4	19.4	38.2	16.5	6.5
	광역시	16.8	19.0	38.2	18.4	7.5
	시군부	15.3	19.5	39.1	17.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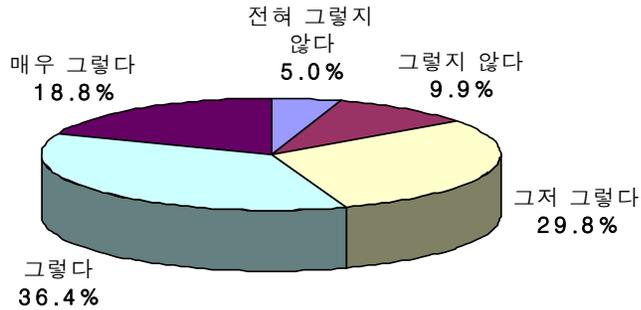
통계: 1) $\chi^2=74.08^{***}$, 2) $\chi^2=96.56^{***}$, 3) $\chi^2=22.24^{**}$

5. 청소년 참여권 실태

1) 가정내 의사결정

(1) 집안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 존중 실태

부모님이 집안내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시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존중한다가 55.2%,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9.8%,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14.9%로 응답되었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은 집안내의 여러 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은 본인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Ⅲ-56] 집안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 존중 여부

이에 대한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학생(59.4%)의 경우가 남학생(51.6%) 보다 부모님에게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다소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79> 집안 의사결정시 부모님의 자녀 의견 존중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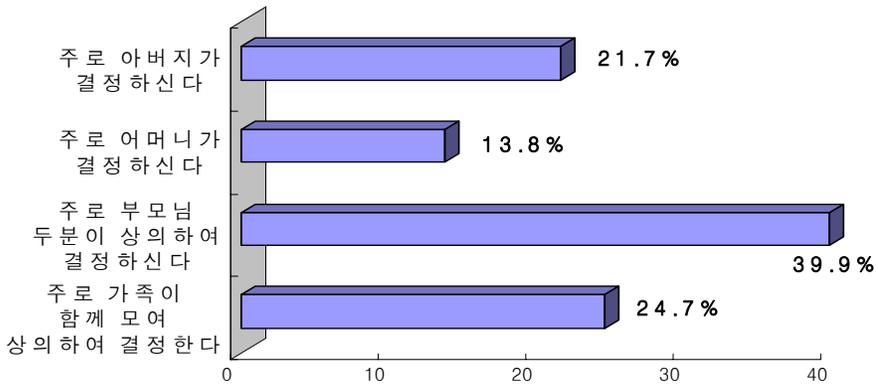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6.2	10.3	31.8	34.2	17.4
	여자	3.7	9.5	27.4	39.0	20.4
교급2)	중학생	5.2	9.8	30.1	35.0	19.8
	고교생	4.9	10.0	29.4	37.8	18.0
지역3)	서울	4.9	10.0	29.0	35.4	20.7
	광역시	4.9	10.5	30.0	36.2	18.5
	시군부	5.3	9.5	30.3	37.5	17.4

통계: 1) $\chi^2=50.91^{***}$, 2) $\chi^2=7.37$, 3) $\chi^2=11.05$

집안내의 의사결정시 청소년의 의견은 과반수 가까이 학생들이 아직 본인들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과 특히 부모자녀간의 결속 의식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정내 의사결정 주도자

가정내 의사결정시 주로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조사에는 ‘부모님 두 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39.9%)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24.7%), ‘아버지가 결정한다’(21.7%), ‘어머니가 결정한다’(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모두가 상의하여 집안의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Ⅲ-57] 가정내 의사결정자

이를 하위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남학생(26.2%)의 경우는 여학생(16.5%) 보다 주로 아버지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여학생(28%)이 남학생(21.7%) 보다 다소 높았다.

〈표Ⅲ-80〉 가정내 의사 결정자

(단위 :%)

		주로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주로 어머니가 결정하신다	주로 부모님 두분이 상의하여 결정하신다	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성1)	남자	26.2	13.6	38.4	21.7
	여자	16.5	14.0	41.5	28.0
교급2)	중학생	20.3	12.4	39.3	27.9
	고교생	22.9	15.0	40.4	21.7
지역3)	서울	21.5	14.8	40.6	23.1
	광역시	21.1	13.9	39.1	25.8
	시군부	22.1	12.8	39.7	25.4

통계: 1) $\chi^2=104.62^{***}$, 2) $\chi^2=40.07^{***}$, 3) $\chi^2=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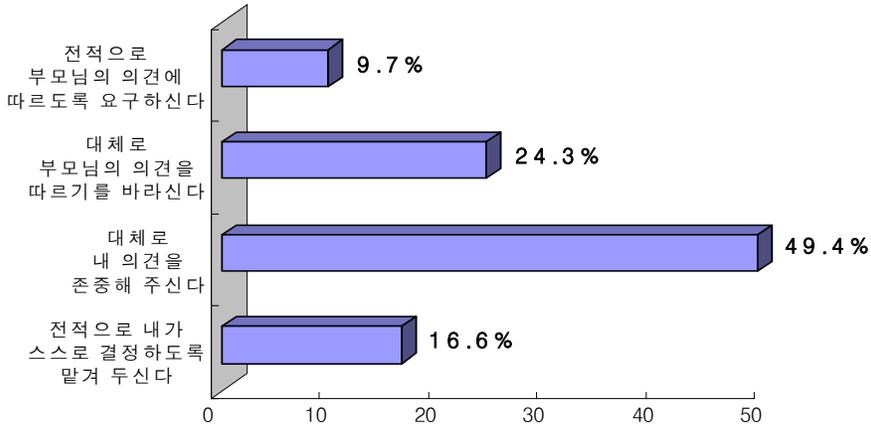
가정내 의사결정시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두 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 혼자 결정한다는 가부장적 가정도 5명중 1명꼴로 있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4분의 1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진로 및 여가활동의 결정

(1)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청소년들이 본인의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49.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란다’(24.3%),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긴다’(16.6%),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다르도록 요구한다’(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의견이 주로 존중되는 경우가 66%로 아직 3분의 1정도의 가정은 진학과 진로문제에 부모님의 의견 제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58]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이를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1.1%)이 남학생(61.5%)에 비해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70.4%)이 중학생(61.3%) 보다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Ⅲ-81>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단위 :%)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라신다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신다
성1)	남자	12.9	25.6	45.8	15.7
	여자	6.1	22.8	53.5	17.6
교급2)	중학생	12.0	26.8	46.2	15.1
	고교생	7.6	22.0	52.4	18.0
지역3)	서울	9.7	22.9	49.5	17.9
	광역시	10.3	25.9	48.0	15.8
	시군부	9.3	24.6	50.1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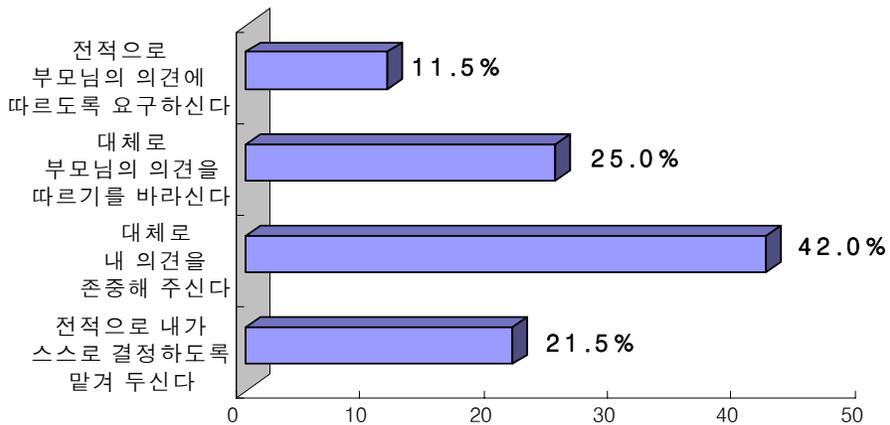
통계: 1) $\chi^2=110.12^{***}$, 2) $\chi^2=72.45^{***}$, 3) $\chi^2=9.75$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서는 3분의 2의 학생들의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반면 3분의 1은 여전히 부모님이 주도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질문에는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42%)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라신다’(25%),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신다’(21.5%),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하신다’(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가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이 63.5%로 앞서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역시 3분의 1정도의 청소년들은 아직 여가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Ⅲ-59]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하위집단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여학생(69%)이 남학생(58.6%)에 비해 여가활동에 대한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더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82〉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단위 :%)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라신다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신다
성1)	남자	14.2	27.2	38.9	19.7
	여자	8.4	22.5	45.5	23.5
교급2)	중학생	12.8	26.5	41.4	19.3
	고교생	10.2	23.7	42.6	23.5
지역3)	서울	11.8	24.0	42.0	22.2
	광역시	11.6	26.6	42.0	19.9
	시군부	11.1	24.9	42.1	21.9

통계: 1) $\chi^2=91.88^{***}$, 2) $\chi^2=29.94^{***}$, 3) $\chi^2=5.94$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상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부모가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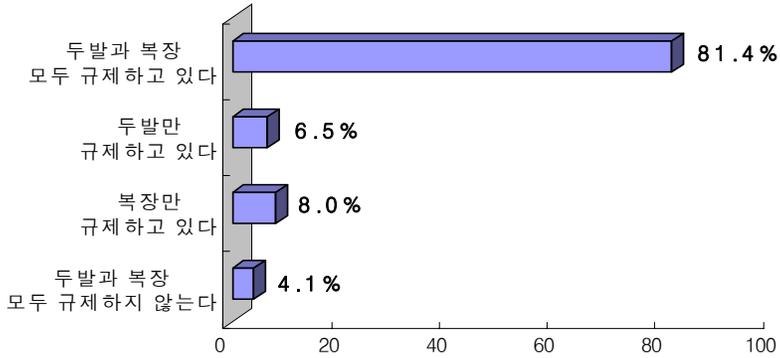
3) 취향 및 자유 의사 표현

(1)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 실태

소속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1.4%로 대부분의 학교가 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²⁸⁾. 반면

28) ‘경기도 부천고등학교에서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 300여명을 집단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해당학교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8일 해당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개학일인 지난 20일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4.1%로 매우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Ⅲ-60]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 실태

이를 하위집단별로 분석하여 보면, 고등학교(84.2%)가 중학교(78.3%)에 비해 두발, 복장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후, 2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운동장에서 체벌을 받았다. 체벌을 받은 이유는 머리가 길어서였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 학교는 앞머리와 뒷머리가 눈썹과 귀, 교복 칼라를 덮지 말도록 두발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학년부장 교사는 개학 첫날 이 교칙을 어긴 학생들을 불러모아 체벌을 한 것이다. 학년부장 교사의 지시에 따라 300여명의 학생들은 엎드려 뺨치 상태에서 한 사람당 2~5대씩 엉덩이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07. 8.28일자)

〈표Ⅲ-83〉 학교의 두발, 복장 규제 실태

(단위 :%)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고 있다	두발만 규제하고 있다	복장만 규제하고 있다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지 않는다
성1)	남자	82.3	7.6	6.4	3.7
	여자	80.4	5.1	10.0	4.5
교급2)	중학생	78.3	6.1	10.0	5.6
	고교생	84.2	6.8	6.2	2.7
지역3)	서울	80.2	6.3	8.4	5.0
	광역시	83.3	7.1	6.5	3.2
	시군부	81.4	6.2	8.6	3.8

통계: 1) $\chi^2=46.23^{***}$, 2) $\chi^2=71.66^{***}$, 3) $\chi^2=18.24^{**}$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의 경우 규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머리, 복장(옷차림), 악세서리(반지/귀고리 등), 화장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어 학생의 신분으로 과하지만 않으면 크게 규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세세하게 규제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이 중 머리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대부분 머리, 복장(옷차림), 악세서리(반지/귀고리 등), 화장 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규제가 심하지 않아 자유로운 편이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한 복장은 교복만 입는다면 크게 규제는 없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더러 교복을 줄여 입는다고 답하였다. 별점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학교도 있었다. 반면에 두발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세세하게 규제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두발/복장 때문에 학교에서 경고나 처벌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들이 경고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유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뒷머리를 길지 않게 단정히 해야 하고 여학생의 경

우는 머리가 어느 정도 길면 묶고 다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학생들이 경고나 처벌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이 아주 심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한 학생은 선생님과 같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른 경험을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의 경우는 피면접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고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중학생과 같이 두발 문제가 주 이유였다. 중학교때 머리를 잘랐다는 학생과 복장으로 반바지를 입어 맞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에서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중학생의 경우 자유롭게 놔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머리에 대해서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머리길이에 상관없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고 노는 아이들은 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한 학생도 있었다. 복장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도 소수 있었다. 경고나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들 중 몇몇은 규제가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두발/복장의 규제 내용 중 특히 두발에 관해서는 대부분 자유롭게 허용을 원하였다.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으며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에서도 중학생의 경우처럼 다른 규제는 몰라도 성적과 상관없는데 두발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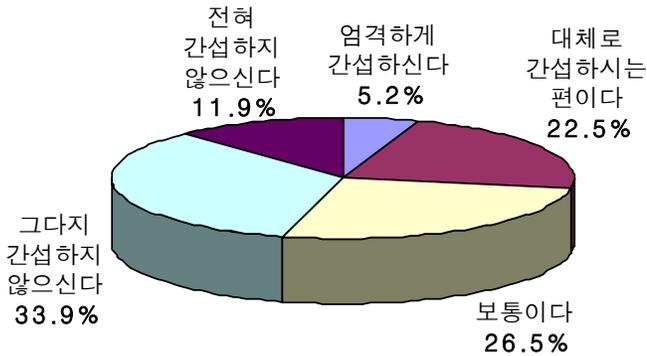
교복을 입을 때와 평상복을 입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교복을 입을 때는 단정하고 학생다워 보이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맘이 편하나 평상복 보다는 입었을 때 불편하고 구속된 느낌이 든다고 답하였다. 평상복을 입을 때는 일단 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개성을 살릴 수 있으나 아직도 어리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학교를 다닐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서 교복을 입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였다. 별로 차이를 못 느낀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라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일탈이나 성적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간섭한다’가 27.7%, ‘보통이다’가 26.5%, ‘간섭하지 않는다’가 45.8%로 나타나 대체로 과반수 이상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두발과 복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Ⅲ-61]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하위집단별 분석을 살펴보면, 남학생(30%)이 여학생(25.1%)에 비해 그리고 중학생(31.6%)이 고등학생(24.2%)에 비해 간섭을 받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게 나타났다.

<표Ⅲ-84> 두발과 복장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단위 :%)

		엄격하게 간섭하신다	대체로 간섭하시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다지 간섭하지 않으신다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성1)	남자	5.7	24.3	25.3	31.9	12.8
	여자	4.6	20.5	27.8	36.1	11.0
교급2)	중학생	6.4	25.2	28.9	28.8	10.7
	고교생	4.1	20.1	24.3	38.4	13.1
지역3)	서울	5.2	21.7	24.6	35.8	12.8
	광역시	4.8	23.4	26.7	32.3	12.8
	시군부	5.5	22.7	28.0	33.1	10.6

통계: 1) $\chi^2=32.25^{***}$, 2) $\chi^2=105.13^{***}$, 3) $\chi^2=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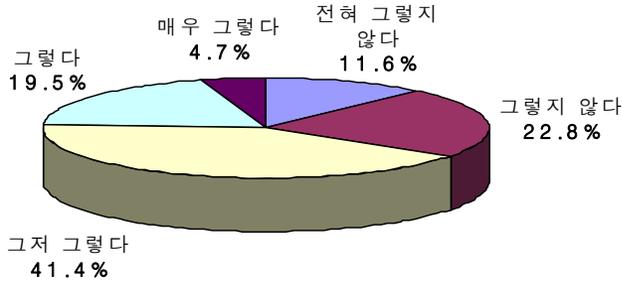
이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결과는 중학생 피면접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간섭하지 않거나 간섭을 해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한 두소리 듣는 정도로 별로 부모님이 두발/복장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간섭의 내용은 주로 머리를 단정히 하라는 것이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반수 가까운 학생들이 부모님이 간섭을 하나 내용은 머리를 자르라는 정도였고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길이나 짧은 옷에 대해서 부모님이 간섭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두발/복장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의견대립은 중·고등학생 모두 대부분 없었다고 답하였고 일부 있다고 한 학생들은 대부분 두발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두발과 복장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섭 혹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자율에 대한 욕구와 일정부분 상충하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다.

(3) 교사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실태

학교 선생님에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다는 경우가 24.2%, 그저 그렇다는 41.4%, 그렇지 않은 경우가 34.4%로 나타나 교사에 대한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좀 더 활발한 의사소통 환경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Ⅲ-62] 교사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부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별다른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85> 교사에게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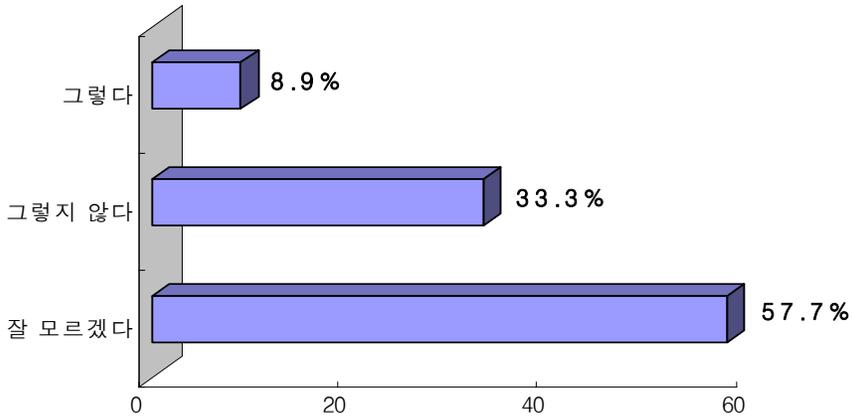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자	12.8	22.6	40.9	18.5	5.3
	여자	10.2	23.0	42.0	20.6	4.1
교급2)	중학생	11.0	20.9	43.1	19.9	5.2
	고교생	12.2	24.5	39.9	19.1	4.3
지역3)	서울	12.5	23.3	40.7	19.0	4.5
	광역시	11.0	22.4	41.9	18.5	6.2
	시군부	11.1	22.6	41.7	20.6	4.1

통계: 1) $\chi^2=18.38^{**}$, 2) $\chi^2=19.33^{**}$, 3) $\chi^2=16.37^*$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4분의 1정도의 학생들 밖에 없어 교사와 학생간에 지식전달 이외에 비인지적 측면, 그리고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해명 기회 제공 실태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8.9%, ‘그렇지 않다’가 33.3%, ‘잘 모르겠다’가 57.7%로 응답되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감안하여 살펴보았을 때 학생들의 해명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III-63]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해명 기회 제공 여부

하위집단에 따른 분석에서는 학교에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학생(10.3)이 여학생(7.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Ⅲ-86〉 학교내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해명 기회 제공 여부

(단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10.3	35.5	54.2
	여자	7.4	30.9	61.7
교급2)	중학생	9.9	28.3	61.8
	고교생	8.0	38.0	54.0
지역3)	서울	8.5	35.0	56.5
	광역시	8.6	34.9	56.5
	시군부	9.6	30.9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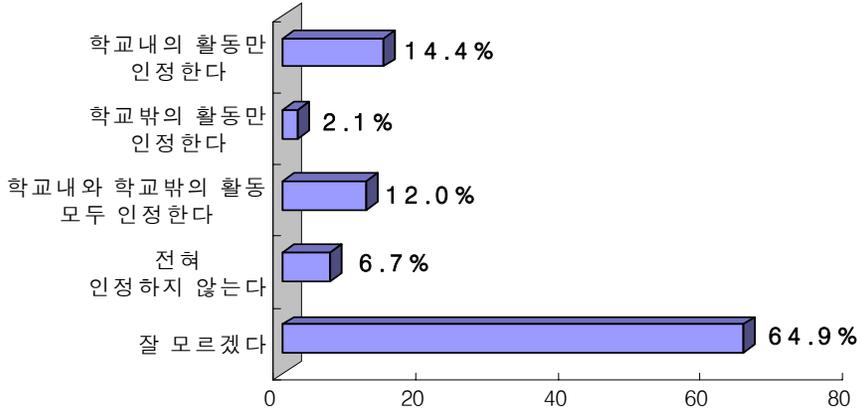
통계: 1) $\chi^2=42.05^{***}$, 2) $\chi^2=72.215^{***}$, 3) $\chi^2=12.56^*$

학교내에서 징계 대상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는 문제에 어른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교내 활동의 자율성과 참여

(1) 학교의 동아리 조직 활동 인정 실태

소속 학교가 학교 내나 학교 밖의 동아리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28.5%,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6.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4.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자신들의 동아리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64] 학교의 동아리 활동 인정 여부

하위집단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등학생(34%)이 중학생(22.3%)에 비해 동아리 활동을 허용한다고 인식하여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표Ⅲ-87> 학교의 동아리 활동 인정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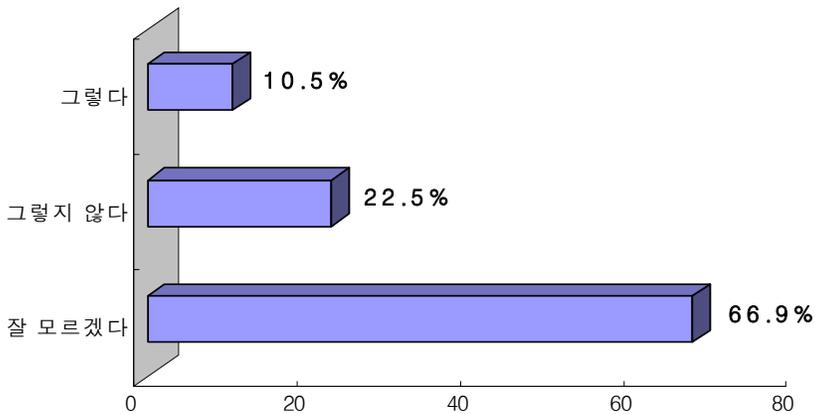
		학교내의 활동만 인정한다	학교밖의 활동만 인정한다	학교내와 학교밖의 활동 모두 인정한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14.6	2.9	12.5	8.3	61.7
	여자	14.1	1.2	11.3	4.9	68.5
교급2)	중학생	9.8	2.2	10.3	6.3	71.4
	고교생	18.5	2.0	13.5	7.0	59.0
지역3)	서울	14.2	2.3	10.3	7.0	66.1
	광역시	15.4	1.8	13.8	7.9	61.0
	시군부	13.8	2.1	12.3	5.6	66.1

통계: 1) $\chi^2=65.29^{***}$, 2) $\chi^2=146.28^{***}$, 3) $\chi^2=27.81^{**}$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인정하는 경우는 4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아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학업 이외에 보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독려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²⁹⁾.

(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에서의 허용 실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가 10.5%, ‘그렇지 않다’가 22.5%, ‘잘 모르겠다’가 66.9%로 응답되었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을 감안하여 볼 때, 학생들의 인식상 학교에서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65]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에서의 허용 여부

학위집단별 분석에서는 고등학생(15.8%)이 중학생(4.6%)에 비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서울(12.1%)과 시군부

29)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통해 ‘보는 체육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도교육청은 고교 교감 274명, 체육부장 274명, 지역교육청 장학사 17명, 지역별체육교사협의회장 17명 등 모두 582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직무 연수를 열었다.....주요 내용은 도내 초·중·고교가 9월부터 학교 스포츠 클럽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 동아리 등 스포츠 취미가 같은 학생들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뉴시스, 2007. 9. 5일자)

(11.1%)의 학생들이 광역시(7.2%)의 학생들에 비해 허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Ⅲ-88>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교에서의 허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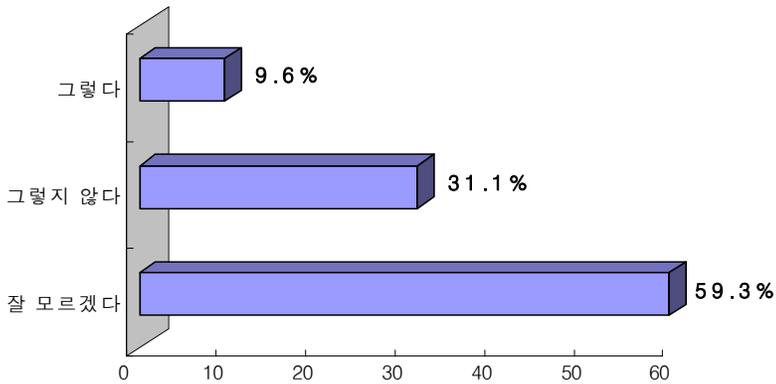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10.0	23.6	66.4
	여자	11.1	21.3	67.6
교급2)	중학생	4.6	23.7	71.6
	고교생	15.8	21.5	62.7
지역3)	서울	12.1	17.4	70.5
	광역시	7.2	27.0	65.8
	시군부	11.1	24.4	64.5

통계: 1) $\chi^2=6.19^*$, 2) $\chi^2=226.02^{***}$, 3) $\chi^2=76.46^{***}$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 중 1개교 정도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 또한 학교의 학업위주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3)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참여 활성화 실태

학교내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가 9.6%, ‘그렇지 않다’가 31.1%, ‘잘 모르겠다’가 59.3%로 나타났다.



[그림Ⅲ-66]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여부

성, 교급, 지역별 분석에서도 전체 빈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하위집단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89>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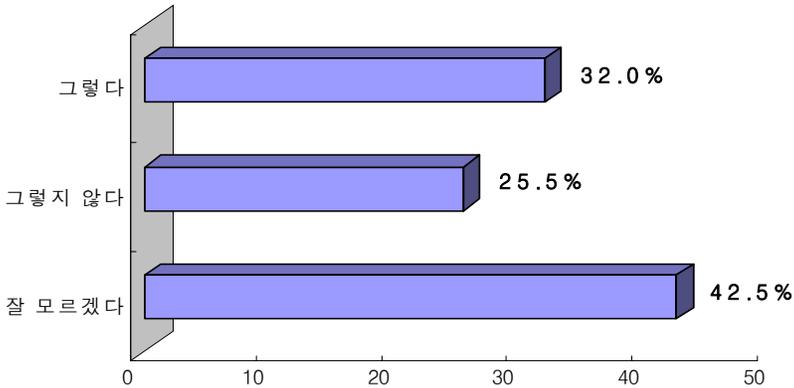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10.2	33.2	56.6
	여자	8.8	28.8	62.4
교급2)	중학생	9.3	26.8	63.9
	고교생	9.8	35.0	55.2
지역3)	서울	10.1	31.4	58.5
	광역시	9.9	33.3	56.9
	시군부	8.9	29.6	61.5

통계: 1) $\chi^2=23.92^{***}$, 2) $\chi^2=58.53^{***}$, 3) $\chi^2=10.90^*$

학교내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학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더구나 학생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마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학생회의 활성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상을 알 수 있다.

(4) 학생회장 선출시 자유로운 입후보 여부

학교내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어떤 학생이라도 조건없이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2%, ‘그렇지 않다’가 25.5%, ‘잘 모르겠다’가 42.5%로 나타나 자유롭게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67] 학생회장 선출시 조건없이 자유로운 입후보 여부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중학생(38.1%)이 고등학생(26.5%)에 비해 자신의 학교에서 학생회장 입후보가 자유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90> 학생회장 선출시 조건없이 자유로운 입후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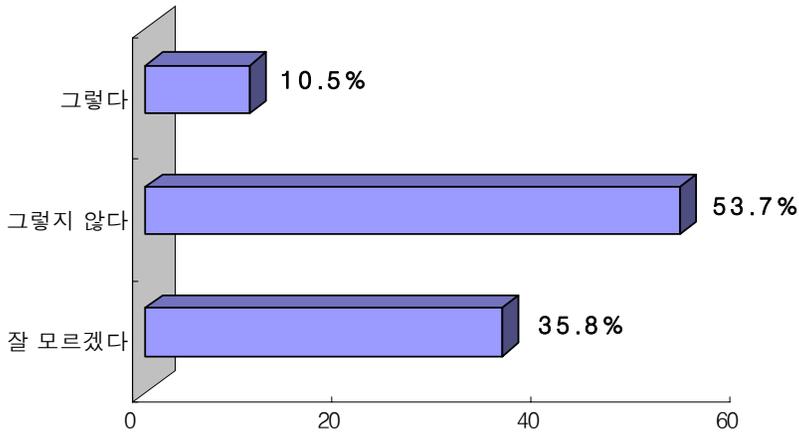
		(단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29.8	27.0	43.3
	여자	34.5	23.8	41.7
교급2)	중학생	38.1	21.0	41.0
	고교생	26.5	29.5	44.0
지역3)	서울	30.9	30.5	38.6
	광역시	29.0	28.2	42.8
	시군부	34.8	19.4	45.8

통계: 1) $\chi^2=19.64^{***}$, 2) $\chi^2=122.28^{***}$, 3) $\chi^2=95.71^{***}$

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로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 채 안되어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학교 규칙, 규정 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실태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10.5%로 나타나 ‘잘 모르겠다’(35.8%)는 응답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내 규칙, 규정 제정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Ⅲ-68] 학교 규칙, 규정 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성, 교급, 지역별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특별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표Ⅲ-91> 학교 규칙, 규정 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

		(단위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10.8	56.2	33.0
	여자	10.1	50.8	39.1
교급2)	중학생	11.5	46.4	42.1
	고교생	9.6	60.3	30.1
지역3)	서울	11.8	51.4	36.8
	광역시	9.3	59.9	30.8
	시군부	10.1	52.0	38.0

통계: 1) $\chi^2=27.74^{***}$, 2) $\chi^2=134.53^{***}$, 3) $\chi^2=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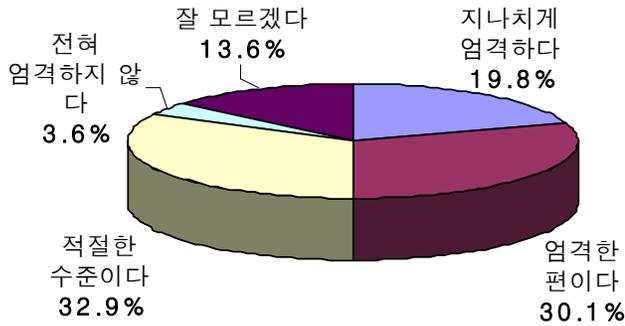
학교의 규칙과 규정 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10개 학교 중 1개교 정도로 낮게 나타나 학생들의 참여 수준이 아직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³⁰⁾.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매우 많아 학교의 규칙과 규정 제정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학교와 학생 사이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6) 학교 규율, 규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소속 학교의 규율이나 규칙이 엄격한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응답이 19.8%, ‘엄격한 편이다’가 30.1%, ‘적절한 수준이다’가 32.9%, ‘전혀 엄격하지 않다’가 3.6%, ‘잘 모르겠다’는 13.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엄격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9.9%로서 과반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규율과 규칙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서울지역 중·고생 779명과 교사 202명, 학부모 17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장 큰 인권침해로 학생 647명(복수응답)이 학교의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을 꼽았고, 체벌과 교문지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 미반영, 강제적인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복지 시설 부족(99명)과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86명), 학생회 예산 결정권 없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불참 등을 교내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항으로 꼽았다.’(쿠키뉴스, 2007. 7.14일자)



[그림Ⅲ-69] 학교 규율, 규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남학생(54.9%)이 여학생(44.1%)에 비해, 고등학생(55.8%)이 중학생(43.4%)에 비해, 그리고 광역시(54.1%)가 서울(47.5%)나 시군부(49.4%)에 비해 자신의 학교 교육, 규칙이 더 엄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Ⅲ-92> 학교 규율, 규칙의 엄격성에 대한 의견

(단위 :%)

		지나치게 엄격하다	엄격한 편이다	적절한 수준이다	전혀 엄격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성1)	남자	24.4	30.5	27.9	2.4	14.8
	여자	14.6	29.5	38.7	4.9	12.3
교급2)	중학생	16.5	26.9	36.7	3.7	16.1
	고교생	22.8	33.0	29.5	3.4	11.3
지역3)	서울	18.7	28.8	33.4	4.6	14.5
	광역시	23.8	30.3	31.3	2.0	12.6
	시군부	18.4	31.0	33.5	3.6	13.5

통계: 1) $\chi^2=179.97^{***}$, 2) $\chi^2=109.21^{***}$, 3) $\chi^2=43.02^{***}$

학교의 규율과 규칙의 엄격함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거나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많은 과반수의 학생들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경직된 학교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6. 요약과 논의

한국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 이를 각 영역별로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자기의 건강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의 같은 비율로 자신의 몸이 적당한 체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결과와는 달리,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불균형한 영양섭취의 가능성과, 부족한 수면, 질병을 경시하는 태도와 치료를 미루는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과신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며 흡연이나 음주의 기회가 있을 때 저항하는 비율도 낮았다. 주변 환경 특히 학교주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충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양섭취의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며, 거의 비슷한 비율로 저녁식사조차 집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업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더욱 영양섭취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시스템은 학교급식으로 이는 충분히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급식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36%의 청소년이 의구심을 갖아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영양섭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질병에 대

한 태도와 대응시스템이다. 아프더라도 일단 등교하고 본다는 응답이 75.8%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고 과반수가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내심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관과 학생들의 질병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학교 보건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또래간의 경쟁의식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업 부담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의 수면을 취해서 학계에서 권장하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수면시간은 8시간 보다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하긴 어려웠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자신의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나 학교 주변 환경에서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평가는 안전하다가 10명 중 2명을 조금 넘는 비율(22.8%)로 거주지역의 안전도 평가 39.7%보다 많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에 비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나 청소년 인권보장 측면의 발전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겠다. 청소년들은 특히 청소년의 복지수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권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친구들을 놀리거나 따돌림한 경험은 많은 학생들의 경우 없었으나 5분의 1정도의 학생들은 놀리거나 따돌림의 가해 경험이 있었고 특히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같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행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경험 실태는 10명중 1명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성적인 놀림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5명중 1명꼴로는 돈이나 물품을 뺏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구체화된 범죄의 행동으로 구분될 여지도 있는

형상으로 가해학생들의 지도와 피해학생들의 구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체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학생들의 과반수 정도는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분의 2 정도는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이 있어 부모 보다는 교사에게 체벌을 더 받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체벌에 대한 견해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모두 대다수의 학생들이 체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씩은 인정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체벌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자면 전체 학생들의 5분의 1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들의 3분의 1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 실태를 요약해 보면,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성적에 의한 차별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대신 집안형편이나 출신지역, 외모에 의한 차별 대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차별은 학업을 강조하는 학교 혹은 사회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소년기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인식이 크다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 의식의 연장선으로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성적 평등의식 함양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에 있어 친구의 학업성적, 국적이나 인종, 집안의 경제수준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기본적으로 세 요소 모두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혹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친구로 사귀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친구

로 사귀는데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근 변화에 청소년들이 아직 정서적인 동화와 동류의식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실태를 요약하자면, 3분의 1정도의 학생들이 성인용 음란물을 보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었으며, 5명중 1명꼴로는 성인용 폭력물을 보고 있었다. 더구나 가출의 경우는 10명중 1명꼴로 1회 이상의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3분의 1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성적과 진학진로 문제가 본인의 가장 큰 걱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업지향적인 그리고 대학입학에 매진하게 되어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나타내 주는 실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들의 고민/걱정거리의 상담자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친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명중 1명은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상의하고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결과는 전혀 상담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0명중 1명 이상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적 조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청소년 발달권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진학률, 학업성취동기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학업성취동기의 근원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열망이라기 보다는 학력차별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내면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서 내적인 동기보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학업수행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고등교육을 통해서 실제 직업선택에 도움을 얻거나 직업장면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며, 고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인격적 존중의 조건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해서 중학생들의 경우보다 고등학생들이 더욱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학력차별적인 가치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이나 개성을 반영한 다양한 성장을 생각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은 여전히 학력보다는 다른 기준을 중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획일화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좋은 대학 진학에 중요하다고 여기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의외였던 것은 사교육이 좋은 대학진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은 4명 중 1명 꼴로 높아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사교육을 직접 받아본, 사교육의 실수요자이자 직접 체험자인 청소년들의 응답임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그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진학에 있어 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가정환경이었다. 10명 중 3.5명 정도가 여기에 동의했다.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은 하루 3시간 내외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10명중 7명 정도가 부족하거나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얼마나 질적으로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발달에 관련된 주변환경에 대해서 만족했으나, 그 만족도는 영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또래관계로서 10명 중 6명 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45.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생활은 그보다도 더 적은 비율로(43.3%),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더 적은 비율로(38.8%)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스로 행복하다는 응답(약간, 매우 행복)이 불행하다는 응답보다 약 18% 정도 많아, 전반적으로 불행한 경우보다는 행복

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권 실태는 다음과 같다.

집안내의 의사결정시 청소년의 의견은 과반수 가까이의 학생들이 아직 본인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과 특히 부모자녀간의 결속 의식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내 의사결정시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두 분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 혼자 결정한다는 가부장적 가정도 5명중 1명 꼴로 있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는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서는 3분의 2의 학생들의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반면 3분의 1은 여전히 부모님이 주도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이상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라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일탈이나 성적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두발과 복장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섭 혹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자율에 대한 욕구와 일정부분 상충하고 있는 측면이라 볼 수 있겠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4분의 1정도의 학생들 밖에 없어 교사와 학생간에 지식전달 이외에 비인지적 측면, 그리고

인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학교내에서 징계 대상 학생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이 따르는 문제에 어른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인정하는 경우는 4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아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학업 이외에 보다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독려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중 1개교 정도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 또한 학교의 학업위주 풍토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 내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학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더구나 학생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마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학생회의 활성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학생회장 후보로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 채 안되어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학교의 규칙과 규정 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10개 학교중 1개교 정도로 낮게 나타나 학생들의 참여 수준이 아직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매우 많아 학교의 규칙과 규정 제정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학교와 학생 사이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학교의 규율과 규칙의 엄격함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거나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많은 과반수의 학생들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경직된 학교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IV. 청소년인권 관련 학부모 의식

1. 조사개요
2. 학교생활 관련
3. 가정생활 관련
4. 인권보장 수준 평가
5. 요약과 논의

IV. 청소년인권 관련 학부모 의식

1. 조사개요

1) 조사의 내용과 방법

본 조사는 청소년인권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영역은 복장·두발, 학업·여가, 부모-자녀관계, 의사결정권, 아르바이트, 체벌, 인권수준 평가의 6개 영역에 걸쳐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IV-1〉 조사의 내용

조사영역	조사문항
복장·두발 문제	자녀학교의 복장·두발 규제 수준
	자녀의 복장·두발에 대한 의견대립 유무
	학교의 복장·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학업·여가 관련	자녀의 진로에 대한 예상
	자녀의 학업량에 대한 의견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부모-자녀 관계	자녀와의 대화빈도
	자녀 고민거리 상담 여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의사결정권 문제	가사에 있어서 자녀의사 존중 여부
	진로선택에 있어 자녀의사 존중 여부
아르바이트 문제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견
체벌 문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교사의 체벌에 대한 의견
인권수준 평가	우리나라의 국민 인권보장 수준 평가
	우리사회의 청소년 인권보장 수준 평가
배경변인	성별, 지역, 연령대, 최종학력 등

조사의 모집단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조사시점(2007년 7월) 현재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전국의 학부모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전국을 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5개 권역(서울/경인권/충부권/호남권/영남권) ②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3개 지역(서울/광역시/시군부)으로 층화한 뒤, 총 15개 지역의 조사지점을 선정, 모집단의 인구구성(성별/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조사인원을 배정하는 비례할당표집(quota sampling)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각 조사지점별 전화번호부(2006년 12월 기준)에 의거하여 1차 조사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한 뒤 전화통화를 통해 적격응답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화조사의 응답률(적격응답자의 응답률)은 약 35%였으며,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유효표집인원은 1,000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본문에서 통계분석에서 유의도 수준은 $p<0.05= *$, $p<0.01= **$, $p<0.001= ***$ 으로 표기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대는 40대가 약 8할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할 안팎이었는데, 이와 같은 연령대의 편중현상은 모집단의 인구학적 속성(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 기인한다.

자녀의 성별구성은 아들이 딸보다 많았으며,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는 고등학생이 약 63%로서 중학생보다 훨씬 많은 편이었다(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장자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함).

〈표IV-2〉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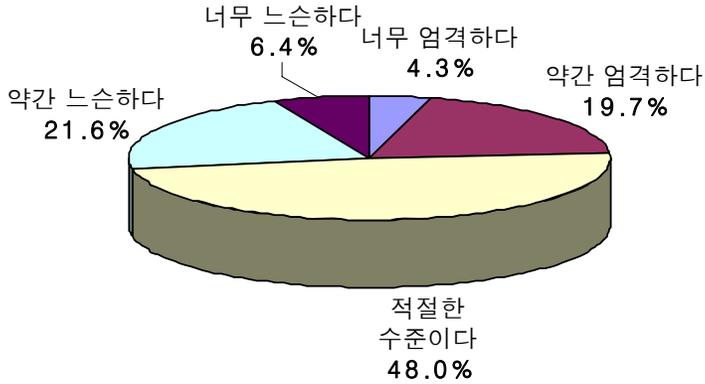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494	49.4
	여자	506	50.6
연령대	30대	89	8.9
	40대	792	79.2
	50대 이상	119	11.9
자녀 성별	아들	538	53.8
	딸	462	46.2
자녀 교급	중학생	371	37.1
	고교생	629	62.9
거주지역	서울	250	25.0
	광역시	251	25.1
	시군부	499	49.9

2. 학교생활 관련

1)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의견

학부모들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복장, 두발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24%, 적절하다는 의견이 48%, 느슨하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학부모들은 학교의 복장, 두발 규제가 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Ⅳ-1] 학교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생각

학부모들의 성, 연령, 지역 등 하위집단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성학부모(29.3%)가 여성학부모(26.5%) 보다, 30대(28.1%)와 40대(26.8%) 보다는 50대 이상(36.1%)의 학부모가 학교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이 느슨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Ⅳ-3> 학교의 복장, 두발 등의 규제와 단속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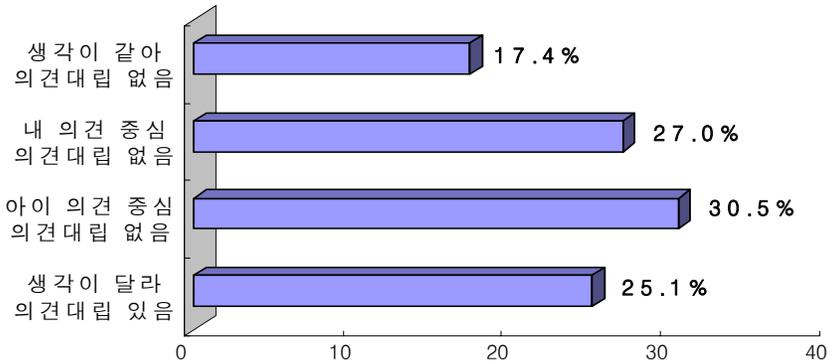
		(단위 :%)				
		너무 엄격하다	약간 엄격하다	적절한 수준이다	약간 느슨하다	너무 느슨하다
성1)	남성	4.5	17.4	48.6	23.3	6.3
	여성	4.2	21.9	47.4	20.0	6.5
연령2)	30대	5.6	13.5	52.8	20.2	7.9
	40대	4.3	21.5	47.5	21.5	5.3
	50대+	3.4	12.6	47.9	23.5	12.6
지역3)	서울	5.6	19.6	48.4	16.8	9.6
	광역시	4.8	21.9	46.2	23.9	3.2
	시군부	3.4	18.6	48.7	22.8	6.4

통계: 1) $\chi^2=4.02$, 2) $\chi^2=16.35^*$, 3) $\chi^2=14.87$

2) 복장, 두발로 인한 평소 자녀와의 의견대립 실태

평소 자녀의 복장과 두발 상태로 인해 자녀와 의견대립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각이 같아 의견대립 없음’이 17.4%, ‘내 의견을 따라주어 의견대립 없음’이 27%, ‘아이 의견을 따라주어 의견대립 없음’이 30.5%, ‘생각이 달라 의견대립 있음’이 25.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들의 복장, 두발로 인한 의견대립은 4분의 1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IV-2] 복장, 두발로 인한 평소 자녀와의 의견대립 여부

성, 연령, 지역별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30대(31.5%)가 40대(24.9%)와 50대 이상(21.8%)에 비해 그리고 서울(31.6%)이 광역시(24.3%)와 시군부에 비해 자녀의 복장, 두발로 인한 의견대립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 복장, 두발로 인한 평소 자녀와의 의견대립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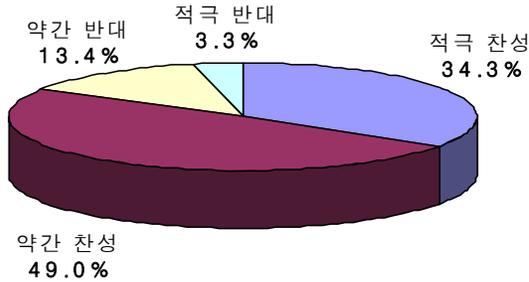
		생각이 같아 의견대립 없음	내 의견 따라주어 의견대립 없음	아이 의견 따라주어 의견대립 없음	생각이 달라 의견대립 있음
성1)	남성	20.4	27.1	28.5	23.9
	여성	14.4	26.9	32.4	26.3
연령2)	30대	19.1	25.8	23.6	31.5
	40대	16.5	27.4	31.2	24.9
	50대+	21.8	25.2	31.1	21.8
지역3)	서울	16.4	14.8	37.2	31.6
	광역시	13.5	27.9	34.3	24.3
	시군부	19.8	32.7	25.3	22.2

통계: 1) $\chi^2=7.01$, 2) $\chi^2=5.55$, 3) $\chi^2=39.03^{***}$

3)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 복장이나 두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조사하였는데, 찬성이 83.3%, 반대가 16.7%로 나타나 규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³¹⁾.

31) ‘네티즌들은 대체로 두발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엄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권침해라는 반응입니다. 또 두발단속은 일체의 잔재물인데, 아직 까지도 두발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습니다.....반면 두발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두발단속은 판단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율에 맡길 경우 탈선을 조장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두발단속 폐지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학교에서 이처럼 학생들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은 용의가 단정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학생지도 담당교사라는 한 네티즌은 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두발단속을 하고 있다며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학생답게 단정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또 두발자유화를 하면 시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비판과 항의가 이어진다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라는 네티즌은 두발 단속은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 규율을 따르도록 부모가 설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문화일보, 2007.11.11일자)



[그림IV-3]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빈도 경향과 비슷하였으나 광역시의 학부모(21.1%)가 서울(16.4%)과 시군부(14.6%)의 학부모에 비해 다소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5> 학교의 학생 복장, 두발 규제에 대한 의견

(단위 :%)

		적극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적극 반대
성1)	남성	36.2	46.6	13.2	4.0
	여성	32.4	51.4	13.6	2.6
연령2)	30대	31.5	50.6	15.7	2.2
	40대	33.3	50.3	13.1	3.3
	50대+	42.9	39.5	13.4	4.2
지역3)	서울	30.0	53.6	13.2	3.2
	광역시	33.9	45.0	17.5	3.6
	시군부	36.7	48.7	11.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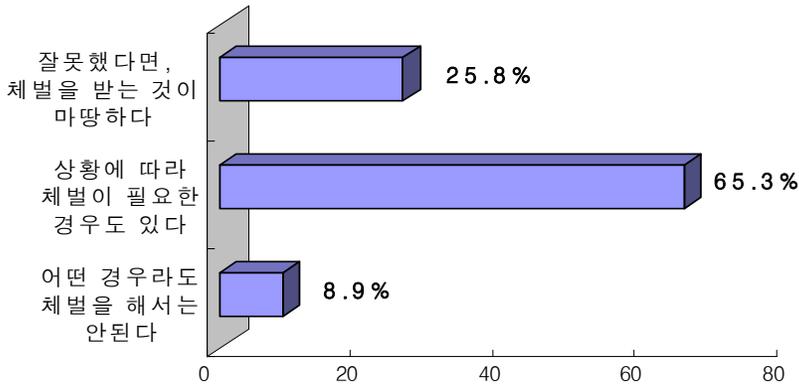
통계: 1) $\chi^2=3.95$, 2) $\chi^2=6.45$, 3) $\chi^2=8.82$

4)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사가 체벌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체벌에 긍정적인 의견이 91.1%, 반대하

는 의견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자녀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잘못했을 때의 체벌은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²⁾.



[그림Ⅳ-4]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32)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각주차원에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일리노이주, 조지아주,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 하에 체벌을 허용한다. 체벌 사용 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체벌의 원인이 된 행위에 관해 고지하지 않는 한 체벌을 사용할 수 없다. 네바다주의 경우 체벌을 반대하고 다른 모든 훈육수단이 비효과적이라고 입증된 후에만 가해져야 한다고 한다. 안전장치로 제2의 교직원 앞에서 행해져야 하고 체벌의 사유를 학생들 앞에 밝히고 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매질은 교장의 자문 후에 다른 성인 앞에서만 할 수 있다. 몬타나주에서는 체벌은 또 다른 교사나 교장의 면전에서 가해져야 한다. 워싱턴 주에서는 학구직원이 임석해야 한다. 서버지니아 대법원은 다른 주보다 한층 앞서가고 있다. 학생들은 혼란스런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한 설명이 공정한 사람에게 체벌이 정당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고 판결하였다. 버지니아 주는 또한 체벌이나 몽둥이 또는 체벌을 가하는 다른 고안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유는 이 도구들의 진정한 성격은 그것의 사용이 과도한 물리력과 부상을 종종 낳기 때문이다. 네바다와 워싱턴주는 학생들의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때리는 것을 금지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학생들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할 수 없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가장 큰 벌은 영당이 6번 정도 찰싹 때리는 것이다.’(국정브리핑, 2007. 6. 14일자)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광역시(12.4%)의 학부모들이 서울(7.2%)과 시군부(8%) 보다 다소 높은 체벌 반대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체 기본 빈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표IV-6>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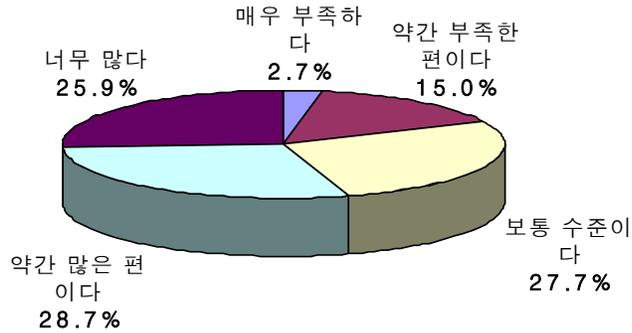
(단위 :%)

		잘못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성1)	남성	28.7	61.3	9.9
	여성	22.9	69.2	7.9
연령2)	30대	25.8	62.9	11.2
	40대	25.9	65.5	8.6
	50대+	25.2	65.5	9.2
지역3)	서울	24.0	68.8	7.2
	광역시	32.3	55.4	12.4
	시군부	23.4	68.5	8.0

통계: 1) $\chi^2=6.77^*$, 2) $\chi^2=.75$, 3) $\chi^2=15.12^{**}$

5)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학교수업, 학원, 과외학습, 자습시간 등을 모두 합친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17.7%, 보통 수준이다가 27.7%, 많다는 의견이 54.6%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IV-5]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40대(19.3%)와 30대(16.8%)가 50대 이상(7.6%)에 비해 자녀의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군부(21.6%)가 서울(14.4%)과 광역시(13.2%)보다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7> 자녀의 공부시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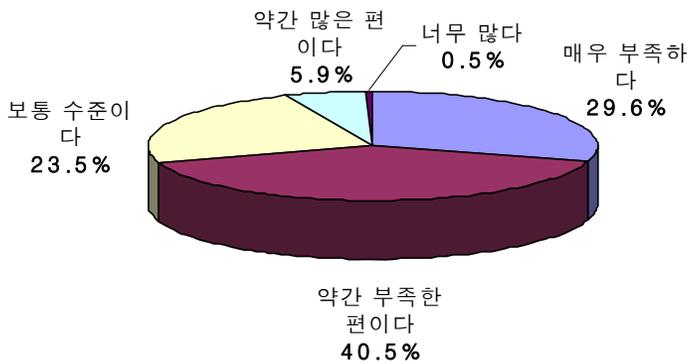
(단위 :%)

		매우 부족하다	약간 부족한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너무 많다
성1)	남성	2.6	13.6	26.9	28.5	28.3
	여성	2.8	16.4	28.5	28.9	23.5
연령2)	30대	1.1	15.7	34.8	30.3	18.0
	40대	2.8	16.5	26.9	28.0	25.8
	50대+	3.4	4.2	27.7	31.9	32.8
지역3)	서울	4.0	10.4	31.2	24.8	29.6
	광역시	2.4	10.8	33.5	29.5	23.9
	시군부	2.2	19.4	23.0	30.3	25.1

통계: 1) $\chi^2=3.83$, 2) $\chi^2=18.36^*$, 3) $\chi^2=26.87^{**}$

6)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70.1%, 보통 수준이다가 23.5%, 많은 편이란 의견이 6.4%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그림IV-6]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로 분석하여 보면 30대(61.8%) 보다는 40대(70.7%)와 50대 이상(72.3%)의 학부모가 자녀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현재 수도권 인구가 2,400여만명으로 전국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살림살이조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인구의 편중, 부의 편중이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아이들의 자연결핍장애 현상 역시 부의 편중 못지않게 우리시대에 풀어야 할 숙제이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났지만 정작 직장인 2명중 1명은 예년과 다르지 않게 집안에서 여가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같은 환경 때문이다. 아이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오히려 실내에서 컴퓨터로 세상을 접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국정브리핑, 2007. 8. 3일자)

<표IV-8> 자녀의 여가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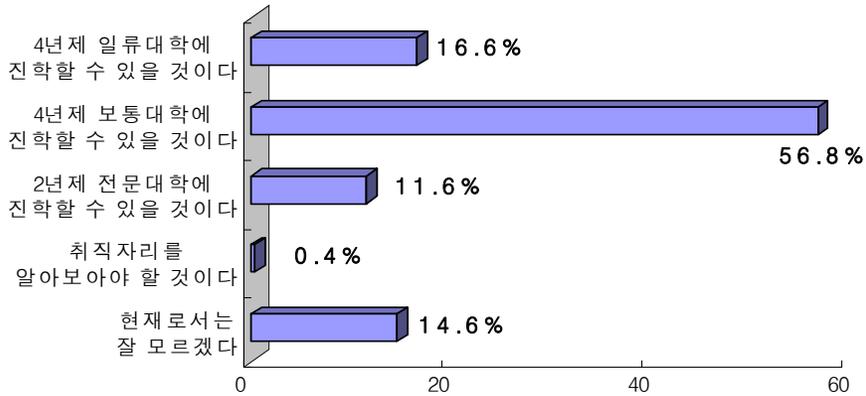
		매우 부족하다	약간 부족한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너무 많다
성1)	남성	27.3	42.9	24.1	5.1	0.6
	여성	31.8	38.1	22.9	6.7	0.4
연령2)	30대	19.1	42.7	30.3	6.7	1.1
	40대	30.7	40.0	23.0	5.9	0.4
	50대+	30.3	42.0	21.8	5.0	0.8
지역3)	서울	31.6	35.6	24.4	7.2	1.2
	광역시	28.3	33.1	29.9	8.8	
	시군부	29.3	46.7	19.8	3.8	0.4

통계: 1) $\chi^2=4.64$, 2) $\chi^2=7.32$, 3) $\chi^2=29.13^{***}$

7) 자녀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

자녀가 현재와 같이 생활하였을 때,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가 어떤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4년제 일류대학에 진학’이 16.6%, ‘4년제 보통대학에 진학’이 56.8%,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이 11.6%, ‘취직’이 0.4%, ‘잘 모르겠다’가 14.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73.4%의 대다수 학부모들의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자녀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

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성, 연령, 지역별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것으로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자녀의 고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기대

(단위 :%)

		4년제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4년제 보통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자리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성1)	남성	16.8	58.1	10.3	0.4	14.4
	여성	16.4	55.5	12.8	0.4	14.8
연령2)	30대	13.5	51.7	10.1		24.7
	40대	16.4	57.6	12.0	0.5	13.5
	50대+	20.2	55.5	10.1		14.3
지역3)	서울	17.6	59.2	7.2		16.0
	광역시	20.7	53.4	11.2	1.2	13.5
	시군부	14.0	57.3	14.0	0.2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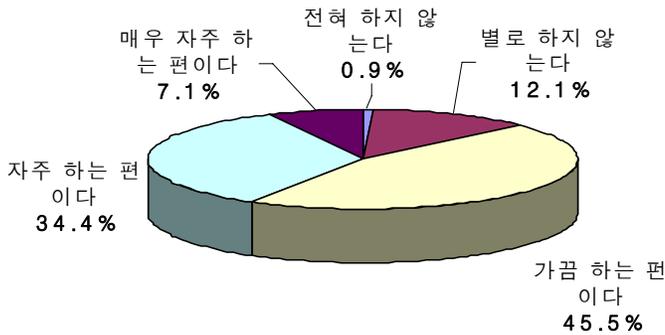
통계: 1) $\chi^2=1.72$, 2) $\chi^2=10.44$, 3) $\chi^2=18.25^*$

3. 가정생활 관련

1) 자녀와의 대화 실태

자녀와 어느 정도나 대화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혀 하지 않는다’가 0.9%, ‘별로 하지 않는다’가 12.1%, ‘가끔 하는 편이다’가 45.5%, ‘자주 하는 편이다’가 34.4%, ‘매우 자주 하는 편이다’가 7.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13%의 학부모들은 자녀와 전혀 혹은 거의 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활성화가 요구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IV-8]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

이에 대해 하위집단별 분석을 살펴보면, 남자학부모(15.8%)가 여자학부모(10.3%) 보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10> 자녀와 대화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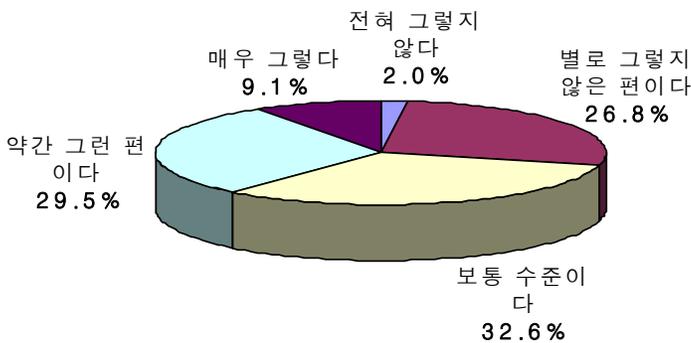
(단위 :%)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하는 편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매우 자주 하는 편이다
성1)	남성	1.0	14.8	49.4	29.8	5.1
	여성	0.8	9.5	41.7	38.9	9.1
연령2)	30대	2.2	11.2	32.6	42.7	11.2
	40대	0.8	12.5	46.5	33.7	6.6
	50대+	0.8	10.1	48.7	32.8	7.6
지역3)	서울	0.8	10.8	36.0	40.8	11.6
	광역시	1.2	13.9	47.4	31.9	5.6
	시군부	0.8	11.8	49.3	32.5	5.6

통계: 1) $\chi^2=21.01^{***}$, 2) $\chi^2=10.72$, 3) $\chi^2=21.65^{**}$

2) 자녀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정도

자녀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28.8%, 보통 수준이 32.6%, 그렇다가 38.6%로 나타났다.



[그림IV-9] 자녀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정도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여성학부모(44.7%)가 남성학부모(32.4%)에 비해 자녀가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얘기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밀착성이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표IV-11> 자녀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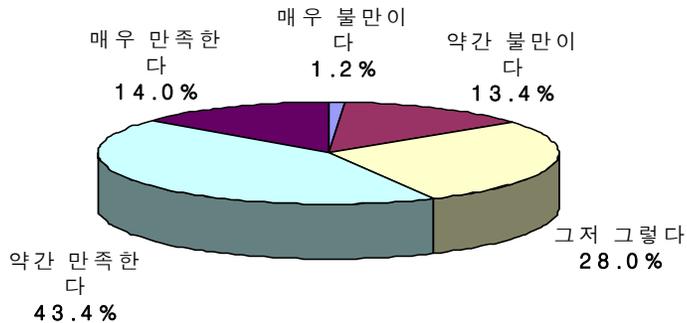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성	3.2	31.6	32.8	25.7	6.7
	여성	0.8	22.1	32.4	33.2	11.5
연령2)	30대	4.5	21.3	28.1	33.7	12.4
	40대	1.8	27.8	32.4	29.0	9.0
	50대+	1.7	24.4	37.0	29.4	7.6
지역3)	서울	2.0	25.6	24.8	31.2	16.4
	광역시	2.0	23.9	37.1	29.1	8.0
	시군부	2.0	28.9	34.3	28.9	6.0

통계: 1) $\chi^2=26.86^{***}$, 2) $\chi^2=7.79$, 3) $\chi^2=28.88^{***}$

3)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7.4%, 그저 그렇다는 경우가 28%, 불만인 경우가 14.6%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과반수 가까운 학부모들은 불만이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IV-10]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50대(66.4%)가 30대(45%)와 40대(56.3%)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경향성을 알 수 있다.

<표IV-12>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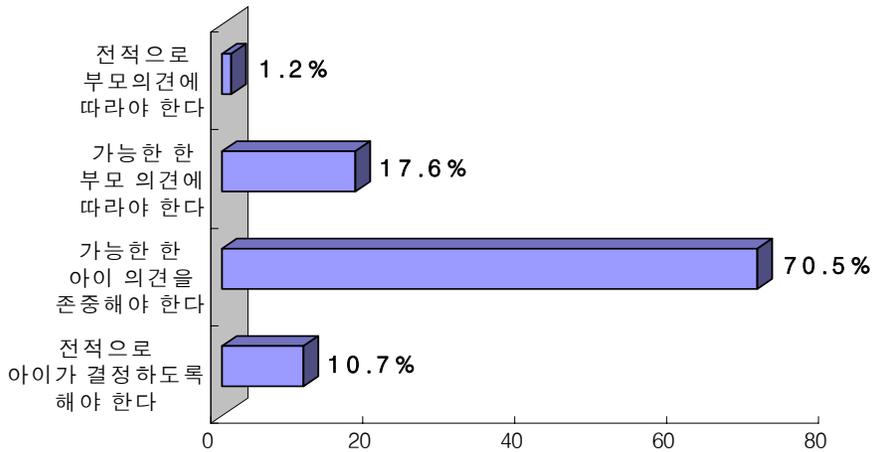
(단위 :%)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1)	남성	0.8	12.3	30.6	43.9	12.3
	여성	1.6	14.4	25.5	42.9	15.6
연령2)	30대	4.5	15.7	24.7	40.4	14.6
	40대	0.9	14.0	28.8	41.9	14.4
	50대+	0.8	7.6	25.2	55.5	10.9
지역3)	서울	1.6	11.6	25.2	46.0	15.6
	광역시	1.6	10.8	28.7	45.0	13.9
	시군부	0.8	15.6	29.1	41.3	13.2

통계: 1) $\chi^2=6.31$, 2) $\chi^2=18.78^*$, 3) $\chi^2=7.75$

4)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의견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18.8%, 아이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IV-11]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의견

다음과 같은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전체 기본 빈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³⁴⁾.

34)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고교 2~3학년, 진로·직업 과목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2,172개 고교 가운데 진로·직업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학교는 54.2%인 1,178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계고보다 사회에 먼저 진출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전문계고(옛 실업고)는 714개교 중 331개교(46.3%)만 개설, 교육이 더 부실했다. 일반계고는 1,458개교 가운데 847개교(58.1%)가 선택했다.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개설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52개교 가운데 118개교(77.6%)에 달했고, 대전이 60개교 중 43개교(71.7%), 충북이 82개교 중 57개교(69.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에는 61개교 중 고작 7개교(11.5%)에만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어 가장 높은 전남과 7배 차이가 났다. 학교에 배치된 진로상담 교사의 수도 전국 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0.61명), 경북(0.62명), 경기(0.72명) 등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진로교육 강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7. 8.27일자)

<표IV-13> 자녀의 진학 및 진로 문제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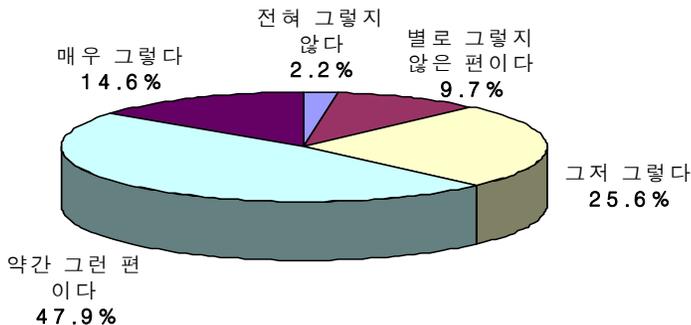
(단위 :%)

		전적으로 부모의견에 따라야 한다	가능한 한 부모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가능한 한 아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전적으로 아이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성1)	남성	0.8	19.8	68.6	10.7
	여성	1.6	15.4	72.3	10.7
연령2)	30대	1.1	16.9	75.3	6.7
	40대	1.0	18.8	69.1	11.1
	50대+	2.5	10.1	76.5	10.9
지역3)	서울	2.0	10.4	77.2	10.4
	광역시	1.2	16.7	65.7	16.3
	시군부	0.8	21.6	69.5	8.0

통계: 1) $\chi^2=4.51$, 2) $\chi^2=9.04$, 3) $\chi^2=27.39^{***}$

5) 집안의 대소사에 자녀의 의견 존중 실태

집안의 여러 가지 일에 관해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다는 의견이 62.5%,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25.6%,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1.9%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가정에서 집안 일에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40% 가까운 가정에서는 집안 일에 자녀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다뤄지거나 혹은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IV-12] 집안의 대소사에 자녀의 의견 존중 여부

이에 대해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전체 기본 빈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4> 집안의 대소사에 자녀의 의견 존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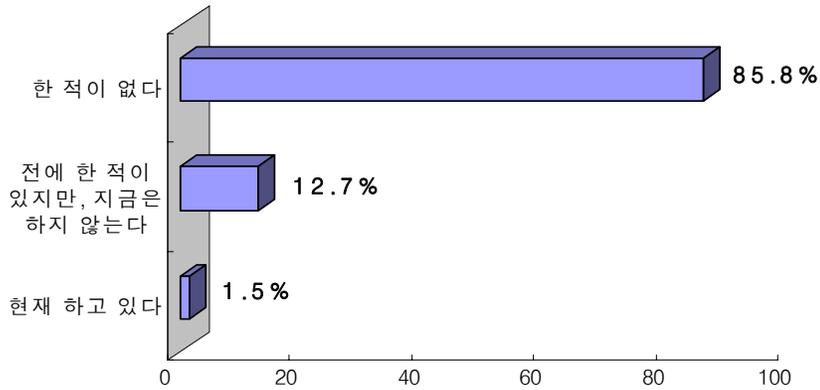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성	2.0	10.5	28.3	46.0	13.2
	여성	2.4	8.9	22.9	49.8	16.0
연령2)	30대	3.4	6.7	21.3	56.2	12.4
	40대	2.0	10.4	26.5	47.7	13.4
	50대+	2.5	7.6	22.7	42.9	24.4
지역3)	서울	2.8	9.2	8.4	58.8	20.8
	광역시	2.8	11.6	26.7	45.0	13.9
	시군부	1.6	9.0	33.7	43.9	11.8

통계: 1) $\chi^2=5.85$, 2) $\chi^2=14.52$, 3) $\chi^2=62.10^{***}$

6)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2%이고 한 적이 없는 경우가 85.8%로 나타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IV-13]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도 50대(21%)의 학부모가 30대(6.7%)와 40대(14%) 보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성을 알 수 있겠다.

<표IV-15>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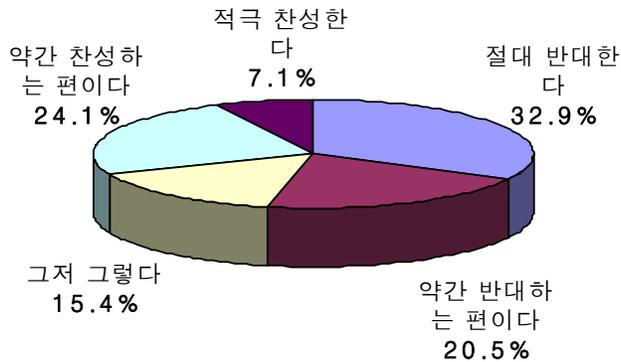
(단위 :%)

		한 적이 없다	전에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현재 하고 있다
성1)	남성	87.2	11.7	1.0
	여성	84.4	13.6	2.0
연령2)	30대	93.3	6.7	
	40대	86.0	12.4	1.6
	50대+	79.0	19.3	1.7
지역3)	서울	88.0	11.6	0.4
	광역시	89.6	8.8	1.6
	시군부	82.8	15.2	2.0

통계: 1) $\chi^2=2.49$, 2) $\chi^2=9.36$, 3) $\chi^2=9.80^*$

7)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하는 경우가 53.4%, 그저 그렇다가 15.4%, 찬성하는 경우가 31.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³⁵⁾.



[그림IV-14]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다음과 같이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역시도 전체 기본 빈도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나고 있었다.

35)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청소년기에 일했던 경험이 장래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아를 실현할 직업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자리의 제공도 중요하고,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최소한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국정브리핑, 2007. 7.27일자)

〈표IV-16〉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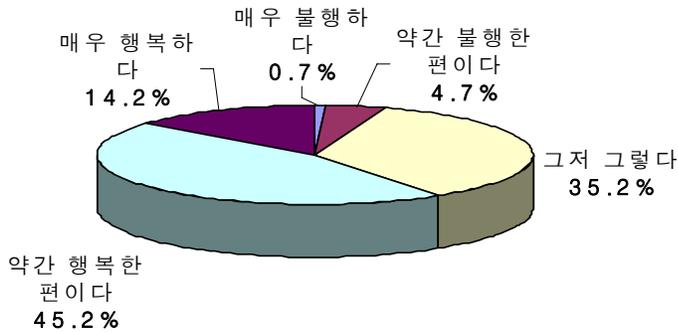
(단위 :%)

		절대 반대한다	약간 반대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성1)	남성	31.6	20.4	17.0	23.9	7.1
	여성	34.2	20.6	13.8	24.3	7.1
연령2)	30대	37.1	18.0	16.9	23.6	4.5
	40대	32.3	20.8	15.7	23.7	7.4
	50대+	33.6	20.2	12.6	26.9	6.7
지역3)	서울	34.0	18.8	5.6	32.4	9.2
	광역시	36.3	19.9	20.3	18.3	5.2
	시군부	30.7	21.6	17.8	22.8	7.0

통계: 1) $\chi^2=2.17$, 2) $\chi^2=3.10$, 3) $\chi^2=37.68^{***}$

8)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한지 여부를 묻은 결과, 행복하다는 경우가 59.4%, 그저 그렇다가 35.2%, 불행하다는 경우가 5.4%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IV-15]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석에서는 서울(70%)의 학부모들이 광역시(55%)와 시군부(56.3%) 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17> 학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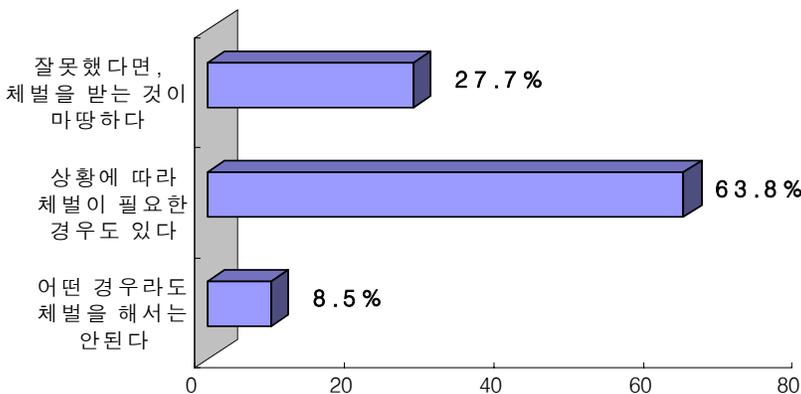
(단위 :%)

		매우 불행하다	약간 불행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성1)	남성	0.8	4.0	34.0	45.3	15.8
	여성	0.6	5.3	36.4	45.1	12.6
연령2)	30대	1.1	4.5	39.3	40.4	14.6
	40대	0.4	5.1	35.1	45.7	13.8
	50대+	2.5	2.5	32.8	45.4	16.8
지역3)	서울	0.4	2.8	26.8	50.0	20.0
	광역시	1.2	4.4	39.4	43.0	12.0
	시군부	0.6	5.8	37.3	43.9	12.4

통계: 1) $\chi^2=3.18$, 2) $\chi^2=10.26$, 3) $\chi^2=21.11^{**}$

9)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중·고등학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체벌에 긍정적인 의견이 91.5%, 체벌에 반대하는 의견이 8.5%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V-1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학부모(10.7%)가 여성학부모(6.0%)에 비해 다소 체벌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30대(10.1%)가 40대(8.3%)와 50대 이상(8.4%)에 비해 체벌에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18>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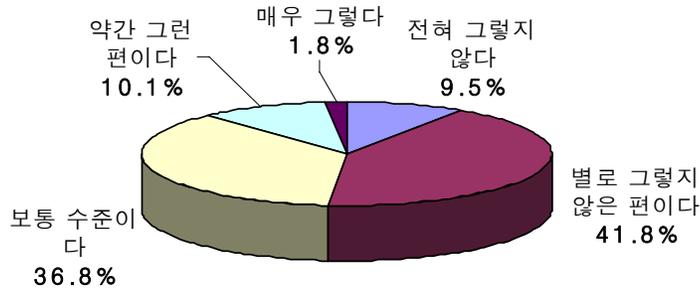
		잘못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성1)	남성	30.0	59.3	10.7
	여성	25.5	68.2	6.3
연령2)	30대	27.0	62.9	10.1
	40대	27.3	64.4	8.3
	50대+	31.1	60.5	8.4
지역3)	서울	27.6	64.0	8.4
	광역시	34.3	56.6	9.2
	시군부	24.4	67.3	8.2

통계: 1) $\chi^2=10.59^{**}$, 2) $\chi^2=1.12$, 3) $\chi^2=9.02$

4. 인권보장 수준 평가

1)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수준에 관한 의견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 조사결과, 그렇다는 의견이 11.8%, 보통 수준이다가 36.8%,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1.3%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학부모들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Ⅳ-17] 우리나라의 국민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생각

하위집단별 분석에서 여성학부모(53.8%)가 남성학부모(48.8%)에 비해 그리고 서울(66%)의 학부모가 광역시(45.9%)와 시군부(46.7%)에 비해 우리나라가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Ⅳ-19> 우리나라의 국민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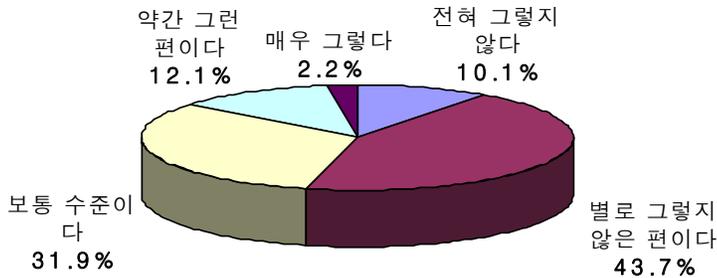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성	8.5	40.3	38.1	10.7	2.4
	여성	10.5	43.3	35.6	9.5	1.2
연령2)	30대	6.7	48.3	31.5	13.5	
	40대	10.0	40.4	37.8	10.1	1.8
	50대+	8.4	46.2	34.5	7.6	3.4
지역3)	서울	14.0	52.0	25.6	6.4	2.0
	광역시	10.0	35.9	40.2	13.1	0.8
	시군부	7.0	39.7	40.7	10.4	2.2

통계: 1) $\chi^2=4.51$, 2) $\chi^2=8.93$, 3) $\chi^2=36.54^{***}$

2)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의견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인권을 잘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그렇다는 의견이 14.3%, 보통 수준이다가 31.9%,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3.8%로 나타나 앞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에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 수준을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³⁶⁾.



[그림IV-18]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생각

이에 대해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울(68.8%)의 학부모들이 광역시(51.8%)와 시군부(47.3%) 보다 청소년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더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서울지역 중·고생 779명과 교사 202명, 학부모 17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학생 420명(54.1%)이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 라고 답해 어느 정도 그렇다 라고 답한 교사들(96명·48.4%)과는 차이를 보였다’(연합뉴스, 2006. 6.22일자)

<표IV-20>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성1)	남성	9.7	42.7	30.8	13.6	3.2
	여성	10.5	44.7	33.0	10.7	1.2
연령2)	30대	7.9	46.1	30.3	13.5	2.2
	40대	10.2	43.4	32.4	12.2	1.6
	50대+	10.9	43.7	29.4	10.1	5.9
지역3)	서울	16.4	52.4	18.4	10.0	2.8
	광역시	9.6	42.2	32.7	15.1	0.4
	시군부	7.2	40.1	38.3	11.6	2.8

통계: 1) $\chi^2=7.27$, 2) $\chi^2=10.05$, 3) $\chi^2=48.52^{***}$

5. 요약과 논의

본 학부모 조사는 총 18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조사된 학생 조사 지표 중에 학부모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지표를 감안하여 구성되었으며 일부 지표는 학부모 조사만으로 의미가 있어 함께 구성되었다. 조사된 각 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관련 학생 조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과반수 가까이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두발과 복장 규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제의 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두발이나 복장 규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과 상충하고 있어 잠재적 대립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복장 혹은 두발 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이 많은 경우는 없었으며 다

만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는 연령층에서는 30대와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다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4분의 1정도 의견대립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학생들의 심층면접결과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두발에 대한 규제에는 강한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의 규제와 자율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학생 복장과 두발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의 반대 견해와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공부시간의 양에 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많은 공부시간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학업 중심의 우리 학교문화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서 공부시간이 많다고 생각한 응답결과와 연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학업에 의한 청소년 발달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가 포함된 결과로 보여진다.

자녀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대부분 4년제 대학에 진학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자녀와의 대화 정도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평소에 가끔 이상은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10명중 1명 이상 꼴로는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중요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대화상대로 부모님 보다는 친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응답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정작 자녀에게 중요한 문제는 대화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분의 1 가까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부족하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자녀간의 대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학생들은 고민

거리를 털어놓는 대화상대로 대부분 친구를 선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와 달리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매우 열려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었으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경우도 과반수 가까이 되어 이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 문제에 대해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진학 및 진로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학생 조사결과, 진학과 진로 문제에 본인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의견이 66%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낮다는 점은 실제 부모자녀간에 메워야 할 갭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반수의 이상의 학부모들이 집안의 여러 의사결정에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최근 우리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학부모 조사결과는 대체로 낮게 나와 앞서의 학생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업중심 학교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조사 때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때,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시기가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긍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는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와 매우 유사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 체벌에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부모들에 의한 체벌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학생 체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교육적 체벌에 대해서는 체벌의 주체와 상관없이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아직도 인권수준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인권 선진국에는 못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사항목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질문과도 같은데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앞서 일반적인 인권 수준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열악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함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것이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청소년 인권정책 제언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3개년 연속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청소년 인권·환경 실태분석을 위한 총 152개에 달하는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을 개발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에는 지표 항목들 중에서 공식 행정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정성지표 항목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청소년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단위 설문조사(6,800명)와 개별 면접조사(50명),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의 전화 면접조사(1,000명)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내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별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 인권실태

1) 청소년 생존권 실태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격조건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과반수가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며, 수면시간도 대부분 부족한 상태였고, 흡연이나 음주의 기회가 있을 때 저항하는 비율도 낮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으며, 저녁식사를 집에서 하는 청소년도 절반에 못 미쳤는데, 과중한 학업부담이 그 주된 요인으로 추측된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현

상이 보다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영양섭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질병에 대한 태도이다. 아프더라도 일단 등교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3/4 이상이었고,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기보다는 과반수가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고 응답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학교 보건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과중한 학업부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고, 4명 중 1명꼴로 학교친구를 경쟁상대로 의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청소년 보호권 실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구타, 협박, 성적인 놀림/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할을 넘었으며, 5명 중 1명은 돈이나 물품을 빼긴 경험이 있었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부모님으로부터, 2/3 정도가 교사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체벌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고, 적극적으로 체벌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실태를 보면, 성에 따른 차별,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이 각각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전체의 2할) 중 1/3 가량이 나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의 유교적 가치관과 성적 위주의 경쟁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인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는 데 대해서 1/3 정도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의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교성적과 진학/진로 문제였는데,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부모님과 상의하는 경우는 소수에 머물렀고 과반수 이상이

친구와 상담한다고 응답하여 부모-자녀간 대화단절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0명 중 1명이 상담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발달권 실태

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의지와 학업 성취동기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 자체에 대한 흥미와 열망보다는 학력차별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내면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로 전체의 과반수가 직장과 배우자를 얻는 데 유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가정환경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한편 사교육은 2할 수준에 머물러 많은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전체의 7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대부분 3시간 남짓한 수준이었지만,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소수인 반면, 여가시설에 대해서는 7할 정도가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업부담 경감을 통한 여가시간 확대에 못지 않게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문화·여가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청소년 참여권 실태

가족 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가족원 모두가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1/4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과반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무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학·진로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1/3에 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세대와의 대화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특히 복장보다는 두발 규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반발감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두발이나 복장에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과반수에 달하였다. 학생회장 후보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다는 응답률은 1/3 미만이었으며,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4 정도,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학교는 1할 미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학교도 1할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소수에 머물렀는데(전체의 1/4), 청소년기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소년인권 관련 학부모 인식

청소년인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두발/복장 규제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녀세대와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중 1/4 정도가 자녀의 두발/복장 문제로 의견대립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청소년에 대한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체벌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두발/복장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식격차가 존재하지만, 체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업 때문에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진로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7할 이상이 일류대학이나 최소한 4년제 대학 진학을 기대하고 있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반대하였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학부모의 대다수는 평소 가끔씩이라도 자녀와 대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데,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부모님과 상의하는 청소년이 소수임을 고려하면 부모-자녀간의 깊이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을 청소년과 비교하면,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이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발달권과 참여권 문제에서는 다소 의견이 다르거나 대립되는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2. 정책방향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학계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청소년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³⁷⁾.

1) 청소년인권지표의 체계적 활용방안 :

장기적·지속적 지표조사 및 청소년인권백서 발간

청소년인권지표는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시계열적인 변화양상 분석함으로써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과학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청소년인권지표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정책 기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체계적인 보완과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1차년도인 2006년에 총 152개 항목에 달하는 지표가 개발되었지만, 올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 선정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된 75개의 정성지표가 59개로 축소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적 타당성 및 중요도와 실제 조사에서의 측정가능성 사이에는 항상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기 마련

37) 본 보고서의 정책제언은 청소년인권의 전체 영역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에 국한하였다. 청소년인권의 각 영역별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별책 보고서(“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를 참조할 것.

이다³⁸⁾. 또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의 생활의식이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표체계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주기적인 개선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조사와는 달리 사회지표 개발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투입되는 것은 한차례의 조사에 머물지 않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정책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당초 3개년 연속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지표로서의 효용성과 정책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인권지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청소년인권백서”의 발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인권백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참여인권팀)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많은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길은배 외, 2001; 김경준, 2005a; 길은배 외 2005 등), 기초연구(김영자·김경준·이혜연, 2004)도 수행된 바 있지만 그 발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서의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추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인권 추진체계 정립방안 :

청소년 인권정책 주관부서 지정 및 정책협의기구 운영

청소년인권 관련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획, 조정에서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38) 사회지표 조사가 보편화되어 정책 개발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단일 지표체계를 개발하는데 대략 3~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인권지표체계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발되었고 개별 항목의 수가 150여개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지표로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 측정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3년 정도의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각 부처의 고유한 기능과 필요성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등 포괄적인 사업은 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형별 세부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각 부처별 분장업무의 주요내용은 <표 V-1> 참조).

<표 V-1> 청소년인권정책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 업무
국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참여인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보호 등 청소년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 권익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권익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구제지원 ·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 인권백서 발간 · 청소년 인권관련 시민사회운동 지원 등
국가 인권 위원회	인권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총괄팀 :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및 연간 업무계획 수립,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등 · 국제인권팀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조사분석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등 · 인권연구팀 : 사회권 분야 및 중장기 인권과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 등
	차별시정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총괄팀 : 차별시정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등 · 성차별팀 :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 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성 진정 사건 관련 업무 · 장애차별팀 : 장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 신분·나이차별팀 : 학력,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 이주인권팀 : 출신국가민족, 인종,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행위와 관련된 업무 등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 업무
	인권교육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팀 :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 공공교육팀 : 공공부문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공공부문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 시민교육팀 : 시민관련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민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교육인적 자원부	초·중·등 교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규정 제정, 학생인권 관련 정책 수립 · 학생권의 보호, 학생인권의 사회기여 등 · 학생인권침해(복장, 두발, 자치회활동 등) 시안 처리
여성 가족부	권익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 성매매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등
	인권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보건 복지부	아동안전 권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노동부	평등정책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 근로청소년 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법무부	인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인권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 간의 협력 ·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
	소년제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소년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년제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 기타 처우 · 교과교육소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직업훈련소년원의 직업전문학교과정 운영 ·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

이처럼 다양한 부처로 분산되어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인권 정책” 개념의 포괄성과 복합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인권정책”은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정책내용으로서의 “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특정 부처에서 전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에 국한할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러 부처의 청소년관련 정책³⁹⁾을 총괄·조정하며(청소년기본법 제9조), 관계부처간의 연계·조정 및 상호협의를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주관부처로 규정(청소년기본법 제10조)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책의 경우 그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V-1>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인권 정책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내용은 상호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예컨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인권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은 모두 6개 부처(부서)에서⁴⁰⁾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권관련 국제협약 담당 기관도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표명”), 법무부(“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 등 3개부처의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의 총괄·조정부서가 불명확하고, 유사한 업무내

39)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총 21개 부처로 나뉘어서 수행되고 있다.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 현황은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표 11-1-3>(p. 369)를 참조할 것.

40) 각 부처별 업무분장에 명시된 인권 기본계획관련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권의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 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여성가족부: 여성의 권익증진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법무부: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용에 대한 부처간 역할분담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합리적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행 청소년 인권정책 추진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 인권정책의 주관부서 또는 총괄·조정 부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업무내용과 실적, 정책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인권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중 한 부서가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인권”이 독자적인 소관업무로 담당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정책연구와 사업·프로그램 등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전담 인력의 부족(2006년 현재 6명)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정책 담당 부서로서의 전문성과 일반국민들의 높은 인지도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청소년인권이 다양한 인권정책의 하위영역으로 편성되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 정책 주관부서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잠정적으로는 정책대상(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추진 중인 사업의 실적과 규모⁴¹⁾ 등을 고려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⁴²⁾를 전제로 하여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인권정책 관련 부처의 업무 조정 및 협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 “청소년인권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41) 2006년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참여인권팀)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사업은 청소년특별회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소리기자단, 청소년인권센터 등 10여 건에 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정책총괄팀)의 사업은 중·고등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학생 운동선수 등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의 3건에 예산도 7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참조.

42)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7월 18일 “청소년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향후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p. 162 참조.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인권정책 추진체계의 정립을 위한 귀중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중인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동 협의회는 청소년정책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구⁴³⁾로서 인권문제와 같은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관련 정책을 다루는 독립된 조직과 담당인력을 보유한 부처들(예컨대, <표 V-1>에 제시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5~7개부처가 대상이 될 수 있다)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와의 관계 설정 및 기능 조정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2003년에 폐지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법적 위상 및 기능 참조)하고 그 하위조직으로서 “청소년인권정책소위원회”를 운영
- ② 기능조정을 통해 두 조직을 병립시키는 방안. 즉,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분의 부처와 관련이 있는 포괄적인 안건(예컨대,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등)을 다루고 인권문제와 관련된 안건은 청소년인권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다루도록 함
- ③ 청소년정책의 내용영역별(예컨대, 인권, 보호, 복지, 활동 등)로 별도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셋째, 청소년인권관계기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그 성격과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준하는 형태의 운영규칙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략적인 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V-2>와 같다.

넷째,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인권정책은 각 부처별 고유기능과 필요성에 따라 비체계적, 산발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업무상의 중복과 혼선 또는 공백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청소년

43)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는 가입대상은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 부처로서 대략 22개 기관에 달한다(단, 위원구성은 15인 이내로 제한됨).

44) 업무상 중복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인권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 국가

인권정책 총괄·조정 부서의 지정, 관계기관 협의기구의 운영이 실현되더라도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그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기관(또는 연구진)의 연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부처별 기능조정 방안을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표 V-2〉 청소년인권관계기관협의회(가칭)의 기능과 구성(안)

구분	내 용
목적	-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인권정책의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관간의 상설 협의·조정 기구
구성	- 위원장 :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청소년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처 소속의 팀장(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 10인 이내로 구성 - 간사 :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장 - 자문단 : 협의안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내용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협의안건	- 청소년인권 관련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 각 부처에서 차년도에 수행예정인 차년도 청소년 인권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 타 부처와의 협조 또는 업무 조정이 필요한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사업 - 기타 위원장이 부처간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안건
회의	- 정기회의 : 연 2회 개최(정례화) - 임시회의 :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동의에 의거 수시 개최

청소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4개 부처의 업무영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생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문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3개부처와 관련되어 있지만, 각 부처간의 업무상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여기서 논의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부처별 기능조정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하위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 중점 정책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부처는 부처의 고유기능에 따라 각각 학생청소년, 여성청소년, 아동 및 영·유아, 근로청소년, 비행/범죄청소년을 중점 정책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3〉 청소년 인권정책 관련부처의 기능조정 방안

부 처	정책대상	정책내용
국가청소년위원회	전체 청소년	청소년 인권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청소년 참여권 영역의 정책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청소년	국가 인권정책의 하위영역으로서의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설정 및 조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청소년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인권관련 현안문제(예컨대, 두발/복장 규제, 왕따, 체벌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여성가족부	여성 청소년	여성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성차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
보건복지부	아동 및 영·유아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영·유아 및 학령기 이전의 아동,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
노동부	근로 청소년	미성년 취업자의 노동현장에서의 인권문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법무부	비행/범죄 청소년	범죄/비행으로 처분을 받고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인 청소년의 교정·선도 대책

다음으로, 정책내용에 있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② 전체 청소년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거시적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평가 ③ 타부처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영역을 관장하고, 다른 부처는 정책대상과 관련한 시급한 정책현안 또는 부처의 고유기능과 직결된 제한된 영역의 정책과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위의 <표 V-3>과 같다.

3) 청소년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청소년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도입 및 운영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점검체제가 필요하다. 정책의 평가는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투입된 비용과 효과, 또는 과정과 절차 등 객관적·계량적 지표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평가결과가 피드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정량화될 수 없는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나 태도의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정책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시사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는 옴부즈퍼슨(ombuds person)⁴⁵⁾ 제도의 도입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의 경우에 1981년에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지원하는 공적인 제도로서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1973년부터 NGO 차원에서 옴부즈퍼슨 제도가 시행되다가 UN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1993년에 국가의 공적 제도로 바뀐 바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2000년에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일종의 옴부즈퍼슨 기구로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그 권한과 역할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준, 2005a).

45) 지금까지는 통상 옴부즈맨(ombudsman)으로 지칭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성중립적 개념인 옴부즈퍼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인권 ombudsman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인권 ombudsman 제도 운영을 위한 중앙기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직속의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단순한 자문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정책자문위원회⁴⁶⁾와는 달리, 청소년인권 정책의 주요 사안(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정책 추진실적 평가 등)에 대한 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인권 ombudsman 조직은 중앙기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청소년관련 인적 자원으로는 청소년시설·단체 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중에서 인권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거나 인권 관련 NGO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 청소년육성위원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지급 인사 중에서 위촉되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청소년인권 ombudsman 제도 운용의 참고사례로서 일본에서 1948년부터 약 60년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인권옹호위원”제도⁴⁷⁾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옹호위원은 법무대신이 인권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촉하는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전국 조직(인권옹호위원연합회)을 갖고 있으며

46)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수립·집행에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8개 분과에 총 79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분과의 하나로서 “인권분과위원회”가 편성되어 있는데, ombudsman 관련 별도의 기구가 설치된다면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분과의 기능과 인원을 발전적으로 흡수·통합해야 할 것이다.

47) 인권옹호위원은 다른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본 특유의 제도(人權擁護推進審議會, 2001)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서구의 인권사상의 확산을 통해 일본사회를 전쟁으로 이끌었던 군국주의, 봉건적 신분의식을 척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인권옹호협력회 전무이사(中江利明)와의 면담(2007. 8. #) 내용.

그 인원은 2006년 현재 약 14,000여명에 달한다. 주된 역할은 지역사회내에서의 인권의식 계발활동, 인권관련 상담활동,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지원활동 등⁴⁸⁾으로서, 특히 1988년부터는 청소년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청소년인권 전문위원”을 그 하위조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청소년인권 전문위원은 약 950여명인데,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인권상담소의 운영 등을 통해 이지메, 체벌, 부등교,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 청소년 인권문제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4) 청소년인권 보호시스템 구축방안 :

“사이버 청소년인권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상징적인 지표로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보급을 들 수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소수 전문가층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이용자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용회선의 보급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서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원, 2006).

인터넷은 특히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의 97%가 집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약 2.2 시간에 달하여 전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장근영·남주희, 2006).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실세계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의 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48) 법령(인권옹호위원법 제11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위원의 역할은 “1. 자유인권사상에 관한 계몽 및 선전, 2. 민간 차원의 인권옹호운동의 조장, 3.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그 구제를 위한 조사 및 정보수집을 하고 법무대신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 강구, 4. 빈곤층에 대한 소송 원조 등 인권옹호를 위한 적절한 구제방안 강구, 5. 기타 인권 옹호를 위한 노력” 등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비중을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인권문제 상담은 상담자의 신상에 대하여 고도의 익명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유형별 상담사례 등 전문적인 정보의 축적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여러 청소년관련 기관으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상담 서비스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사이버 청소년인권정보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⁴⁹⁾.

사이버 청소년인권정보센터는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상담·보호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인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기능)인 “청소년인권센터”와 “1388 청소년전화”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인권센터는 청소년인권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 침해사례 접수 및 개선포함,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인권 캠페인 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로서 2006년말 현재 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센터는 사회적 관심 부족, 열악한 재정, 전문인력과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이라는 설립취지 달성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165).

청소년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관과 시설이 설립되는 것은 일견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는 재고볼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정과 학교, 사교육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인권센터는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

49) “사이버 인권정보센터”는 길은배 외(2001)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바 있다. 센터의 역할·기능 및 웹페이지 메뉴구성 등은 길은배 외(2001: 245-246)의 내용을 참조할 것.

이버 청소년인권센터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88 청소년전화”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점사업인 사회안전망(CYS-net)의 관문(gateway)으로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위기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260).

전화를 통한 서비스는 매체의 특성상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서비스가 대화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같은 특화된 영역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상담원이 관계전문가나 기관을 소개해주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⁵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청소년정보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전화상담의 기능을 보완하는 매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게시판을 통하여 누적된 문제유형별 상담사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청소년인권정보센터”는 그 자체만이 갖는 독자적인 기능과 더불어 “1388 청소년전화”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완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0) 일본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상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1388 청소년전화” 서비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무국을 거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임현묵·이재분(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서울: 아우내 미래문화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로건강복지센터 외(2002. 6. 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 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무조정실(2002. 5).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 국제아동복지연맹홍콩지부·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서울: 한국지역사회복지회.
- 국제인권봉사회·한국인권단체협의회(1994). 유엔과 인권-유엔인권제도 교육 자료집.
- 길은배·이미리·임영식·이용교(2005). 청소년인권 실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a).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이춘화·최창욱·이용교(2005b).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원.(2003). 청소년과 인권: 권리의 주체인 어린이와 청소년. 한국청소년중앙협의회 사목, 제293집.
- 김영주 의원 보도자료(200. 10. 24). 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 평균 3.8%에 불과해.
- 김영지·이용교·김세진(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안재희(2001). 청소년 권리신장 정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이용교·임지연(2000).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활동 동향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김경준·이혜연(2004).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인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김진화·송병국·오해섭·윤명희·이택선·임영식·정효진(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진호·김경화·한상철·임성택·박정배(2004).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철·김신영(2005). 청소년개발지표 연구Ⅱ-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 청소년유해환경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조사운영과.
- 대한민국 정부(1999. 11).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2003).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 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 CRC/C/Q/REP/C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 대한변호사협회(2004). 인권보고서 - 2003년도 제18집.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도중수·고성혜·전명기(2002).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류은숙(2003). 한국의 인권운동의 성과와 과제. 세계헌법연구 제7호.
-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2호. pp. 103-120.
- 배경내(1998).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동인(1992). 시민사회의 개념: 사상사적 접근. 서울: 한울.
- 변용찬·서문희·배화옥(1998).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과천: 보건복지부.
- 서문희 외(2005).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박세경·안현애(2004).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평가 및 아동백서 발간에 관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

- 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신현직(2000). 학생의 인권과 학교규정제정에의 참여권.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심희기(2003). 청소년성보호법과 UN 아동권리조약.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2002).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3.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철경·김성경·김현주·박병식·이봉주(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범(1997).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원리와 이행방안.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pp.23-34.
- 이기범(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2호. pp. 69-83.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이명목·안경순·정경은·정민기(2006).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광주: 광주대학교 출판부.
- 이용교(2004).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서울: 인간과 복지.
- 이용교·고성혜·이희길(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의정(1985).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Likert 척도의 이용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과학 제9호, pp.51-85.
- 이재연(1997). 각 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실천 상황. 아동권리연구 제1권 제2호, pp. 5-20.
- 이재연(2004).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자료집.
- 이재연(2004).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방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 자료집.
- 이종원·황진구·이혜연(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2006). 청소년 인터넷중독,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문제론, pp.261-285. 서울: 교육과학사.
- 이중섭(2006).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보06.05-3.
- 이창수·윤영철·김영옥(2004).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역(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장근영·남주희(2006).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Ⅱ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근식·서승·정용화·이정은(2004). 한국형 인권지표의 모색. 서울: 경인문화사.
- 정승원(2000). 중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육실태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순·송연경(2002). 청소년의 원활한 고용 진입을 위한 학교 세팅에서의 직업교육 강화방안: 한국과 미국 비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진환(2005. 2. 25). 눈. 밖에. 나다, 2005년 혼혈인의 초상. 연세춘추. 8.
- 조아미(2006). 청소년 우대정책과 청소년증 활용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인권, pp. 29-52.
- 천정웅·김정주·김영지·임지연(1998).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체계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위원회(2004). 2004 청소년백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원기·전명기·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이혜주·이미리(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창욱·최창욱 등·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2002).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2005. 서울: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1987). 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pp. 5-20.
- 한국아동권리학회(1998).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국아동권리학회(2001). 한국의 아동지표. 서울: 학지사.
- 한국아동권리학회(2002. 4). 아동권리 모니터링 -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지역사회복지회 역(1999). 유엔아동권리협약 훈련교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5). 청소년인권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2005). 청소년인권론. 서울: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 지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7). 청소년 사회화과정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학회.
- 한국행정연구원(1997).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한상철(2006). 사회에서 청소년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2000年, 273호, pp. 16-19.
- 황옥경(2002). 유럽 국가들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황옥경(2003a).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수립방안. 아동권리연구, 제7권 1호, pp1-24. 서울 : 한국아동권리학회.
- 황옥경(2003b).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분석. 아동권리연구 제6권 2호. pp287-310. 서울 : 한국아동권리학회.
- 喜多明人·喜多セミナソレ編著(1997). みんなの權利候約. 草土文化.
- 人權擁護推進審議會(2001), 人權擁護委員制度の改革について - 諮問第2号に対する追加答申.

- 경향신문. 2007. 8.28일자.
- 국민일보. 2007. 9. 7일자.
- 국정브리핑. 2007. 6. 14일자.
- 국정브리핑. 2007. 7.27일자.
- 국정브리핑. 2007. 8. 3일자.
- 뉴스. 2007. 9. 5일자.
- 대전일보. 2007. 9. 9일자.
- 동아일보. 2007. 4. 19일자.
- 동아일보. 2007. 4.19일자.
- 문화일보. 2007.11.11일자.
- 부산일보. 2007. 8.22일자.
- 세계일보. 2007. 8.27일자.
- 연합뉴스. 2006. 3. 2일자.
- 연합뉴스. 2006. 6.22일자.
- 연합뉴스. 2007. 1. 18일자.

연합뉴스. 2007. 6.27일자.
쿠키뉴스. 2007. 7.14일자.
한겨레. 2006.12.10일자.
한겨레. 2006.12.10일자.

- Ainsworth, M.D.S., & Bowlby, J.(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46*.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Annie E. Casey Foundation(1998). *Kids count data book: State profiles of child well-being: 1998*. Baltimore: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 Barber, B. R.(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pp. 3296-3319.
- Bee, H.L., Barnard, K.E., Eyres, S.J., Gray, C.A., Hammond, M.A., Spietz, A.L., Snyder, C., and Clark, B. (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eri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Vol. 53*, pp. 1134-1156.
- Ben-Arieh, A., Kaufman, N. H., Anderws, A. B., Goerge, R. M., Lee, B., & Aber, J. L. (2001).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Norwell:Kluwer Academic Publisher.
- Benson, P. L., & Saito, R. N.(2001).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youth development. Youth Development: Issues, Challenges and Directions*. Philadelphia, PA: Public/Private Ventures.
-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 Washington, DC: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 Catalano, R. F., Berglund, L. M., Ryan, J. M., Lonczak, H., and Hawkins, J. D.(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Prevention and Treatment, 5*.
- Cerda, J. S.(1990). The draf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2, No. 1*, pp. 115-119.
-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1998). *Monitoring Children's Rights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Project*.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Switzerland.

- Cohen, C. P.(1990).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draft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uman Right Quarterly*, Vol. 12, No. 1, pp. 137-147.
- Constantine, N., Benard, B., and Diaz, M.(1999). Measuring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raits in youth: The Healthy Kids Resilience Assessment. Presented at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revention Research. New Orleans, LA.
- Cornia, G. & Danziger, S.(1997). Common themes, methodological approach, and main findings. In G. Cornia & S. Danziger. (Eds.) *Child poverty and deprivation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1845-1995*. Oxford:Clarendon Press.
- Council of Europe(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Covell, K. & Howe, R. B.(2001). *The challenge of children's rights for Canada: Studies in childhood and family in Canada*. Waterloo, Ontar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CRC Committee(2003).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 Doc. CRC/GC/2003/4).
- Detrick, S.(1999).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Donnelly, J. & Howard, R.(1988). Assessing national human rights performance: A theoretical framework. *Human Rights Quarterly*, Vol. 10. pp. 214-248.
- Eccles, J. S., & Gootman, J. A. (Eds.)(2002). *Community programs to promote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Ennew, J. & Miljeteig, P.(1996).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Progress report on a proj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4, pp. 213-236.
- Fanchette, S.(1974). *Problem of methodology and selection in UNESCO indicators: Problem of definition of selection*. Paris:UNESCO.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00).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pdf/ac1998/aifr.pdf>(2006.7.10)
- Ferber.(2002). *Ready by 21TM Indicators: Initial Recommendations to Maryland*. The Forum For Youth Investment.
- Fox, M. A., Connolly, B., Snyder, T. D.(2005). *Youth indicators 2005: Trends in the*

- well-being of American youth*.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Franklin, Bob and Hammarberg, Thomas(Eds.)(1995). *The handbook of children's rights - comparative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Freeman, M(Ed.)(1996). *Children's Rights: A comparative perspective*. Aldershot, 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Dartmouth.
- Gordon, D., Pantazis, C., Townsend, P.(2006). *Child rights and chil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Summary report to UNICEF*. Bristol: University of Bristol.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Hodgkin, R. & Newell, P.(2002).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York: UNICEF.
- Hodgson, D.(1994). The child's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 2*, pp. 369-394.
-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Jones, F.(2003). Indicators fo Child Devekoopment and Religious Commitment in Canada:A Fact Book. Riligious Commitment Monograph4 Christian Commitment Research Institute, Ottawa, Canada.
- Land, K. C.(1975). Social indicator models: An overview. In K. C. Land and S. Spilerman(Eds.), *Model of social indicators*. N.Y.: Russel Sage.
- Land, K. C., Lamb, V. L., and Mustillo, S.K.(2001).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1975-1998:Some Finding From a news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6*, pp. 241-320.
- Leary, V.(1994). The right to health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ealth and Human Rights, Vol. 1, No. 1*. pp. 25-56.
- LeBlanc, L. J.(1995).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lawmaking on human right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imber, S. P. & Flekkoy, M. G.(1995).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s relevance for social scientists. *Social Policy Report, Vol. 9, No. 2*, pp. 1-15.
- Lippman, L.(2001). Children and Young People: Indecators of Wellbeing in New

- Zealand in Indicators of Child,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Companion Volume of Related Papers. Child Trends.
- Lippman, L.(2002). *Indicators of Child,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elbourne city(2003). *Here & Now, Draft Youth Strategy 2000~2003.* Melbourne city.
-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2003). New Zealand Social Report.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http://unpan1.un.org/int>
- Moser, C.(1973). Social indicators-system,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2.*
- Mower, A. G.(1997).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law support for children.*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National Youth Rights Association(2006). Defining the Rights of Youth. Retrieved September 20, 2006, from <http://freechild.org/SNAYR/definingYR.htm>.
- New Zealand Social Report: 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in new zealand. 2003.
- Nowak, M.(2005). Article 6: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In A.Alen, J. Vande Lanotte, E.Verhellen, F. Ang, E., Berghmans, & M Verheyde (Eds.).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 Co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O'donnell(1996). *Children's Ombudsmen and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Radda Barenen: Stockholm.
- Ochaita, E., and Espinosa, A.(2001). Needs fo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their righ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 Parker, D., & Sepulveda, C., (1995). Children's right to survival and healthy development, In J.R. Himes (ed.),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ource Mobilization in low-income countries.*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Pereznieto(2005). Trans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to national policies with real impact on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hildhoods 2006, Oslo: Norway.
- Rintoul, B et al.,(1998).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c Health Serv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Rosalind Ekman ladd(1996). *Children's Rights Re-Visioned; Philosophical Reading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Sherrod, L. R., Flanagan, C. A., Kassimir, R. & Syvertsen, A. K.(Eds.)(2006). *Youth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London: Greenwood Press.
- Takankshi, R., Mortimer, A. M., & McGourthy, T. J.(1997). Positive indicators of adolescent development: Redressing the negative image of American adolescent. In R.M. Hauser, B.V. Brown, & W.R. Prosser (Eds.),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pp. 428-44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Tisdall, E. K. (1997).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Edinburgh : HMSO.
-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Youth Indicators 2005.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1996). Youth Indicators 1996. NCES 96-027,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3. 1).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report. www.unhchr.ch/html/menu2/6/crc/doc/session32.htm.
- UNDP(2001). Human Development Report
- UNESCO(1993).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ada.
- UNICEF(1998). *A Human Rights Approach to UNICEF Programming for Children and Women*. New York:1998.
- UNICEF(1999). *Progress of Nations*. New York: NY:UNICEF.
- UNICEF(2002).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3*. New York, NY:UNICEF.
- UNICEF(2005a).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5: Excluded and invincible*. New York, NY: UNICEF.
- UNICEF(2005b). *Child poverty in rich countries 2005*. New York, NY: UNICEF.
- UNICEF(2005c). *Young people health and development: National baseline evaluation of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of young popole*. Association Health for Youth. NY: UNICEF.
- UNICEF(2006).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06: Excluded and invincible*. New York, NY: UNICEF.
- United Nations(1989).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Child*. New York, NY: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0).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NY: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2004a). *Making Commitments Matter: a Toolkit for young people to evaluate national youth policy*.
- United Nations(2004a). *World youth report 2003: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ited Nations(2004b). *Resolution adopted by General Assembly: 58/133 Policies and programmes involving youth(A/RES/58/133)*.
- United Nations(2004c). *World Youth Report 2003: The global situation of young people*.
- United Nations(2005). *World youth report 2005: Young people today, and in 2015*.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Van Bueren, G.(1998).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 Boston, MA: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Waters et al.(2002). *Indicators for child health, development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monitoring*.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 WHO(2004).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Progress Report*.
- Wiseberg, L. S.(1995). The Opening of a dialogue. *Health and Human Rights, Vol. 1, No. 2*, pp. 121-124.
- World Bank(2004).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부 록



1. 조사표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2006년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

부 록 1. 조사표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의식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따로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자동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와 정책 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1.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치킨 등)를 얼마나 자주 먹는 편입니까?

1. 거의 먹지 않는다
2. 두세달에 1~2회 정도
3. 한달에 1~2회 정도
4. 일주일에 1~2회 정도
5. 일주일에 3~4회 이상

문2. 자신의 체격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매우 말랐다
2. 마른 편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비만인 편이다
5. 매우 비만하다

문3.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른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1. 없다
2. 하루
3. 이틀
4. 3일
5. 4일
6. 5일
7. 6일
8. 7일

문4. 지난 1주일 동안 저녁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1.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2.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3. 싸온 도시락을 밖에서 먹었다
4. 집 밖(학교, 학원 등)에서 식사를 했다

문5.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학교의 급식비나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있다
5. 항상 그렇다

문6. 지난 2주 이내에 결석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1. 지난 2주 이내에는 질병을 앓은 경험이 없다
2.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
3.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다 나았다

문7. 평일날(토·일요일 제외)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잡니까?

1. 5시간 이하
2. 5~6 시간 정도
3. 6~7 시간 정도
4. 7~8시간 정도
5. 8~9 시간 정도
6. 9시간 이상

문8. 평소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8-1. 담배 피우기

1. 피우지 않는다
2. 한두번 정도 우연히
3. 간혹 피우지만 한 두개피 정도이다
4. 하루 반갑 이하
5. 하루 한갑 정도
6. 하루 한갑 이상

8-2. 어른 몰래 술마시기

1. 마시지 않는다
2. 월 1회 이하
3. 월 2-3회 정도
4. 주 1~2회 정도
5. 일주일에 3회 이상

문9. 현재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은 제외)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아주 가끔씩 한다
3. 한달에 1~2회 정도
4. 일주일에 1~2회 정도
5. 일주일에 3~4회 이상

문10.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 수준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다

문11.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플 경우 당신은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

1. 아픈 것을 참고 등교하여 수업을 다 받는다
2. 학교에 등교한 뒤 양호실에서 쉬거나 조퇴한다
3. 부모님·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학교를 하루 쉰다

문12. 학교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까 ? 느낀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1. 전혀 느끼지 않는다
2. 거의 느끼지 않는다
3. 그저 그렇다
4. 조금 느낀다
5. 많이 느낀다

문13. 학교 친구들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습니까 ?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14.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당신은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

1.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낫기를 기다린다
2. 가능한 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약으로 해결한다
3.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문15.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학교주변은 범죄의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5-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1	2	3	4	5
15-2. 자신의 학교 주변	1	2	3	4	5

문16.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고 있다면 학교급식이 얼마나 안전하다(위생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다
2. 전혀 안전하지 않다
3. 별로 안전하지 않다
4. 그저 그렇다
5. 안전하다
6. 매우 안전하다

문17. 지금까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자살을 생각한 적은 있지만 시도한 경험은 없다
3.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문18.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다음의 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18-1. 경제적인 발전 수준	1	2	3	4	5
18-2.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수준	1	2	3	4	5
18-3. 청소년의 인권 보장 수준	1	2	3	4	5

문19. 지난 1년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로부터 체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여기서 ‘체벌’이란 회초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기합이나 훈계 등은 제외함)

내 용	전혀 없다	1~2회	3~4회	5~9회	10회 이상
19-1. 부모님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3	4	5
19-2. 선생님께서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3	4	5

문20.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잘못을 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2.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문2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 지금 하고 있다

21-1.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자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2.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3.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21-2.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자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 전혀 없다
2. 한번 있다
3. 두세 번 정도 있다
4. 여러 번 있다

문22. 당신이 친구를 사귀는데 다음 요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2-1. 친구의 학업성적	1	2	3	4	5
22-2. 친구 집의 경제력	1	2	3	4	5
22-3. 친구의 국적 혹은 인종	1	2	3	4	5

문23. 이주 노동자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부모 중 한분이 외국인)의 또래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친구로서 가깝게 사귈 생각이 있다
2. 친구로 지낼 생각은 있지만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다지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문24.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24-1. 남자(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4-2. 공부를 못 한다(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4-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4-4.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4-5. 출신지역(고향)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4-6. 외모(생김새)나 체격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29.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경험하였습니까?

내 용	전혀 없다	1회	2회	3~4회	5회 이상
29-1. 가출	1	2	3	4	5
29-2. 성인대상 유흥업소 출입	1	2	3	4	5
29-3. 성인용(19세 이상) 음란(포르노)물 열람	1	2	3	4	5
29-4. 성인용(19세 이상) 폭력물 열람	1	2	3	4	5
29-5.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대화 나누기	1	2	3	4	5
29-6.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폭언 하기	1	2	3	4	5

문30.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일류대학(4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2. 보통수준의 대학(4년제)에 진학할 계획이다
3.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4. 취직할 계획이다
5. 상황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문31.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1-1.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또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1	2	3	4	5
31-2.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31-3. 대학을 나와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1	2	3	4	5
31-4. 과외교습을 받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는 어렵다	1	2	3	4	5
31-5.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배경이 중요하다	1	2	3	4	5

문32. 지난 1년간 학교수업 이외에 진학을 위한 과외교습(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받은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 지금 과외 교습을 받고 있다

문33. 평소에 부모님, 학교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부모님과 학교선생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 지 않는다	가끔 대화하 다	자주 대화하 다	매우 자주 대화하 다
33-1. 아버지	1	2	3	4	5
33-2. 어머니	1	2	3	4	5
33-3. 학교선생님	1	2	3	4	5

문34. 당신은 자신의 다음 생활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각
영역별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 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34-1. 자신의 가정생활 전반	1	2	3	4	5
34-2. 자신의 학교생활	1	2	3	4	5
34-3.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1	2	3	4	5
34-4.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동네)	1	2	3	4	5

문35. 당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1. 1시간 이하
2. 1~2시간
3. 2~3시간
4. 3~4시간
5. 4~5시간
6. 5시간 이상

문36. 당신은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 전혀 행복하지 않다 2. 별로 행복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행복하다 5. 매우 행복하다

문37.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8.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39.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9-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9-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	2	3	4	5

문40.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정도입니까?

1. 전혀 없다 2. 1~2명 3. 3~4명
4. 5~9명 5. 10명 이상

문41. 현재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1. 가입하지 않았다
2.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3.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42. 현재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동아리인지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활동하고 있지 않다
2. 학교내 동아리
3. 학교밖 동아리(사이버가 아닌 현실 동아리)
4.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문43.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가끔 있다
4. 자주 있다
5. 매우 자주 있다

문44.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다음의 각 측면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1.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	1	2	3	4	5
44-2. 자신의 적성/특기 계발	1	2	3	4	5
44-3.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	1	2	3	4	5

문45. 부모님은 집안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신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여 주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46. 가정에서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1. 주로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2. 주로 어머니가 결정하신다
3. 주로 부모님 두분이 상의하여 결정하신다
4. 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결정한다

문47. 자신의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하여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1.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2.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라신다
3.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4.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신다

문48. 당신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1.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2. 대체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를 바라신다
3. 대체로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4.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신다

문49.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있습니까?

1.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고 있다
2. 두발만 규제하고 있다
3. 복장만 규제하고 있다
4. 두발과 복장 모두 규제하지 않는다

문50.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51. 부모님은 당신의 두발과 복장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1. 엄격하게 간섭하신다
2. 대체로 간섭하시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다지 간섭하지 않으신다

5.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문52. 당신의 학교에서는 징계대상이 되는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53. 학교선생님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뽐뽐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54.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회(자치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55.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내나 학교밖에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1. 학교내의 활동만 인정한다

2. 학교밖의 활동만 인정한다

3. 학교내와 학교밖의 활동 모두 인정한다

4.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56.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외 아르바이트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57. 당신의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뽑을 때 별도의 조건 없이 누구나 후보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58. 학교의 규율이나 교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지나치게 엄격하다 2. 엄격한 편이다 3. 적절한 수준이다
4. 전혀 엄격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1. 당신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2. 재학 중인 학교는? (※ 종합고등학교의 경우는 진학반은 일반계로, 취업반은 실업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학교 2. 일반계 고등학교 3. 실업계 고등학교

문3. 몇 학년입니까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문4. 학교의 소재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문5. 가장 최근에 치른 시험에서 당신의 학년석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괄호안의 수치는 학년 인원 전체에 대한 백분율임)

1. 상위권(1 ~ 20%) 2. 중상위권(21 ~ 40%) 3. 중위권(41 ~ 60%)
4. 중하위권(61 ~ 80%) 5. 하위권(81 ~ 100%)

문6.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6-1. 아버지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6-2. 어머니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2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졸업 5. 대학원 졸업

문7.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문8. 당신의 가족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단, 기숙사 생활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
| 8-1. 조부모님(또는 두분 중의 한분)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 8-2. 아버지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 8-3. 어머니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 8-4. 손위 형제 또는 자매(형/누나/오빠/언니)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 8-5. 손아래 형제 또는 자매(남동생/여동생)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 8-6. 친척 (삼촌, 고모, 이모 등) | 1. 같이 산다 | 2. 같이 안산다 |

‘청소년 인권’ 관련 학부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인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학교 및 가정교육에 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댁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및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부탁드립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거주지 (시/도)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울산 |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
| <input type="checkbox"/> ⑦ 경기 | <input type="checkbox"/> ⑧ 강원, 충북, 충남 | <input type="checkbox"/> ⑨ 전북, 전남 | <input type="checkbox"/> ⑩ 경북 | <input type="checkbox"/> ⑪ 경남 | |

SQ3. 귀하의 자녀 중에 현재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나요?

① 있다(명)

② 없다 면접중단

※ 만약 중,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큰 아이를 기준으로 여쭙고자 하니, 그 아이에 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Q4. 귀하의 (큰)아이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① 아들

② 딸

SQ5. 귀하의 (큰)아이는 어느 학교 몇 학년인가요?

① 중학교(학년)

② 인문계(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 고등학교 (학년)

③ 실업계 고등학교 (학년)

문6. 귀하의 예상으로 이 아이가 현재와 같이 생활한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4년제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4년제 보통 수준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취직자리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 ⑤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 다음은 귀하와 이 아이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7. 평소에 이 아이와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별로 하지 않는다
- ③ 가끔 하는 편이다
- ④ 자주 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자주 하는 편이다

문8. 이 아이는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귀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 수준이다
- ④ 약간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문9. 귀하는 이 아이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불만이다
- ② 약간 불만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10. 귀하는 청소년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 등의 문제에 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이십니까?

- ① 전적으로 부모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② 가능한 한 부모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③ 가능한 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전적으로 자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문11. 귀하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에 관해 중, 고등학생 자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약간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문12. 귀하는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잘못하였을 경우,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못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②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③ 어떤 경우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문13.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잘못에 대해 교사들이 체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잘못했다면 체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②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③ 어떤 경우라도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

문14. 귀하의 중, 고등학생 자녀들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한 적이 없다
- ② 전에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 ③ 현재 하고 있다

문15.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반대한다 ② 약간 반대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찬성하는 편이다 ⑤ 적극 찬성한다

문16.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행하다 ② 약간 불행한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행복한 편이다 ⑤ 매우 행복하다

※ 다음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문18. 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잘 보장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약간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 마지막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이십니까? (만 세)

- ① 34세 이하 ② 35~39세 ③ 40~44세
④ 45~49세 ⑤ 50~54세 ⑥ 55세 이상

DQ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대재 포함)

DQ3. 귀댁의 생활수준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매우 못 사는 편이다 ② 중간 이하 수준이다
③ 중간 수준이다 ④ 중간 이상 수준이다
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⑥ 모름/무응답(읽어주지 말 것)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자 성명		면접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검증 일자	
응답 태도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비협조적 <input type="checkbox"/> ③ 중간 수준 <input type="checkbox"/> ④ 약간 협조적	<input type="checkbox"/> ② 약간 비협조적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협조적	

부 록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조사의 내용과 방법

지표별 우선순위 부여 및 선별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인권 관련 학계 연구자, 정책실무자 등 19인을 대상으로 각 인권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의뢰하였다. 평가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에게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인권지표를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지표가 그 영역의 인권을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는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지표별 타당도는 5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각 전문가들의 응답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어 각각의 지표의 타당도 점수를 산출했다.

위의 지표별 평가와 함께 전문가들에게 해당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5개씩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정된 각 지표에게 그 순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역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인권지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앞서의 지표평가가 지표별 평가라 한다면, 이를 순위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지표별 평가결과와 순위별 평가결과를 교차합산하여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인권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표별 평가와 순위별 평가결과 최상위 10개 지표를 추출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청소년 생명권 지표항목 조사결과

생명권에 관한 지표별 전문가 평가 결과 상위 10개 지표에는 질적 생존권 관련 지표 5개, 신체적 생존권 관련 지표 4개, 고유의 생명권 관련지표 1개가 선정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청소년 생명권 분야 타당도 지표별 평가 상위 10개 지표

생명권 분야 상위 10개 지표	점수*	세부영역
3-1-1 청소년 자살률	4.789	질적생존권-자살
3-2-1 소년소녀가장 비율	4.684	질적생존권-가족
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 비율	4.421	신체적생존권-빈곤
3-2-3 가출청소년 비율	4.421	질적생존권-가족
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368	질적생존권-사회보장
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4.263	질적생존권-가족
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4.053	신체적생존권-건강
2-4-1 청소년 1일 권장영양량 75%이하 섭취자 비율	4.000	신체적생존권-영양
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4.000	신체적생존권-영양
1-3-1 청소년 사망률	3.947	고유생명권-사망

같은 영역의 지표에 대한 순위별 평가 결과, 질적 생존권 관련 지표 5개, 신체적 생존권 관련 지표 4개, 고유의 생명권 관련 지표 1개가 산출되었다.

〈표 2〉 청소년 생명권 분야 순위평가 상위 10개 지표

생명권 분야 상위 10개 지표	합계	세부영역
3-1-1. 청소년 자살률	10.7	질적 생존권-자살
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8.2	신체적 생존권-빈곤
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7.1	질적 생존권-가족
1-3-1. 청소년 사망률	4.8	고유 생명권-사망
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	4.4	질적 생존권-영양
3-2-3. 가출청소년 비율	3.6	질적 생존권-가족
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3.5	신체적 생존권-빈곤
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3.1	신체적 생존권-질병
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3	신체적 생존권-건강
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2.8	질적 생존권-사회보장

이 두 가지 평가 결과에서 동일하게 지명된, 즉 교차된 생명권 지표는 청소년 자살률, 소년소녀가장 비율,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 비율, 가출청소년 비율,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청소년 사망률, 청소년 1일 권장영양량 75%이하 섭취자 비율 이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했다.

〈표 3〉 생명권 분야 지표 산출 결과 종합

교차된 지표	문항별	순위별
3-1-1 청소년 자살률	1위	1위
3-2-1 소년소녀가장 비율	2위	3위
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 비율	3위	2위
3-2-3 가출청소년 비율	4위	6위
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위	10위
1-3-1 청소년 사망률	10위	4위
2-4-1 청소년 1일 권장영양량 75%이하 섭취자 비율	8위	5위
교차되지 않은 지표		
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6위	
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7위	
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9위	
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7위
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8위
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9위

3. 청소년 보호권 지표항목 조사결과

보호권 분야에서 지표별 타당도 평가 결과 얻어진 상위 10개 지표는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5개, 차별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2개,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3개 였으며, 여기에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표 4〉 청소년 보호권 분야의 지표별 타당도 평가 상위 10개 지표

보호권 지표	점수	세부영역
1-2-1. 청소년 성폭행 피해 발생률	4.526	학대/착취보호-성착취
1-1-1. 학교폭력 발생률	4.474	학대/착취보호-신체학대
1-1-2. 체벌경험률	4.474	학대/착취보호-신체학대
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 비율	4.421	학대/착취보호-경제착취
3-3-1. 가출청소년 비율	4.263	위기/응급보호-가출
2-6-1. 장애청소년의 취학률	4.263	차별보호-장애
1-2-2. 성매매 연간발생률	4.211	학대/착취보호-성착취
3-2-1. 청소년 범죄율	4.211	위기/응급보호-범죄
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4.158	위기/응급보호-범죄
2-6-2. 장애청소년 취업률	4.105	차별보호-장애

이는 순위별 타당도 평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5개, 차별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2개,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 3개가 포함되었으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관련 지표는 역시 순위별 평가에서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표 5〉 청소년 보호권 분야의 순위별 평가결과 상위 10개 지표

보호권 지표	합계	세부영역
1-1-2. 체벌경험률	7.3	학대/착취보호-신체학대
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7.1	위기/응급보호-범죄
1-2-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6.9	학대/착취보호-성착취
1-1-1. 학교폭력발생률	6.2	학대/착취보호-신체학대
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5.3	학대/착취보호-경제착취
3-2-1. 청소년범죄율	4.8	위기/응급보호-범죄
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4	차별보호-장애
2-1-1. 양성평등의식지수	3.3	차별보호-성
3-3-1. 가출청소년 비율	2.7	위기/응급보호-가출
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2.5	학대/착취보호-성착취

교차분석 결과, 보호권 영역에서는 2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지표는 장애청소년취업률과 양성평등의식지수였다. 이 ‘양성평등의식지수’는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성차별적 태도와 문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지표이다.

그 외에 가출청소년 비율은 앞서의 생명권에도 포함된 지표였다. 이렇듯 전문가평가에서조차 두 영역에서 동일한 지표가 중복 선정된다는 사실은 이는 이전 연구에서 청소년인권 지표의 영역별로 중복된 지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즉, 청소년 인권지표들 중에는 실제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표 6> 보호권 분야 지표 산출결과 종합

교차된 지표	문항별	순위별
1-2-1. 청소년 성폭행 피해 발생률	1위	3위
1-1-1. 학교폭력 발생률	2위	4위
1-1-2. 체벌경험률	3위	1위
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 비율	4위	5위
3-3-1. 가출청소년 비율 *	5위	
2-6-1. 장애청소년의 취학률	6위	
1-2-2. 성매매 연간발생률	7위	
3-2-1. 청소년 범죄율	8위	
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률	9위	2위
교차되지 않은 지표		
2-6-2. 장애청소년 취업률	10위	
2-1-1. 양성평등의식지수		8위

* 생명권에서와 중복 지정된 지표

4. 청소년 발달권 지표항목 조사결과

발달권 분야에서 지표별 타당도 평가 결과 얻어진 상위 10개 지표는 정서적 발달 관련 지표 6개, 신체적 발달 관련 지표 2개, 인지적 발달 관련 지표 1개, 사회적 발달 관련 지표 1개 였으며 직업적 발달 관련 지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표 7> 발달권 분야 지표별 타당성 평가 상위 10개 지표

발달권 지표	점수	세부영역
2-2-3. 행복 지수	4.684	정서발달-정서안정
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4.474	신체발달-발달기회
2-2-2. 스트레스 지수	4.316	정서발달-정서안정
2-1-4. 청소년 여가시간	4.316	정서발달-발달환경
5-1-1.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4.263	신체발달-발달기회
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4.158	정서발달-발달환경
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4.105	정서발달-발달환경
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4.105	정서발달-발달환경
1-1-1. 취학률	4.000	인지발달-발달기회
3-2-2. 문화감수성 지수	4.000	사회발달-발달정도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권 지표의 순위별 타당도 평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표별 타당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달권에서는 정서적 발달 관련 지표가 가장 많았으며(4개), 그 다음은 신체적 발달 관련 지표(2개)와 사회적 발달관련 지표(2개), 인지적 발달 관련 지표(1개)와 직업적 발달관련지표(1개) 뒤를 이었다.

〈표 8〉 발달권에서의 순위별 타당도 평가결과 상위 10개 지표

발달권 지표	합계	세부영역
2-2-3. 행복(심리적 안녕감) 지수	10.2	정서발달-정서안정
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6.4	정서발달-발달환경
2-1-4. 청소년 여가시간	6.3	정서발달-발달환경
2-2-2. 스트레스 지수	5.9	정서발달-정서안정
5-1-1.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4.9	신체발달-발달기회
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4.5	신체발달-발달기회
3-2-2.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3.6	사회발달-발달정도
1-1-1. 취학을	3.1	인지발달-발달기회
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3.1	직업발달-준비기회
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	사회발달-발달기회

교차분석 결과, 발달권 영역에서는 4개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지표가 일치했다. 제외된 지표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청소년 여가시설 수,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였다. 행복지수는 두가지 측정 모두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지수나 청소년 여가시간 같은 지수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측정 방법에 따라서 순위가 가장 크게 달랐던 지표는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정도와 1일 평균 수면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했다.

〈표 9〉 발달권 분야 지표 산출결과 종합

교차된 지표	지표별	순위별
2-2-3. 행복 지수	1위	1위
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2위	6위
2-2-2. 스트레스 지수	3위	4위
2-1-4. 청소년 여가시간	4위	3위
5-1-1.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5위	5위
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6위	2위
1-1-1. 취학률	9위	8위
3-2-2. 문화감수성 지수	10위	7위
교차되지 않은 지표		
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8위	
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7위	
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9위
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10위

5. 청소년 참여권 지표항목 조사결과

참여권 분야에서 지표별 타당도 평가 결과 얻어진 상위 10개 지표는 사회 참여 및 참정권 관련 지표가 4개로 가장 많았고, 자기결정권 관련 지표가 그 다음으로 3개, 표현의 자유 관련 지표 2개,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지표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접근권에 관한 지표는 하나도 없었다.

〈표 10〉 참여권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 상위 10개 지표

참여권 지표	점수	세부영역
5-2-2.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 허용 학교비율	4.632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4.579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579	표현자유-사적취향
5-2-1. 학생대표 피선출권 제한하는 학교비율	4.474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5-2-4.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4.368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1-3-2. 진로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정도	4.368	자기결정-교육-진로
2-2-2. 교내 징계시 의사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63	표현자유-학생의견
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규제정도	4.263	집회/결사자유-학교외
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58	자기결정-종교
1-2-2. 부모의 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4.158	자기결정-가정사

참여권 영역은 지표별 타당도 평가결과와 순위별 타당도 평가결과가 비교적 많이 어긋나는 영역이었다. 순위별 타당도 평가결과, 사회참여 및 참정권 관련 지표가 4개로 가장 많고 자기결정권 관련 지표 3개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으나, 표현의 자유 관련 지표가 3개였던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지표는 모두 0개로 나타났다.

〈표 11〉 참여권 영역의 순위별 평가 상위 10개 지표

참여권 지표	합계	세부영역
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9.8	표현자유-사적취향
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8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6	자기결정-교육-진로
5-1-3. 청년 실업률	4.2	사회참여/참정권-사회참여
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 제한(성적 등을 통해)하는 학교비율	4.2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	자기결정-가정사
1-2-2.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3.6	자기결정-가정사
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3.6	표현자유-학생의견
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3.6	표현자유-학생의견
5-2-4.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3.5	사회참여/참정권-참정권

표 12: 참여권 영역에 대한 지표산출 결과 종합

교차되는 지표	지표별	순위별
5-2-2. 교칙 재개정시 학생참여 허용학교비율	1위	2위
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3위	1위
5-2-1. 학생대표 피선출권 제한하는 학교비율	4위	5위
5-2-4.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5위	10위
1-3-2. 진로선택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정도	6위	3위
2-2-2. 교내 징계시 의사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7위	8위
1-2-2. 부모의 이혼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비율	10위	7위
교차되지 않는 지표		
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2위	
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규제 정도	8위	
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9위	
5-1-3. 청년 실업률		4위
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6위
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9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1-2. 신체적 생존권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성, 연령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성, 연령	
	1-2-7 치료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성, 연령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성, 연령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성, 연령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성, 연령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성, 연령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성, 연령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성, 연령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성, 연령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성, 연령	
	1-3. 질적 생존권		1-2-9-3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	성, 연령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	성, 연령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성, 연령
1-3-2 가족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성, 연령	
		1-3-2-3	가출청소년 비율	성, 연령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성, 연령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성, 연령		

2) 청소년 보호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2-1. 학대 및 착취로 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	성, 연령, 교급
		2-1-1-2	체벌경험률	성, 연령, 교급
		2-1-2-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성, 연령
	2-1-2. 성매매 및 성적착취	2-1-2-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교급
		2-1-2-3	미혼부모의 발생률	연령, 교급
		2-1-3-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사업취업률	성, 연령, 지역
	2-1-3. 경제적 착취	2-1-3-2	평균근로시간	연령, 지역
		2-1-3-3	성인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	성, 연령
		2-1-3-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성, 연령
		2-1-3-5	근로여건 만족도	성, 연령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성, 연령, 지역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성, 교급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성, 연령, 지역
	2-2-2. 민족차별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성, 연령, 지역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연령, 지역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성, 연령
		2-2-5-1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	성, 연령, 교급
		2-2-6-1	장애 청소년의 취학률	성, 연령, 교급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성, 연령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성, 연령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성, 연령, 지역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예산	
	2-3-2. 범죄로부터의 보호	2-3-2-1	청소년 범죄율: 유형별/연령별/동기별/교육수준별	교급, 유형, 동기, 연령
		2-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교급
	2-3-2-3	누범률	교급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교급	
2-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3-3. 가출로 부터의 보호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성, 교급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2-3-3. 가출로 부터의 보호	2-3-3-1	가출청소년 비율	교급
		2-3-3-2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	교급
	2-3-3. 가출로 부터의 보호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 수용비율	
		2-4-0-1	학교주변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 수	
2-4-0-2	2-4-0-2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실적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3) 청소년 발달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 기회	3-1-1-1	취학률	성, 교급, 지역	
		3-1-1-2	중퇴율	성, 교급	
		3-1-1-3	대학진학률	성, 연령, 지역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교급, 지역	
	3-1-2. 인지능력	3-1-2-1	창의성 지수	성, 연령, 지역	
		3-1-2-2	문제해결능력 지수	성, 연령, 지역	
		3-1-2-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성, 연령, 지역	
		3-1-2-4	지능지수	성, 연령, 지역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 환경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성, 연령, 지역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성, 연령, 지역
			3-2-1-3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성, 연령
			3-2-1-4	청소년 여가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2-2. 정서적 안정	3-2-2. 정서적 안정	3-2-2-1	청소년 여가시설 수	지역	
		3-2-2-2	우울증 지수	성, 연령	
		3-2-2-2	스트레스 지수	성, 연령	
		3-2-2-3	행복(심리적 안녕감) 지수	성, 연령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친구 수	성, 연령	
		3-3-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성, 연령, 지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3-3. 사회적 발달	3-3-2. 사회성 발달 정도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 동아리 수	성, 연령, 교급, 지역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성, 연령		
		3-3-2-1	갈등이해능력 지수	성, 연령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3-2-2	문화감수성(타문화수용능력) 지수	성, 연령	
			3-3-2-3	리더십 능력 지수	성, 연령	
			3-4-1-1	월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수	성, 연령, 교급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성, 연령, 교급	
		3-4-2. 직업능력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성, 연령, 교급	
			3-4-2-1	진로성숙도 지수	성, 연령, 교급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성, 연령, 교급
				3-5-1-1	청소년의 주당 평균 운동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5-2. 신체적 능력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성, 연령, 교급, 지역
				3-5-2-1	50미터 달리기	성, 연령, 지역
	3-5-2. 신체적 능력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매달리기)	성, 연령, 지역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성, 연령, 지역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성, 연령, 지역		

4) 청소년 참여권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4-1. 자기결정권 (=청소년의 건준중)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연령, 성, 지역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교급, 지역
		4-1-1-3	종교단체 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 비율	교급, 지역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2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연령, 성, 지역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 비율	연령, 성, 지역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1-4. 문화·여가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연령, 성, 지역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2. 표현의 자유	4-2-1. 사적취향의 표현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 정도	연령, 성, 지역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3. 집회·결사의 자유	4-2-2.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연령, 성, 지역
4-3. 집회·결사의 자유	4-3-1. 학교 내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교급, 성, 지역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연령, 성, 지역
4-3-2. 학교 외에서의 집회·결사	4-3-2-1	4-3-2-1	청소년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연령, 성, 지역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연령, 성, 지역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4-4. 정보접근권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비율	연령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연령, 성, 지역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지역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지역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성, 지역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연령, 성, 지역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연령(17-24세), 성, 지역
		4-5-1-3	청년 실업률	연령(20-24세), 성, 지역
		4-5-1-4	청소년 정책관련 활동 동아리 참여율	연령, 성, 지역
	4-5-2. 참정권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 제한(성적 등을 통제한)하는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2	교직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비율	교급, 지역
		4-5-2-4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연령(19-24세), 성

5) 청소년인권 인포라 지표 조사항목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고유번호	개별지표항목	비고
5-1. 청소년인구	5-1-1. 청소년 총인구	5-1-1-1	총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1	장애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 특수 청소년인구	5-1-2-2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1-2-4		5-1-2-4	다문화가정 자녀 청소년 인구수	성, 연령, 지역
		5-2-1-1	청소년인권관련 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5-2. 법·제도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성, 연령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노력	5-2-2-2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성, 연령
		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향상 노력	성, 연령
	5-2-2-4	5-2-2-4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성, 연령
		5-3-1-1	비정부조직의 구성 현황	지역
5-3. 비정부조직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성, 연령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성, 연령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노 혁 나사렛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문병호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
박금렬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인권팀
박진규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서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 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mann·Hideki Watanabe·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가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인 쇄 2007년 12월 28일

발 행 2007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운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2-8(93330)